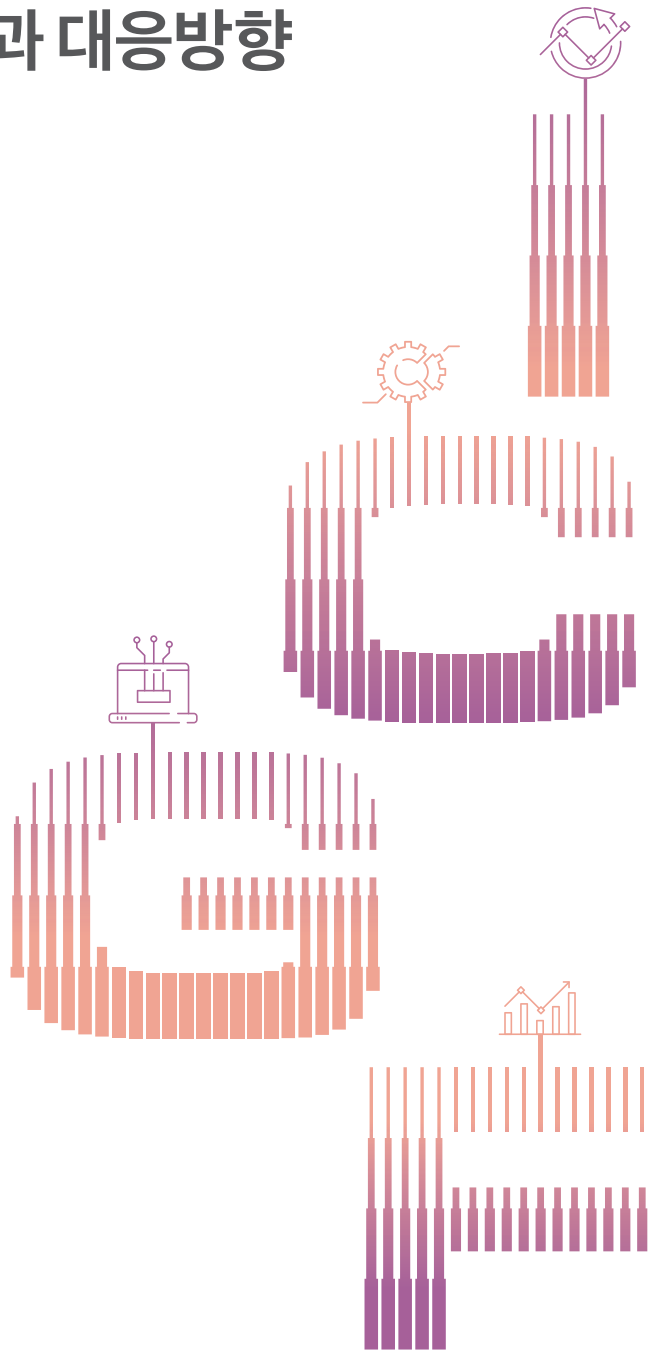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보증 이용기업의 연령대별 특성 분석과 대응방향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 고령화에 대비해 가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은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고령 소상공인의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소상공인도 뚜렷하게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고령화 경향은 제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 후 본격적으로 자영업에 진입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퇴 후 재취업이 쉽지 않은 만큼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진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 소상공인은 수익성은 낮고, 부채는 높아서 부실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원도심 상권이 고령화와 점포 노후화의 영향으로 상권 쇠퇴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의 입장에서 보면 고령화는 신용보증의 필요성을 키우지만 동시에 보증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구조적 환경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각종 공공통계와 신용보증자료를 바탕으로 연령별로 살펴보고, 주로 고령층에 초점을 두고 인천 소상공인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전국과 인천시를 구분하여 수익, 부채, 폐업률 등 항목별로 비교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고령 소상공인과 관련하여 학계와 업계에서 관심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이슈별 분석 장에서 심층적으로 분석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황 분석과 이슈별 분석을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신용보증 관점에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방향을 탐색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제시한 내용들이 인천시 소상공인 실태 파악과 대응과제 수립에 기여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령자 정책은 산업, 노동, 복지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어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부문입니다. 늙는다는 것이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성숙한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 부 현**

1. 현황 분석

- 인천시 자영업자수는 2022년부터 매년 증가되는 추세여서 전국적으로 자영업자가 감소 또는 정체되는 추세와는 대비되며, 인천시 연령별 개인사업자수를 보면, 60대, 70대 이상 고령자의 수가 매년 증가되는 추세
- 고령 소상공인의 폐업률은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젊은층에서 높은 폐업률 지속
- 고령층 대출 비중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대출 연체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고령층 취약차주의 대출비중은 가장 높은 편
- 고령 소상공인은 창업교육 경험이 낮고 창업준비 기간이 짧으며 전자상거래 실적도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소상공인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신용보증과 관련해서는 고령층의 신규보증 증가율이 약간 높고 비대면 보증 이용비율이 낮으며, 접수 대비 승인 비율은 다른 연령층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2. 이슈별 분석

가. 자영업 선택과 동기

- 실업률(연령별)과 신규 진입자수와의 상관분석, 교차상관분석을 통해 생계형 자영업자 현황을 추정
 - 자료기간은 2000년 1월 ~ 2025년 12월의 월별 데이터
- 전국 상관분석 결과에서는 연령별 실업률과 신규 진입자 간의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며 교차상관 분석 결과에서는 전체 실업률과 60대 실업률이 모두 신규 진입자에 2기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고령자의 생계형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시사
- 인천 교차상관 분석 결과에서는 실업률과 60대 실업률이 모두 신규 진입자와 선행 관계를 찾기 어려워 고령자의 생계형 성격이 전국보다는 약하다는 것을 시사
 - 생계형 성격은 수도권, 광역시보다는 지방, 광역도에서 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

- 설문조사에서는 점차적으로 생계형 응답이 높아지고 있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생계형 응답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나. 고령화와 보증 리스크

- GDP와 중소기업, 인천소상공인 연령별 매출액, 영업이익의 증감율을 비교 관찰하여 고령 소상공인이 경기 변동, 경기 충격에 더 민감한가를 검증
- 증가율의 크기는 GDP 증가율 < 중소기업 매출액 증감율 < 인천소상공인 매출액으로 나오고 중소기업, 인천 소상공인 모두 60대이상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영업이익 수준에서는 변동폭이 인천 소상공인 매출액 변동폭 < 영업이익의 변동폭으로 나오는데, 60대 이상이 변동폭이 더 큰 것은 아님
- 신용보증재단 통계분석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고령화와 보증부실율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고령자의 보증순사고율이 다른 연령대 보다 낮게 나타나고, 회수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반복적으로 보증을 받은 사업자들이 보증사고율이 떨어질 수 있어서 업력을 바탕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고령자도 업력이 짧을수록 보증사고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남
 -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고령자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서 단순히 고령자 집단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준비 안 된 노후창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

다. 고령화와 상권 쇠퇴

- 인천 지역별 고령화와 상권 쇠퇴의 연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군·구별 폐업률, 보증사고율, 공실률 등을 살펴봄
- 폐업률을 보면 최근에는 서구, 연수구, 중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도시 지역에서 폐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 인천시 군·구별로 연령별 소상공인 비율과 보증사고율 분포 간에는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로 연령과 보증사고율은 반비례
- 상가 공실률은 구월, 부평, 소래포구, 신포 등이 높게 나타나 고령자 비율과 상권쇠퇴의 일관된 관계를 발견하기 어려움

라. 시사점 및 후속과제

-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시사점과 후속과제를 도출해 볼 수 있음

시사점

단순히 고령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준비 안 된 고령 창업이 위험

- 은퇴 고령자가 생계를 위해 음식점, 소매업 등 과밀 업종에 진출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
- 고령자 외에도 자영업자 전반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함

고령 소상공인도 동질적 집단은 아님

- 단지 규모가 작다는 의미일 뿐 수 많은 사업체가 포함되어 있어서 업종, 지역, 성별 등에 따라 성격이 제각각
- 세분 시장 별로 현황 파악이 우선

고령 소상공인은 공통적으로 디지털, 비대면, 온라인 주문 등에 취약

- 역량강화 및 사업편의 환경 조성 지원이 필요

추진과제

고령 창업의 억제, 전환, 지원의 동시적, 복합적 추진

- 고령 소상공인 지원 강화
- 구조적 전환 및 변화 유도

인천 소상공인의 세분화된 접근

- 생계형 창업, 은퇴 후 고령 창업자 등에 대한 기초 통계 확보
- 지역상권정보의 생산 및 공유, 활용
- 특정 집단에 초점을 둔 선별적, 맞춤형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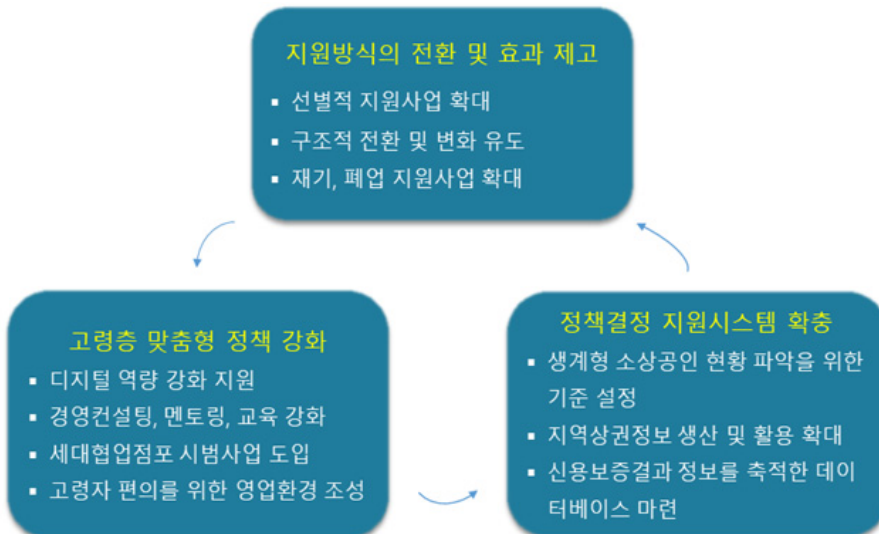
지속적인 교육 컨설팅, 디지털 교육 확대

-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경영컨설팅 교육 강화

3. 대응 방향

가. 기본 방향

- 현황분석과 이슈별 분석 결과, 고령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버티게 하는 지원'이 아니라 '전환·퇴출·승계'에 초점을 둔 지원, 고령자에게는 맞춤형 지원뿐만 아니라 재취업, 복지 등과 연계된 선택적 지원, 고령 소상공인의 처지를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계기반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 위와 같은 추진방향 하에서 지원방식의 전환 및 효과 제고, 고령층 맞춤형 정책 강화,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확충으로 분류하여 아래와 같은 세부 대응과제를 제시함



나. 대응 과제

- 고령 소상공인 전체가 고위험군이 아니라 1~2년차 고령 창업자가 특히 위험이 큰 만큼 고령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이 필요
 - 보증료, 거치기간, 상환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컨설팅 교육 이수, 세대협업 점포 시범사업, 생계형 자영업 등과 결합하여 대상을 제한하는 조건을 설정
- 한계에 달한 고령 소상공인에게는 체계적인 폐업관리 및 업종전환 지원이 필요
 - 지원사업 간 연계, 적극적 대상 발굴 등을 통해 재기 및 폐업 지원사업 확대
- 폐업가능성이 높은 고령 소상공인을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폐업 지원, 업종 전환 등으로 선제적 대응
- 고령화, 점포 노후화에 대응할 새로운 시도라는 의미에서 세대협업점포 시범사업 검토
- 운영중인 사업자 외에 창업전 예비창업자 대상으로도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
 - 아이디어 교류, 기술 협업이 일어나는 인천시 소상공인의 네트워크 공간 역할 수행
 - 고령층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취약하여 디지털 교육 확대 필요
- 찾아가는 보증 서비스 확대, 고령자 점포 작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슬로우 푸드 문화 캠페인, 고령 소상공인 대상 돌봄여행서비스 시행 등과 같은 사업을 통해 고령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
- 인천시 소상공인을 생계형과 기회형으로 구분하기 위한 판별기준에 관한 연구 필요
 - 영업이익, 매출변동성, 창업동기,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준의 설정이 필요
- 행정동, 상권 등 특정 장소, 세부 업종에 대한 세밀한 통계가 필요하고, 기존 시스템과 차별화된 상권정보시스템의 도입 모색 필요
- 성과분석을 위한 데이터 DB화, 시각화
 - 매출, 부채, 자산, 고용, 신용등급, 폐업 등 사업체 정보가 연도별로 정리되어 추적관리 되어야 하고, 신용보증 결과를 공간적으로 시각화 하여 활용하는 것도 필요

1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범위 및 방법	5
제2절 선행연구와 개념 구분	6
1. 선행 연구 검토	6
2.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비교	8

2 현황 분석

제1절 인구 고령화 추세	13
1. 전국	13
2. 인천	16
제2절 소상공인 고령화 추세	18
1. 전국	18
2. 인천	21
제3절 고령 소상공인의 생존율, 폐업률	25
1. 전국	25
2. 인천	27
제4절 고령 소상공인 대출 성향	32
1. 전국	32
2. 인천	34
제5절 영업 현황 및 실적	37
1. 고령 소상공인 영업 현황	37
2. 고령 소상공인 영업 실적	40
제6절 인천 소상공인 신용보증 이용 현황	42
1. 보증 이용 현황	42
2. 신용보증재단 통계분석시스템	45

3 이슈별 분석

제1절 고령화와 생존율	51
1. 분석 자료 및 방법	51
2. 생존분석 결과	52

3

이슈별 분석

제2절 자영업 선택과 동기	56
1. 개념 구분	56
2. 분석 과정 및 결과	57
제3절 고령화와 보증 리스크	63
1. 고령화와 경기 변동(business cycle)	63
2. 고령화와 보증부실율	68
제4절 고령화와 상권 쇠퇴	75
1. 의의 및 방법	75
2. 분석 과정 및 결과	76
제5절 분석 종합	82
1. 시사점	82
2. 후속 과제	84

4

대응방향

제1절 기본 방향	89
1. 지원방식의 전환 및 효과 제고	89
2. 고령층 맞춤형 정책 강화	90
3.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확충	90
제2절 대응 과제	92
1. 지원방식의 전환 및 효과 제고	92
2. 고령층 맞춤형 정책 강화	96
3.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확충	99

참고 문헌

.....	105
-------	-----

부록

.....	107
-------	-----

1

서론

〈표 1-1〉 소상공인 등의 비교	9
--------------------------	---

2

현황 분석

〈표 2-1〉 노인인구 비중 현황 및 전망	13
〈표 2-2〉 인천시 고령자 비중 추이	16
〈표 2-3〉 인천시 군·구별 고령화율	16
〈표 2-4〉 전국 소상공인 연령별·연도별 추이	18
〈표 2-5〉 소상공인 연령대 비중(2023년)	19
〈표 2-6〉 전국 연령별 소상공인수(2023년)	19
〈표 2-7〉 자영업자 연령대 비중(전국)	20
〈표 2-8〉 인천시 사업체 연령별·연도별 추이	21
〈표 2-9〉 인천시 군·구별 소상공인수(2023년)	22
〈표 2-10〉 인천시 자영업자 추이	22
〈표 2-11〉 인천시 개인 사업자의 연령대 추이(국세통계)	22
〈표 2-12〉 인천시 소상공인 연령별·연도별 현황	23
〈표 2-13〉 인천시 소상공인 지역별·연령별 현황(2023년)	23
〈표 2-14〉 인천시 전통시장 점포주 연령별 분포	24
〈표 2-15〉 대표자 연령별 개인사업자 소멸률	26
〈표 2-16〉 인천시 사업체 생존율(2024년)	27
〈표 2-17〉 연령별 평균점수(생명표법)	28
〈표 2-18〉 연령별 생존기간에 대한 평균 및 중위수(카플란마이어)	28
〈표 2-19〉 고령자의 업종별 평균점수(생명표법)	29
〈표 2-20〉 인천 소상공인 연령별 폐업률	30
〈표 2-21〉 인천시 소상공인 폐업사업체 폐업사유(2023년)	31
〈표 2-22〉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수혜기업의 분포	31
〈표 2-23〉 연령별 폐업여부별 교차분석 결과	31
〈표 2-24〉 연령별 다중채무 사용여부별 교차분석 결과	34
〈표 2-25〉 연령별 신용평점 등급별 교차분석 결과	35
〈표 2-26〉 운영 관련 대출 총액	35
〈표 2-27〉 운영 관련 대출 유형별 비율	36
〈표 2-28〉 소상공인 연령별 영업현황(2023년)	37
〈표 2-29〉 소상공인 연령별 사업장 점유형태(2023년)	38
〈표 2-30〉 소상공인 연령별 사업전환 운영계획(2023년)	38

2

현황 분석

〈표 2-31〉 인천시 소상공인 연령별 영업현황(2023년)	39
〈표 2-32〉 인천시 소상공인 연령별 특성(2023년)	39
〈표 2-33〉 전국 소상공인 연령별 경영실적(2023년)	40
〈표 2-34〉 인천시 소상공인 연령별 경영실적(2023년)	41
〈표 2-35〉 인천시 소상공인 대표자 연령별 현황(2023년)	41
〈표 2-36〉 사업체당 영업이익	41
〈표 2-37〉 신용보증 지원 신청 및 지원 여부	42
〈표 2-38〉 연령별 보증 서비스 이용 여부	42
〈표 2-39〉 연령대와 교육인지 교차표	43
〈표 2-40〉 연령대와 교육프로그램 이용의향 교차표	43
〈표 2-41〉 연령대와 비대면 신청 이용의향 교차표	44
〈표 2-42〉 인천시 소상공인 지역별 신용보증 융자지원 사업체 현황	44
〈표 2-43〉 인천시 소상공인 업종별 신용보증 수혜비율(2023년)	45
〈표 2-44〉 인천시 소상공인 연령별 보증실행건수(신규보증)	45
〈표 2-45〉 군·구별 연령별 보증잔액금액(2025년)	46
〈표 2-46〉 인천시 소상공인 연령별 비대면 이용건수	46
〈표 2-47〉 전체 신규보증건수 대비 비대면 건수 비중	47
〈표 2-48〉 2025년 보증심사 단계별 실적	48

3

이슈별 분석

〈표 3-1〉 생존분석 자료유형	51
〈표 3-2〉 업종별 평균점수(생명표법)	53
〈표 3-3〉 다중채무자여부별 생존기간에 대한 평균 및 중위수(카플란마이어) ..	54
〈표 3-4〉 대출금증가율별 생존기간에 대한 평균 및 중위수(카플란마이어)	55
〈표 3-5〉 상관관계 분석(전국)	57
〈표 3-6〉 실업률과 신규진입자의 교차상관(전국)	58
〈표 3-7〉 60대이상 실업률과 신규진입자의 교차상관(전국)	58
〈표 3-8〉 사업시작 동기	59
〈표 3-9〉 상관관계 분석(인천)	59
〈표 3-10〉 인천시 소상공인 창업동기	61
〈표 3-11〉 현 사업체 창업 동기 1순위(2025년)	62
〈표 3-12〉 국내총생산(명목)	64
〈표 3-13〉 중소기업의 대표자 연령별 매출액	64
〈표 3-14〉 대표자 연령별 매출액(인천시 소상공인)	65

3

이슈별 분석

〈표 3-15〉 대표자 연령별 매출액(인천시 소상공인)	66
〈표 3-16〉 사업체당 영업이익	66
〈표 3-17〉 인천시 소상공인 대표자 연령별 보증실행건수(신규보증)	69
〈표 3-18〉 인천시 소상공인 대표자 연령별 보증실행금액(신규보증)	69
〈표 3-19〉 연령별 보증공급건수와 실행건수 구분(2025년)	70
〈표 3-20〉 인천시 소상공인 연령별 보증사고율	70
〈표 3-21〉 2025년 연령대별 보증순사고율	71
〈표 3-22〉 2024년 연령대별 보증순사고율	71
〈표 3-23〉 2023년 연령대별 보증순사고율	71
〈표 3-24〉 2025년 연령대별 대위변제순증률	72
〈표 3-25〉 2025년 연령대별 대위변제회수율	72
〈표 3-26〉 2025년 연령대별 신규보증 비율	73
〈표 3-27〉 2025년 60대 이상 연령 사업주의 업력별 보증순사고율	74
〈표 3-28〉 2025년 전체 연령대의 업력별 보증순사고율	74
〈표 3-29〉 인천시 지역별·연령별 소상공인 현황(2023년)	76
〈표 3-30〉 인천 소상공인 군·구별 연령대 비율(2023년)	76
〈표 3-31〉 연령별 지역 구분	77
〈표 3-32〉 인천시 군·구별 폐업률	78
〈표 3-33〉 인천시 군·구별 보증사고율(2025년)	78
〈표 3-34〉 군·구별 연령대별 보증사고율 교차분석(2025년)	79
〈표 3-35〉 인천 주요 상권(중대형 상가) 공실률 현황	81
〈표 3-36〉 인천 주요 상권(소규모 상가) 공실률 현황	81

4

대응방향

〈표 4-1〉 퇴출 대상 선별과정 예시	94
〈표 4-2〉 세대협업점포 사업 유형	95

1	[그림 1-1]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개념 비교	8
서론		
2	[그림 2-1]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 현황 및 전망	14
현황 분석	[그림 2-2] 고령 자영업자 비중 추이 및 전망	14
	[그림 2-3] OECD 국가별 자영업 비중(2023년 기준)	15
	[그림 2-4] 인천시 70대 상주인구의 지역별 분포	17
	[그림 2-5] 전국 전통시장 점포주 연령별 분포	24
	[그림 2-6] 60세 이상 사업체 생존율(2024년)	25
	[그림 2-7] 60세 미만 사업체 생존율(2024년)	26
	[그림 2-8] 연령별 생존합수	29
	[그림 2-9] 연령별 자영업 잔류율 및 현직 유지율	30
	[그림 2-10] 연령별 연체율 추이 및 금융채무 불이행 추이	33
	[그림 2-11] 심사과정 및 2025년 실적	47
3	[그림 3-1] 업종별 생존합수	53
이슈별 분석	[그림 3-2] 상환유형별 생존합수	54
	[그림 3-3] 대출금증가율별 생존합수	55
	[그림 3-4] 교차상관분석 결과(실업률과 신규진입자)	58
	[그림 3-5] 교차상관분석 결과(60대이상 실업률과 신규진입자)	58
	[그림 3-6] 교차상관분석 결과((인천 실업률과 신규진입자)	60
	[그림 3-7] 교차상관분석 결과(인천 60대이상 실업률과 신규진입자)	60
	[그림 3-8] GDP 증가율과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 추이	65
	[그림 3-9] 인천 소상공인의 매출액 추이	66
	[그림 3-10] 인천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추이	67
	[그림 3-11] 연령별, 연도별 영업이익률 변동	67
	[그림 3-12] 권역 및 보증 여부별 사장님 평균연령 분포	77
	[그림 3-13] 인천시 군·구별 창업률 및 폐업률(2026년 1월)	77
	[그림 3-14] 군·구별 연령대별 보증사고율 분포(2025년)	79
	[그림 3-15] 군·구별 연령대 비중과 보증사고율 분포	80
	[그림 3-16] 시사점 및 후속과제	85
4	[그림 4-1] 기본방향 설정	91
대응방향	[그림 4-2] BASA의 보증기업 기본정보 조회	103
	[그림 4-3] BASA의 보증기업 분포 조회	103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보증 이용기업의 연령대별 특성 분석과 대응방향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자영업자는 대형마트, 온라인 플랫폼 출현 등으로 구조적으로 영입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경기 침체,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온라인 유통의 급속한 확산, 소비패턴의 구조적 변화, 플랫폼 경제 심화 등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경영 부담과 급변하는 시장환경으로 인해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2024년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62%가 '영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10곳 중 3곳은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단순한 경기침체 수준이 아니라 영세한 자영업자의 구조적 위기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2020~2022년에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던 폐업률이 2023년 들어 상승 전환하여 최근에는 폐업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넘어서고, 그중에서도 고령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는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왔지만 근래 고령 자영업자의 비중은 오히려 더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약 210만 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558만 명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 자영업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조기퇴직 후 괜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지 못해서 생계유지와 자녀 교육 등을 위해 자영업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진 데에 연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서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것으로서 자영업의 현실을 모르지 않는 고령자가 이미 포화 상태인 생계형 자영업에 상당한 위험을 안고 창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고령 자영업자는 주로 음식점, 소매업 등 생계형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퇴직 후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고령 은퇴자의 자영업의 진입은 제1차 베이비 부머(1955년생~1963년생)에 이어 제2차 베이비 부머(1964년생~1974년생)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은퇴 후 재취업이 쉽지 않은 만큼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한 자영업 창업이 늘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창업 업종도 노동집약적이며 부가가치가 낮은 대표적인 생계형 서비스업종인 음식숙박업, 소매업 등으로 개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업종은 진입장벽이 낮고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이들 업종은 과밀 상태이고 경쟁이 치열한 만큼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고령자의 경제적 성과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¹⁾. 또한 고령 창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창업 준비 기간이 짧고 디지털 적응력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은행 보고서가 경고한 것처럼 고령 자영업자는 생계형 사업장에서 디지털 격차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갇혀 있다²⁾. 그만큼 준비 안 된 고령 자영업 창업은 도산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인구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 수요 축소와 고령 생계형 창업에 따른 공급 확대가 이중적 구조 압박으로 작용하여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 한계자영업자의 자발적 퇴장이 원활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공존한다. 신용보증의 관점에서 보면 고령화는 신용보증의 필요성을 키우지만 동시에 보증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구조적 환경 변화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불가피하지만 신용보증 관점에서는 제도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위의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나면서도 구도심 상권이 자영업자의 고령화와 점포 노후화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다. 인천시의 경우, 원도심과 신도심, 내륙과 도서지역 간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고령화의 영향 정도가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인천시에서도 고령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노후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통계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국가데이터의 공공통계 등 각종 공공통계와 신용보증재단 통계분석시스템 상의 통계를 주로 사용하여 고령자에 초점을 둔 연령별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신용보증 관점에서 고령화 추세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탐색해 보기로 한다.

1) 김두순·지은정(2024), 「고령자 노동이동 : 생애 주된 숙련의 활용 관점에서」, 한국고용정보원

2) 이재호·정동재·안병택(2025),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2. 연구 범위 및 방법

공간적 범위는 인천시에 중점을 두고, 시간적 범위는 코로나 발생 이후 최근까지 벌어진 자영업 시장에서의 현상에 초점을 두기로 한다. 연구 내용은 고령 소상공인, 생계형 소상공인, 노후 창업 현황 및 리스크, 상권쇠퇴 등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사항, 지속되고 있는 추세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현황 분석과 이슈별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인천지역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분석과정은 주로 공공통계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현황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보증과 관련된 현황은 신용보증재단 통계분석시스템을 통해 관련 수치를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령층의 상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를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통계분석은 분석내용에 따라 적합한 분석방법을 선택하기로 하며 주로 상관분석, 교차상관분석, 생존분석 등이 이용될 것이다.

제2절

선행연구와 개념 구분

1. 선행 연구 검토

고령화와 관련된 연구는 인구와 복지, 고용 정책, 소상공인 정책 등의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의 연구는 주로 중소벤처기업연구원³⁾에서 진행되고 있다.

남윤형(2019)³⁾은 인구구조 변화가 소상공인 사업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고령화가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고령화의 영향으로 50세 이상 소상공인 사업주의 비중이 늘어난다. 이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타 연령층보다 낮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둘째, 소비자도 고령화됨에 따라 식료품, 비주류, 음료, 보건 등과 같이 고령친화산업은 수요가 증가한다. 셋째, 고령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높지 않을 것이므로, 소상공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업종(도소매업, 음식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교육 등)에서 소비여력이 감소된다. 넷째,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화 소비자로 인해, 도심 외곽의 원거리 상권은 쇠퇴하고 근거리 상권이 활성화 된다³⁾.

박주완(2019)⁴⁾ 연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는 주로 대표자 연령, 업력이 증가할수록 창업기에서 쇠퇴기로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 매출액, 순이익과 종업원 수 등은 창업기에서 성숙기까지는 증가하지만 쇠퇴기 이후는 감소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김두순-지은정(2024)⁵⁾ 연구에서는 고령 은퇴자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고용행정DB를 활용하여 숙련의 관점에서 고령자의 이동성과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장기근속의 기업특수적 숙련, 동종 산업근속비중의 산업특수적 숙련, 직업과 근속으로 포착되는 직업특수적 숙련자로 구분하여 생애 주된 일자리 이후의 이동성과를 분석하였다⁵⁾.

3) 남윤형(2019), 「인구구조 변화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4) 박주완(2019),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특성 연구 : 신용보증을 받은 차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정책연구(2019년 겨울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이진국 편(2020) 연구에서는 자영업의 근본적인 4가지 질문에 초점을 두고 계량적인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4가지 주제는 자영업자 비중의 결정요인과 과잉 수준 분석, 생애주기별 자영업 선택과 동기, 한국의 자영업자 수 변화에 대한 요인 분석, 개인사업자 금융지원 정책의 효과 분석 등이다⁶⁾.

정수정(2024)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의 현재 상황,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미래 모습을 예측해 보았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에 전반에 대해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미래에 맞는 개편방안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⁷⁾.

설윤·소병화(2025)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고령화와 금융시장의 상관관계에 대해 실증분석하였다.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5~2022년의 연간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역할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⁸⁾. 이재호·정동재·안병탁(2025) 연구에서는 은퇴자들의 자영업 진출과 운영 현황에 대해 다각도를 분석하고 향후 고령 자영업자 증가를 우려하여 대안으로 재고용, 정년퇴직 연장 등을 제안하였다⁹⁾.

안수지(2025) 연구에서는 자영업 시장의 현황을 지역별·연령별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정책 대응의 차별화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인구 변화, 창·폐업 동향, 업종 구조 재편, 경영 여건 등을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지역과 연령 특성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 설계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한 지역일수록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자영업이 지역 경제의 활력 지표가 아니라 대체 고용 경로이자 생계유지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령대별로도 청년층의 디지털 기반 진입, 중장년층의 경력 활용형 전환, 고령층의 생계형 잔존 등으로 진입 동기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5) 김두순·지은정(2024), 「고령자의 노동이동 : 생애 주된 노동의 활용 관점에서」, 한국고용정보원

6) 이진국 편(2020), 「자영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제언」, 한국개발연구원

7) 정수정(2024),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개편방안 연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8) 설윤·소병화(2025),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중소기업금융연구 제45권 제2호, 신용보증기금

9) 이재호·정동재·안병탁(2025),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

10) 안수지(2025), 「인구구조 변화와 자영업의 지역·연령별 구조 전환 및 대응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2.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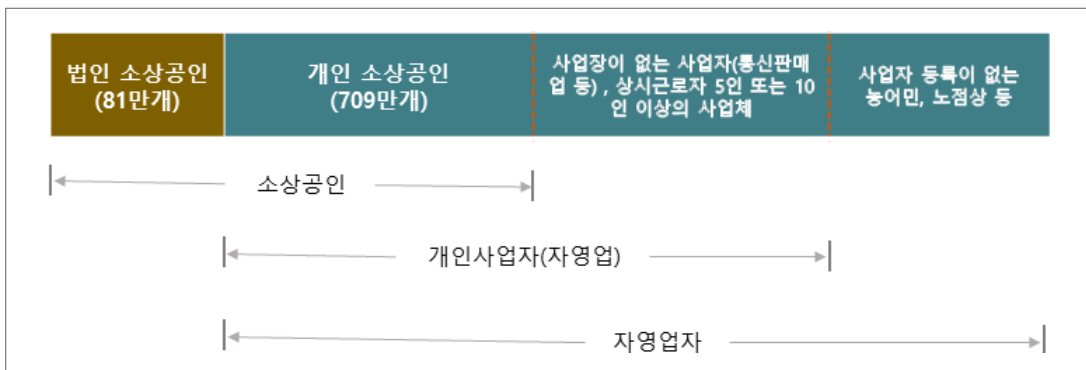
고령 소상공인 현황 파악과 관련된 통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먼저 그 범주를 살펴보기로 한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근로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영세 소기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업체 구분의 관점이다. 이에 반해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가 아니며,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기 혼자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하는 취업자 구분의 관점이다. 소상공인은 자영업자의 한 종류에 해당하며, 모든 자영업자가 소상공인인 것은 아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장 유무 및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또는 업체를 말한다¹¹⁾. 법인 소상공인은 자영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 소상공인이 전체 소상공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2% 수준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다¹²⁾. 자영업자는 개인 소상공인의 규모를 넘어서는 사업체가 있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노점상, 농어민 등 개인이 고용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포함된다. 자영업은 소상공인이며, 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벤처기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이에는 공통적인 부분이 많아서 사실상 같은 범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영업자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상공인으로 구성되므로 일상생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구분해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

개인사업자(자영업)는 주로 국세청 통계 생산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개인 소상공인과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통신판매업 등), 상시근로자 5인 또는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포함하고, 법인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어민, 노점상 등을 제외한다.

[그림 1-1]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개념 비교



11) 강만수(2019), 「상권분석시스템으로 본 서울 영세자영업 통계 및 젠트리피케이션 양상분석과 시사점」, 서울신용보증재단 35p

1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지금까지 논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자영업)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에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 개념 범위를 설정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범주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표 1-1〉 소상공인 등의 비교

구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정의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 기업	근로자 고용 또는 자기 혼자 사업하는 사람	사업등록자 중 개인사업자
현황	사업체 '23년 790만개	자영업자 '24년 565만명	사업자 '24년 883만명
법적근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없음	부가가치세법
통계산출	국가데이터처 경제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조사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조사방법	조사통계(면접조사)	조사통계(면접조사)	행정통계(행정자료)
조사대상	전수조사	표본 추출(3만명 내외)	전수조사
특징	• 사업자 등록증 보유 기업 (개인+법인) • 상시근로자(5~10인) 및 매출 (10~120억) 상한	• 사업자등록증 보유(법인 제외) 또는 무등록사업자 • 사업장 보유 여부, 매출, 상시근로자 규모와 무관	• 사업자 등록증 보유(법인 제외) • 사업장 보유 여부, 매출, 상시근로자 규모와 무관
차이점	법인사업자 포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어민, 노점상 등 포함	근로자가 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포함

제2장

현황 분석



제1절 인구 고령화 추세

1. 전국

우리나라는 2017년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4년말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진행속도가 전례 없이 빠르는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 표에서 보면, 2025년에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20.3%이고 향후 2036년에 30%, 2050년에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¹³⁾.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예상 범위를 뛰어넘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표 2-1〉 노인인구 비중 현황 및 전망

(단위: 천 명, %)

	총인구	65세 이상	비중 ¹⁾	노령화지수 ²⁾
2000	47,008	3,395	7.2	34.3
2010	49,554	5,366	10.8	67.2
2020	51,836	8,152	15.7	129.3
2025	51,685	10,514	20.3	199.9
2030	51,306	12,980	25.3	312.0
2035	50,825	15,208	29.9	406.7
2040	50,059	17,151	34.3	442.2
2050	47,107	18,908	40.1	504.0
2060	42,302	18,682	44.2	636.9
2072	36,222	17,271	47.7	726.8

주: 1) 비중 = {고령인구(65세 이상) ÷ 총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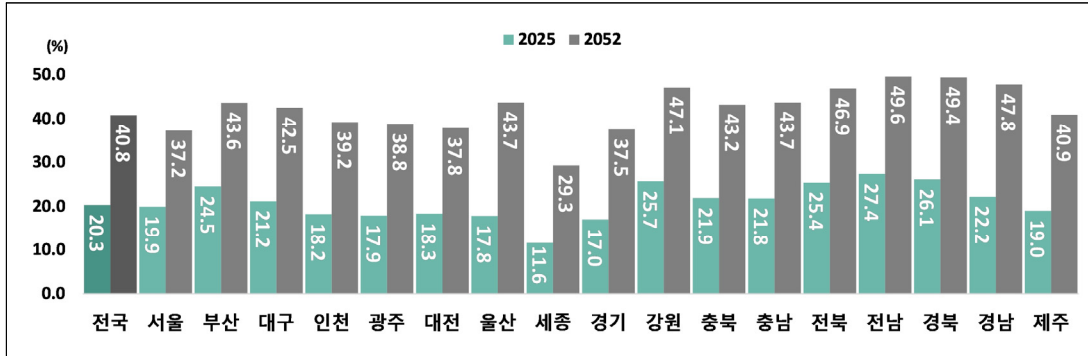
2)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65세 이상) ÷ 유소년인구(0~14세)} × 10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13) 국가데이터처(2025), 「2025 고령자 통계」

지역별로는 광역시에 비해 광역도에서,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러한 격차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1]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 현황 및 전망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편) : 2022 ~ 2052년」

최근 경제위기가 반복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자영업자는 일정수준을 유지하면서 고령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은퇴연령이 짧아지면서 고령층을 위주로 자영업 진입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 단일세대 중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부머 세대(64~74년생, 954만 명)가 2024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순차적으로 법정은퇴연령(60세)에 도달하게 된다. 은퇴자를 위한 상용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 중 상당수는 생계유지를 위해 자영업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는 2015년 142만명에서 2032년에는 248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¹⁴⁾.

[그림 2-2] 고령 자영업자 비중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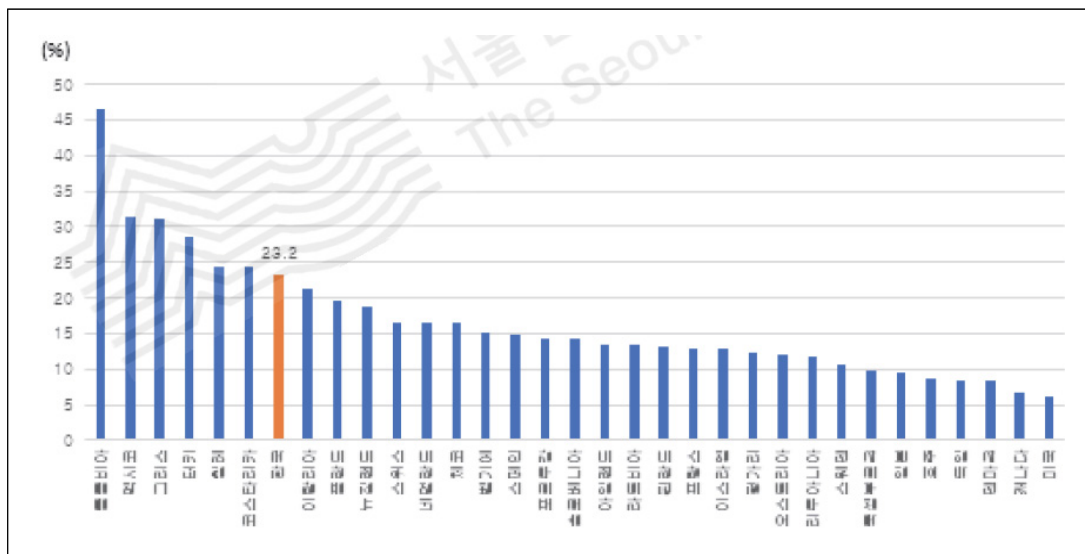
주 : 1) 전체 취업자 수 대비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

2) 전망치는 고용률 등의 지표가 지난 10년간의 추세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여 사산자료 : 한국은행(2025),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BOK 이슈노트

14) 한국은행(2025),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BOK 이슈노트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7년 612만에서 2025년 558만으로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하락추세인 것으로 나타난다. OECD Stat(self-employment rate as % of employment)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은 1991년 39.2%에서 2023년 23.2%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OECD 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아직 높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3] OECD 국가별 자영업 비중(2023년 기준)



자영업 분포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광역시는 청·장년층 자영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유지되거나 일부 성장하는 반면, 비수도권, 특히 도단위 지역에서는 50·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인구당 자영업자 비율은 경북(16.9%), 전남(16.5%) 등 비수도권 도단위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며, 서울(8.5%) 등 수도권·광역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인천시 인구당 자영업자 비율은 9.6%이다¹⁵⁾.

15) 안수지(2025), 「인구구조 변화와 자영업의 지역·연령별 구조 전환 및 대응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2. 인천

인천시 연령대별 인구에서는 50대가 가장 많으나, 연평균 증가율로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다. 인천시 고령자 비중은 2010년 10.7%, 2020년 14.0%, 2024년 17.7%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4년말 기준 인천시 고령 가구는 295,341세대로 전체 가구의 23.6%를 차지한다.

〈표 2-2〉 인천시 고령자 비중 추이

(단위 : 명, %, 천 명)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4년
고령자수(65세 이상)	138,316	178,602	237,805	312,905	411,483	533,369
고령자 비중	5.4%	6.9	8.6	10.7	14.0	17.7
전체 인구	2,545천명	2,600천명	2,758천명	2,925천명	2,942천명	3,021천명

자료 : 채은경(2025), 「인구생활 활력도시 인천 : 초고령사회 대응을 중심으로」, 인천연구원

인천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5년 18.2%에서 2050년 38.5%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 고령가구 비중은 2025년 약 317천 세대 24.9%에서 2050년 709천 세대 48.5%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 지역별로 고령화율을 보면, 강화군, 옹진군, 동구는 이미 고령화율이 25%를 넘고 있다. 도서·농촌 지역인 강화군, 옹진군의 고령화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2-3〉 인천시 군·구별 고령화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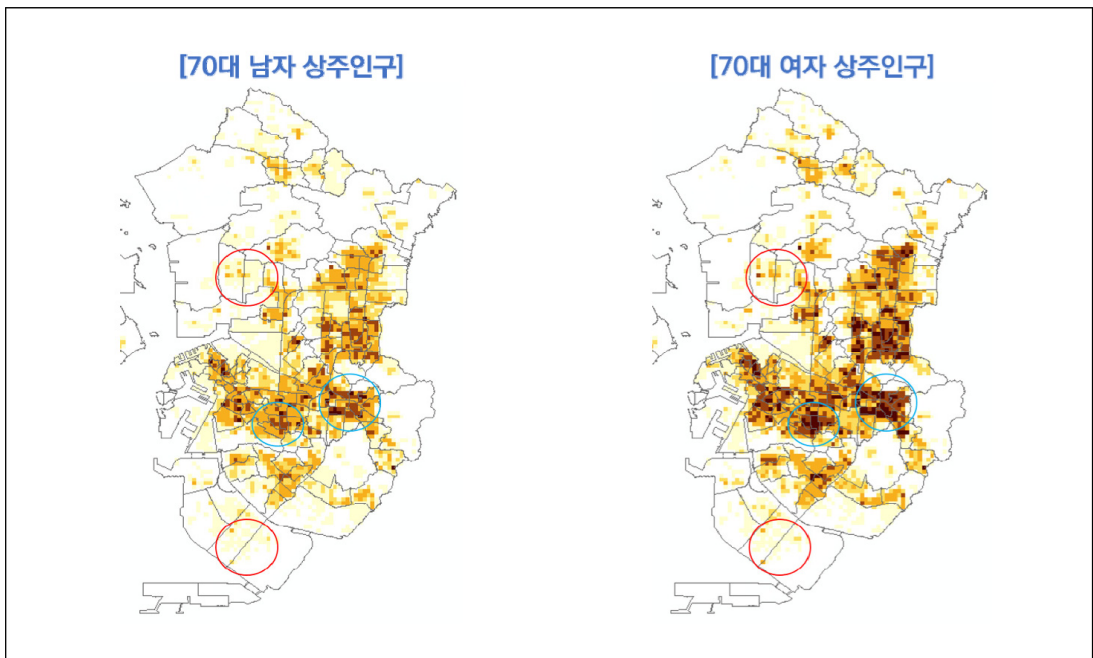
구분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고령화율	40	34	16	28	21	13	20	19	19	14

자료 : 인천도시공사(2025), 「IH 육아친화 및 시니어 특화 주거단지 모델 구상 연구」

인천 지역별 고령화 심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70대 상주인구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2-4]는 원도심 지역에 70대 고령인구가 주로 상주하고 송도, 청라 신도시에는 이들의 비중이 극히 낮은 것을 보여준다¹⁶⁾. 여성 70대 인구는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넓은 범위에 걸쳐 집중 분포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평균 수명 차이로 인한 여성 고령인구의 우세가 반영된 결과이다. 반면, 송도, 청라 등 신도시 지역은 아직 70대 고령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고령 인구 분포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지역별 공간적 차이는 인천시가 향후 생활권 특성과 지역별 인구 구조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16) 채은경(2025), 「인구생활 활력도시 인천 : 초고령사회 대응을 중심으로」, 인천연구원

[그림 2-4] 인천시 70대 상주인구의 지역별 분포



자료 : 조상운(2025), 「인구감소시대의 도시활력, 생활도시 인천 구상」, 인천연구원

제2절 소상공인 고령화 추세

1. 전국

가. 소상공인 기준

먼저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연령별 분포를 통해 고령화 경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용할 수 있는 공공통계는 소상공인실태조사, 중소기업기본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이다. 소상공인실태조사에서는 2023년에 시계열자료의 단절이 일어난 점을 감안해 보더라도 60대 이상 고령 소상공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준다. 다만 소상공인실태조사는 2023년에 물리적 장소, 임금 종사자 없는 개인 부동산 임대업 등이 추가 반영되는 등 조사대상이 확대되어 전년도와 수치를 단순비교하기는 힘들다.

〈표 2-4〉 전국 소상공인 연령별·연도별 추이

(단위 :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100.0	100.0	100.0	100.0
20대 이하	4.6	5.2	5.3	0.8
30대	15.3	16.0	16.5	6.3
40대	28.1	27.9	27.9	19.6
50대	31.3	30.8	30.6	37.2
60대 이상	20.6	20.1	19.8	36.0

자료 : 국가데이터처, 「소상공인실태조사」

중소기업기본통계는 2023년에만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과 따로 구분되고 그 이전에는 구분이 없어서 소상공인만의 연도별, 연령별 추세파악은 불가능하다. 중소기업기본통계는 물리적 사업장 없는 기업과 비활동 기업(매출액=0, 유급종사자=0) 등도 포함하여 다른 기업 및 사업체 통계에 비해서 포괄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업체 수치가 다른 통계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2023년 기준으로 대표자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연령이 많아질수록 비중이 높아져 고령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비중은 연령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여 60대에 정점에 도달하는데, 이는 자영업 진입이 한번 진입하면 계속 유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또 다른 구조적 특징은 고령화라고 할 수 있다.

〈표 2-5〉 소상공인 연령대 비중(2023년)

(단위: 개, %)

구분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연령 미상	계
소상공인	349,272	1,091,360	1,802,991	2,176,484	2,410,891	75,863	7,906,861
비중	4.4	13.8	22.8	27.5	30.4	0.9	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고령 소상공인의 분포를 주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순으로 고령 소상공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 자영업자는 2017년~2025년 동안 음식점 진입이 급증했으나 팬데믹 이후에는 음식점 진입 성장세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중소기업기본통계로는 이를 모두 확인하기는 어렵다. 중소기업기본통계는 2019~2023년 기간에만 생산되고 있어서 최근 통계를 포함하여 어느 업종에 은퇴 고령층이 더 몰렸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통계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2-6〉 전국 연령별 소상공인수(2023년)

(단위: 개)

구분	계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연령 미상
전산업	7,906,861	349,272	1,091,360	1,802,991	2,176,484	2,410,891	75,863
제조업	613,696	11,864	46,772	112,889	186,687	181,446	6,305
건설업	568,013	14,526	49,603	133,555	218,534	150,236	1,559
도매 및 소매업	2,198,812	155,821	425,531	539,562	526,333	436,761	23,246
운수 및 창고업	674,147	14,211	55,067	134,337	195,645	274,175	612
숙박 및 음식점업	893,896	51,490	141,618	189,634	229,537	224,901	9,261
정보통신업	198,332	16,514	42,961	63,212	52,207	22,989	449
부동산업	1,232,980	12,922	49,105	150,718	288,637	717,059	2,35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1,072	13,185	54,505	93,711	84,494	54,260	917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75,694	8,129	30,274	51,205	51,650	33,700	736
교육 서비스업(85)	286,086	11,782	61,066	108,124	73,752	21,979	2,44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61,040	5,417	31,162	39,842	43,112	35,983	2,52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24,589	22,101	69,824	109,317	110,639	89,503	23,205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나. 자영업자 기준

자영업자 기준으로 보면, 60대 이상 고령자의 빠른 증가와 30대, 40대의 감소가 눈에 띈다. 특히 40대 자영업자의 감소 추세가 빠르다. 다른 연령대 비중이 최근으로 올수록 비중이 저하되는 것과 반대로 60세 이상 고령자는 오히려 높아지는 이중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60대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2010년 22.8%에서 2025년 39.1%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2010년 23.4%에서 2025년 19.5%로 지속 감소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연령대별 증감에는 고령 자영업 진입 외에 인구효과(연령효과)도 상당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고령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실제로 그 연령대에 새로 시작하는 자영업자가 많아서인 것도 있지만 나이를 한 살 더 먹어서 이전 연령대에서 다음 연령대로 넘어오는 자영업자가 많아서 발생하는 현상일 수도 있다.

〈표 2-7〉 자영업자 연령대 비중(전국)

(단위 : %)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15-29세	3.3	2.8	3.3	2.4
30-39세	16.0	13.4	12.8	11.4
40-49세	29.0	26.8	22.1	20.1
50-59세	28.3	30.9	28.3	26.8
60세 이상	22.8	26.0	33.3	39.1

주 : 1. 비임금근로부가조사 시점은 매년 8월말 기준

2. 비임금근로부가조사는 2007년 8월부터 파악되고 있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부가조사

고령 자영업자의 증가는 단순한 고령화 사회의 현상이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결함을 보여주는 현실이다. 고용안정성과 노후 준비가 부족한 다수의 중장년층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자영업에 진입하고 있다. 50~60대 퇴직자 중 많은 이들이 자영업 경험 없이 창업을 시도하며, 이들은 보통 음식점, 커피숍, 편의점, 부동산 중개업 등 비교적 진입이 쉬워 보이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다수의 직장인은 정년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연금 수령액은 낮고, 재취업 기회는 협소하다. 이런 구조에서 자영업은 ‘은퇴 후 일자리’로 자연스럽게 인식된다. 하지만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창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의 광역도 지역에서는 고령 자영업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자영업 형태가 확산되는 등 지역과 연령에 따른 구조적 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 개인 사업자 기준

국세청 국세통계를 통해서는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 업종별, 지역별(시도, 시군구), 연령별로 세분하여 추세를 살펴볼 수 있고 최근 월별 자료까지 파악할 수 있다. 위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자영업자수가 정체 또는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나, 국세통계의 개인 사업자 기준으로는 2011년 517.8만명에서 2025년 896.7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복수 사업체 운영 사례가 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통계는 세법상 등록된 사업장 단위로 집계되므로 1인이 여러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면 복수로 계산될 수 있다. 실제 영업하지 않더라도 사업자 등록이 유지되는 휴·폐업자, 비영리법인 등이 국세통계에는 포함될 수 있어 실제 경제활동 인구보다 많게 나타난다.

2. 인천

가. 사업체 추세

전국사업체조사는 2024년까지 통계가 생산되는데 소상공인 구분은 없고 전체 사업자로 집계되고 있어서 엄밀하게 소상공인에 국한하여 통계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인천시 사업자 연령대별 분포와 추세를 살펴보는 데에는 이 자료가 유용할 수 있다. 전체 기업 중 소상공인의 구성 비중이 월등히 높으므로 이 자료로도 대략의 연령별 분포를 추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2024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를 보면, 인천시 60세 이상 사업체수는 전체의 2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오고, 다른 연령대와 달리 매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 확인된다.

〈표 2-8〉 인천시 사업체 연령별·연도별 추이

(단위: 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9세 이하	12,608	14,212	14,660	14,745	14,539
30-39세	43,135	46,023	48,951	50,813	52,615
40-49세	79,229	80,177	82,494	84,547	84,158
50-59세	99,557	98,716	100,112	98,803	97,715
60세 이상	71,579	69,764	70,916	73,389	79,902
계	306,108	308,892	317,133	322,297	328,929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중소기업기본통계로는 시도별, 연령별로 동시에 검색할 수가 없다. 통계 원자료 제공(MDIS)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중소기업기본통계를 통해서는 인천시 연령별 소상공인 분포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인천시 군·구별 분포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나는데, 서구, 남동구, 부평구 순으로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2-9〉 인천시 군·구별 소상공인수(2023년)

(단위: 개, %)

구분	계	중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미추홀구	강화군	옹진군
소상공인	429,753	35,417	12,933	52,936	71,670	63,894	35,139	88,830	53,511	12,761	3,401
비중	100.0	8.2	3.0	12.3	16.7	14.9	8.2	20.7	12.5	3.0	0.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

국가통계포털 상의 경제활동인구조사로도 인천시 연령별 자영업자 수는 알 수 없고 전체 자영업자수만 알 수 있다. 2021년까지는 260 천명 선에서 소폭 변동하다가 2022년부터 매년 증가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전국적으로 자영업자가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추세와는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표 2-10〉 인천시 자영업자 추이

(단위: 천 명)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자영업자	258	260	267	259	264	263	274	291	291	3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나. 연령별 추세

국세통계를 통해 인천시 연령별 개인 사업자수를 보면, 60대, 70대 이상 고령자의 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고,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대조적으로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고령 개인 사업자의 진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표 2-11〉 인천시 개인 사업자의 연령대 추이(국세통계)

(단위: 인원수)

구분	2021년 12월	2022년 12월	2023년 12월	2024년 12월	2025년 12월
30세 미만	22,813	23,564	22,925	21,630	20,440
30대	67,046	73,715	77,018	78,076	78,826
40대	111,937	118,510	120,784	120,979	121,201
50대	136,908	140,987	142,353	142,993	142,524
60대	96,105	103,881	109,442	115,337	119,636
70세 이상	32,070	35,996	39,398	43,867	49,399
미상	302	313	311	303	307
합계	467,181	496,966	512,231	523,185	532,33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월별공개, 14개업대)

인천시의 소상공인에 한정하여 연령별 특성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려면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통계보고서(2021년~2023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2023년까지만 발표되고 있어

서 속보성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다. 이 통계를 보면,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자영업자 수와는 달리 고령층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 연령대가 증가추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3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50대 27.8%, 40대 24.8%, 60대 20.2%, 30대 16.2%, 70대 4.0% 순으로 나타난다. 이 통계는 주로 기업통계등록부(SBR)의 소상공인 범주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를 범주로 한 통계와는 차이를 보인다.

〈표 2-12〉 인천시 소상공인 연령별·연도별 현황

(단위: 개)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293,762	342,051	325,827
20대	14,782	15,468	15,476
30대	44,969	51,967	53,046
40대	72,867	83,829	80,816
50대	86,021	98,532	90,808
60대	56,771	67,973	65,847
70대	10,016	12,864	13,182
기타	8,336	11,418	6,652

자료: 인천광역시, 각년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통계보고서

2023년 기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통계보고서로 볼 때, 인천 소상공인의 60대 이상 고령층은 절대 수치로는 서구,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순으로 많은데, 상대적 비율로는 용진군, 강화군, 동구, 미추홀구 순으로 높게 나온다. 쉽계는 송도, 청라 등 신도시가 위치한 연수구, 서구와 부평구의 고령 소상공인 비율이 낮고, 도서·농어촌 지역인 용진군, 강화군의 고령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인천 지역별 인구 고령화율 차이와도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과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연령 특성의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13〉 인천시 소상공인 지역별·연령별 현황(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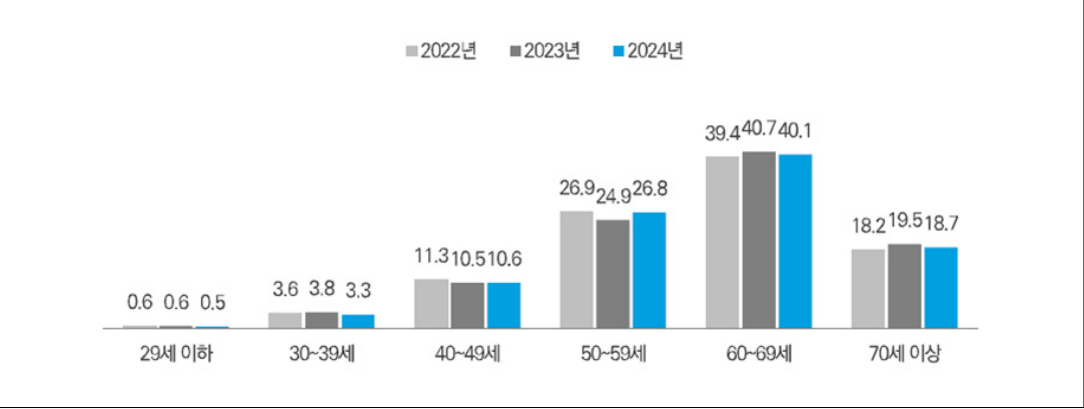
(단위: 개)

구분	강화군	용진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계
계	9,862	2,690	24,591	10,881	41,752	37,427	55,738	48,719	28,161	66,006	325,827
20대	263	58	987	285	1,972	2,094	2,462	2,620	1,401	3,334	15,476
30대	979	210	3,397	939	6,407	7,690	8,444	9,117	4,266	11,597	53,046
40대	1,767	401	5,980	2,274	9,691	10,877	13,732	11,584	6,445	18,065	80,816
50대	2,816	713	7,139	3,544	11,268	9,421	16,228	12,900	8,471	18,308	90,808
60대	2,877	944	5,257	2,812	9,178	5,517	11,671	9,505	6,172	11,914	65,847
70대	825	233	1,261	723	2,110	998	2,213	1,886	908	2,025	13,182
기타	335	131	570	304	1,126	830	988	1,107	498	763	6,652

다. 전통시장

전통시장의 고령화 정도는 일반 상점가보다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는 전통시장에서 오래 운영하던 가게들이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지 못해 경쟁에서 밀리고 있으며, 후계자 부재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도 계속 늘고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2024년 기준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를 보면, 상인들이 60대가 가장 많고 50대, 40대 순으로 나타난다. 전통시장의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5] 전국 전통시장 점포주 연령별 분포 (단위 : %)



전통시장 통계DB에서 인천시 전통시장 점포주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 비해서는 인천 전통시장의 고령화 정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인천에 비해 전국 전통시장의 60대 이상 점포주 비율이 더 높고, 40대 이하의 비율은 더 낮아서 전국 전통시장의 고령화가 더 심각하고, 청년층 비율은 더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4> 인천시 전통시장 점포주 연령별 분포 (단위 : %, 세)

구분	29세 이하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69세	70세 이상	평균 연령
2023년	0.5	5.9	14.1	39.5	30.1	9.8	56.8
2024년	0.4	3.4	11.6	29.3	39.6	15.7	59.9

자료 : 소상공인24, 전통시장 통계DB

제3절

고령 소상공인의 생존율, 폐업률

1.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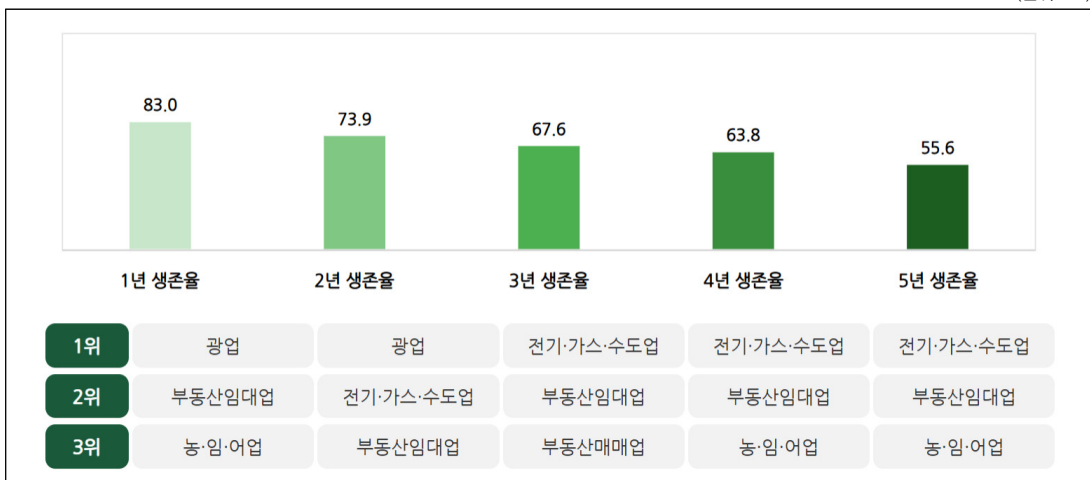
가. 생존율

사업체의 생존율, 폐업률은 기업생멸행정통계, 국세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기업생멸행정통계는 소상공인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소상공인을 식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인가용 자료에는 소상공인 여부 코드가 있는데 인가용은 통계데이터센터에서만 이용 가능해서 불편하다. 따라서 전체 사업체로 넓혀서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파악하기로 한다.

연령별 사업체 생존율은 국세통계포털의 통계로 보는 생존율 코너에서 전국 단위로만 파악이 가능하다. 60세 이상과 60세 미만을 구분해 봤을 때 두 집단간에 사업체의 연도별 생존율에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60세 이상 사업체에서 연도별 생존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2년, 4년, 5년 생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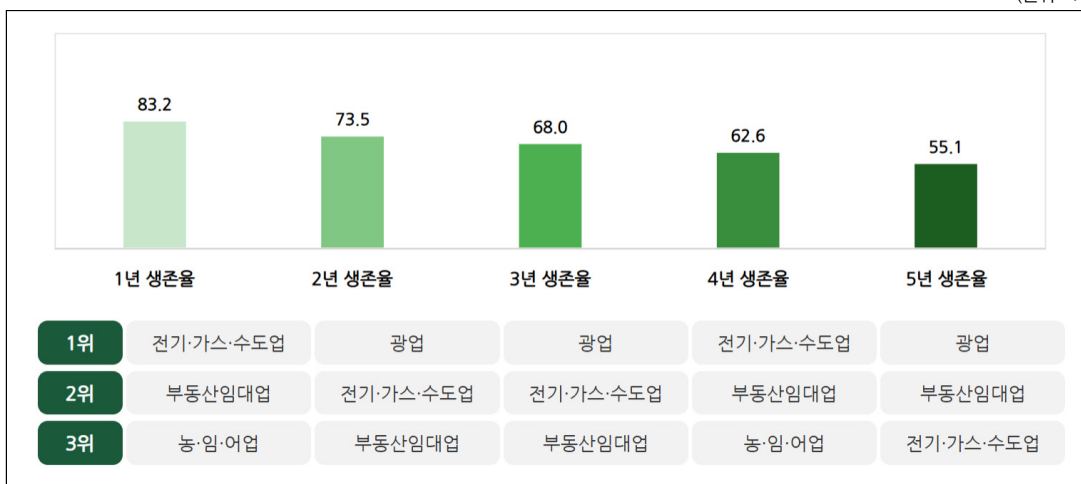
[그림 2-6] 60세 이상 사업체 생존율(2024년)

(단위 : %)



[그림 2-7] 60세 미만 사업체 생존율(2024년)

(단위 : %)



나. 폐업률

근래 들어 전체 개인사업자의 창업률은 떨어지고, 폐업률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연령별 폐업률은 기업생멸행정통계의 소멸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소멸률은 당해연도(t) 활동기업에 대한 소멸기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액과 상용근로자가 없는 상태가 1년 이상인 기업은 경제활동을 중지한 소멸기업으로 분류된다. 소멸기업은 당해연도(t)와 차년도(t+1)의 활동 영리기업DB 비교를 통해 산출된다.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고령자의 소멸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더 높거나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젊은 층에서 소멸률이 확연하게 높게 나타난다. 2023년까지만 발표되고 있어서 최근의 자료는 얻을 수 없지만 이러한 연령별 특성에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적다.

〈표 2-15〉 대표자 연령별 개인사업자 소멸률

(단위 :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0.9	10.7	11.0
30대 미만	20.6	20.7	22.0
30대	14.7	14.9	15.9
40대	10.8	10.9	11.3
50대	9.3	9.2	9.3
60대	9.2	8.9	8.8
70대 이상	11.4	10.3	10.5

자료 : 국가데이터처, 기업생멸행정통계

위와 같은 결과는 연구배경에서 언급한 당초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당초에는 고령 자영업자

의 폐업률은 평균보다 높고, 회복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에 대한 정보, 기술 역량, 고객 관리 능력 등이 부족하여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봤던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연령별로만 구분했을 때는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신문기사에서 주로 우려했던 사항은 고령 은퇴자가 사전 준비도 없이 경쟁이 심한 생계형 서비스업에 진입할 경우 도산 확률이 높아지고 빈곤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전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계형 업종을 포함하여 업종을 구분해서 보거나,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로만 한정해서 본다면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인천

가. 생존율

1) 국세통계포털

국세통계포털 ‘통계로 보는 생존율’ 코너에서는 전체 사업자(14개 업태)와 100대 생활업종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2024년 인천시의 전체 사업자와 100대 생활업종의 1년~5년 생존율의 비율을 알 수 있다. 다만 인천시 사업자의 연령별 생존율은 알 수 없다. 국세통계는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추가적인 분석도 여의치가 않다.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통계보고서에도 생존율 수치가 나오는데, 국세통계와 동일하게 연령별 구분은 없어서 여기서는 언급을 생략하기로 한다.

〈표 2-16〉 인천시 사업체 생존율(2024년)

(단위: %)

구분	1년 생존율	2년 생존율	3년 생존율	4년 생존율	5년 생존율
전체 사업자	77.9	67.3	63.1	56.7	49.4
100대 생활업종	74.8	59.6	49.7	42.5	36.8

주: 2024년 말 시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2) 인천 보증이용기업의 연령별 생존율

① 이용 자료와 분석 방법

연령별 생존분석을 위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6년간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공급 자료를 이용하기로 한다. 전체 빈도수는 104,398개이고 정상 사업체 75,685개, 폐업 28,713개이다. 분석방법은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이다. 생존분석은 어떤 사건(보통 사망을 말함)이 발생할 때까지 걸린 시간(time)을 기초자료(data)로 하여 이를 분석하는 통계적 방법이다.

중도절단은 관찰대상자가 중도 탈락되어 정확한 사망사건을 알 수 없거나 대상자가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 $S(t)$ 는 t 시점까지 사망하지 않고 생존할 확률을 말한다.

② 분석 결과

대표자 연령별 생존율에서는<표 2-17>의 분석 결과와 같이 평균 점수가 20대(-1,564.204), 30대(-739.755), 40대(-162.006), 50대(63.178), 60대(111.833), 70대이상(-409.722)로 연령별 생존율은 60대 > 50대 > 40대 > 70대이상 > 30대 > 20대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당초 인천 고령자의 생존율이 젊은 층 보다 떨어질 것으로 본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이다. 대표자 연령별 생존함수는 [그림 2-8]과 같다.

이러한 결과는 공적 보증에 대한 연령별 인식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채무상환에 대한 의무감 및 보증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연령대가 낮을수록 신규 창업이 많으며 채무상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사회 경험이 짧으며, 제대로 된 경영교육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70대이상의 생존율이 낮은 것은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나이가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정리하는 등 폐업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표 2-17〉 연령별 평균점수(생명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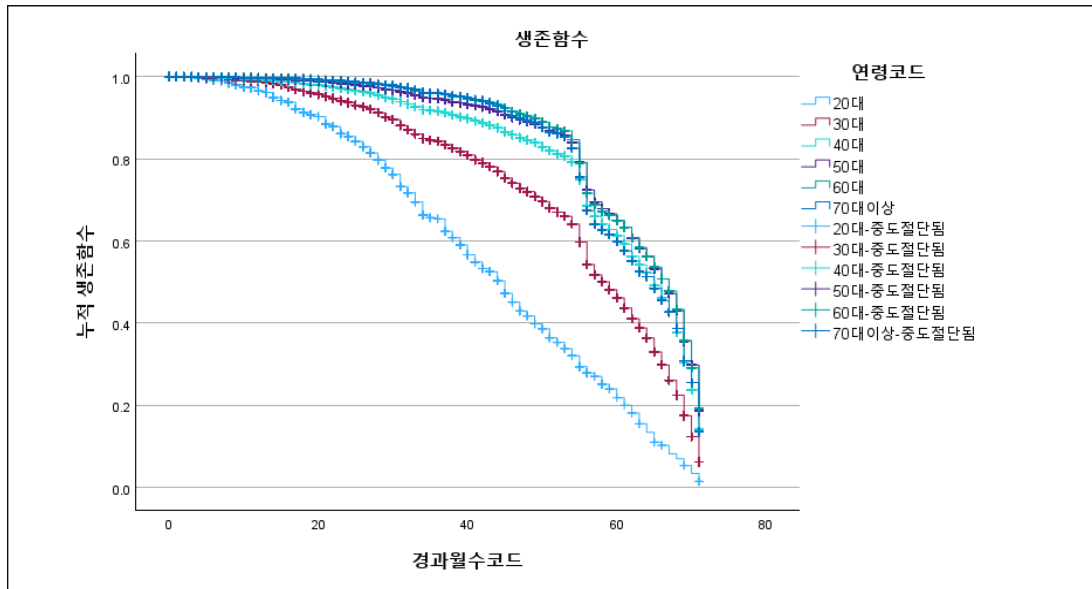
비교집단	합계	중도절단 되지 않음	중도절단	중도절단된 퍼센트	평균점수
20대	1,683	644	1,039	61.7	-1,564.204
30대	14,610	4,927	9,683	66.3	-739.755
40대	26,912	7,449	19,463	72.3	-162.006
50대	30,823	7,697	23,126	75.0	63.178
60대	23,858	6,055	17,803	74.6	111.833
70대이상	6,512	1,951	4,561	70.0	-409.722

〈표 2-18〉 연령별 생존기간에 대한 평균 및 중위수(카플란마이어)

(단위 : 개월)

연령별	평균				중위수			
	추정값	표준 오차	95%신뢰구간		추정값	표준 오차	95%신뢰구간	
			하한	상한			하한	상한
20대	43.783	0.580	42.646	44.919	45.000	0.919	43.199	46.801
30대	54.630	0.167	54.303	54.957	58.000	0.232	57.545	58.455
40대	59.982	0.103	59.780	60.184	65.000	0.196	64.616	65.384
50대	61.803	0.086	61.635	61.971	67.000	0.172	66.663	67.337
60대	62.189	0.091	62.010	62.368	67.000	0.198	66.613	67.387
70대이상	61.322	0.170	60.988	61.656	65.000	0.429	64.160	65.840

[그림 2-8] 연령별 생존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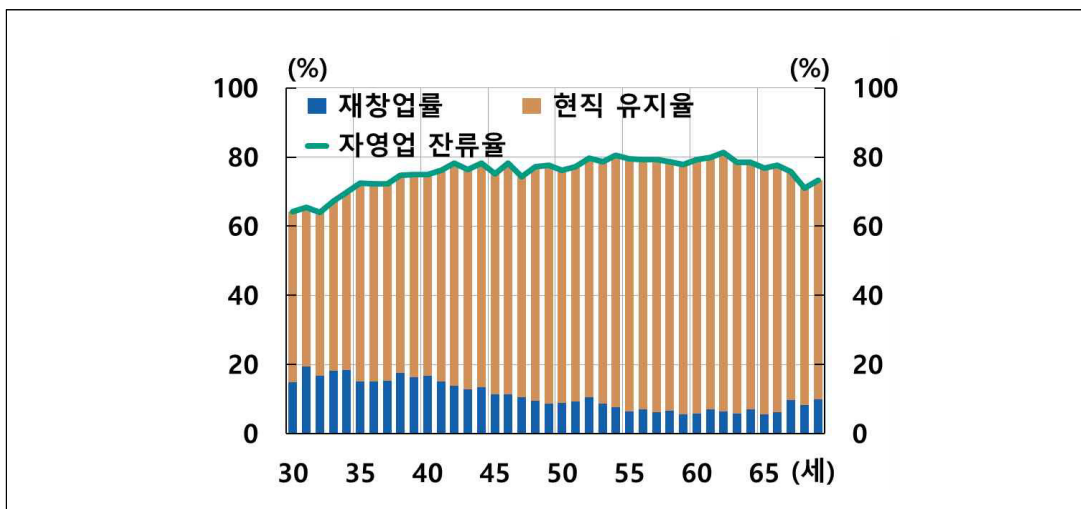
참고로 60대와 70대 고령자로 한정하여 업종별 생존분석을 한 결과는 <표 2-19>의 분석 결과와 같이 60대와 70대의 업종별 평균점수는 제조업(8.626), 건설업(1.177), 운수업(2.908), 도매 및 소매업(-0.750), 서비스업(-4.276), 숙박 및 음식업(-17.536), 기타(377.325)로 나타나고, 업종별 생존율은 제조업 > 운수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서비스업 > 숙박 및 음식업 > 기타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와 70대 고령자는 전체 연령대와 비슷하게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의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9> 고령자의 업종별 평균점수(생명표법)

비교집단	합계	중도절단되지 않음	중도절단	중도절단된 퍼센트	평균점수
제조업	2,130	179	1,951	91.6%	8.626
건설업	1,252	124	1,128	90.1%	1.177
운수업	2,573	250	2,323	90.3%	2.908
도매및소매업	5,098	637	4,461	87.5%	-0.750
서비스업	4,319	611	3,708	85.9%	-4.276
숙박및음식업	4,497	873	3,624	80.6%	-17.536
기타	209	24	185	88.5%	377.325

기존 고령 자영업자들의 생존율이 높은 것은 대다수가 임금직 일자리로 옮기기보다 현직을 유지하는 경향이 큰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다른 대안이 없어서 자영업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고, 다시 재취업하는 것이 쉽지도 않기 때문에 잔류율이 높은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그림 2-9] 연령별 자영업 잔류율 및 현직 유지율



주 : 1) 자영업(상용직) 잔류율은 각 연령대의 자영업자(상용근로자)가 특정 시점으로부터 5년 후에도 자영업(상용근로)에 종사하는 비율

2) 현직 유지율은 자영업 내에서도 재창업하지 않고 동일 직업(상용직의 경우 동일 직업 내 상용근로)을 유지하는 비율

자료 : 이재호·정동재·안병탁(2025),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나. 폐업률

인천시 소상공인의 연령대별 폐업률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통계보고서에 나오는데 2023년까지만 생산되고 있다. 2023년에 폐업률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데, 연령대로 볼 때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젊은 층의 폐업률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고령자의 폐업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

〈표 2-20〉 인천 소상공인 연령별 폐업률

(단위 :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2.2	12.0	14.1
20대	24.7	24.6	26.8
30대	16.6	16.5	19.7
40대	11.7	11.6	14.0
50대	9.9	9.7	11.3
60대	9.5	9.5	10.5
70대	12.3	11.6	12.7
기타	4.2	4.2	6.5

주 : 기타는 19세 이하, 80세 이상, 미상 포함

자료 : 인천광역시, 각년도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통계보고서

연령대별로 폐업 사유를 보면, 전반적으로 사업부진, 양도 양수가 가장 많은데, 고령층에서 양도 양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것이 특징이다.

〈표 2-21〉 인천시 소상공인 폐업사업체 폐업사유(2023년)

(단위 : 개, %)

구분	폐업 사업체수	구성비	폐업사유						
			과세면세 관련 폐업	법인전환 및 법인 해산	사업 부진	양도, 양수	종사업장 폐쇄	행정처분	기타
인천시	53,466	100.0	206	274	29,913	2,108	146	274	20,545
20대	5,653	10.6	21	28	3,165	187	3	32	2,217
30대	13,003	24.3	58	62	7,578	507	30	65	4,703
40대	13,171	24.6	50	78	7,704	549	35	57	4,698
50대	11,520	21.5	46	63	6,393	480	54	60	4,424
60대	7,747	14.5	27	34	4,050	290	18	44	3,284
70대	1,910	3.6		4	843	85		11	960
기타	462	0.9		5	180	10		5	259

주 : 기타는 19세 이하, 80세 이상, 미상 포함

자료 : 인천광역시, 2023년 기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통계보고서

또한 인천시의 연령별 폐업자 분포를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증을 받은 사업체들의 연령별 폐업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용 자료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보증공급을 받은 사업체로서 전체적인 정상-폐업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22〉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수혜기업의 분포

(단위 : 개)

구분	이용기간	정상	폐업	계
업체수	2019~2024	75,685	28,713	104,398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가 폐업비율이 높고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폐업비율이 낮은 편이다. 이는 약간의 비율 차이는 있지만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통계보고서의 결과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23〉 연령별 폐업여부별 교차분석 결과

(단위 : 개)

구분	폐업 여부		소계
	정상	폐업	
20대	953(81.3%)	219(18.7%)	1,172
30대	8,674(83.6%)	1,696(16.4%)	10,370
40대	16,772(87.7%)	2,343(12.3%)	19,115
50대	18,460(87.4%)	2,664(12.6%)	21,124
60대	13,633(86.7%)	2,084(13.3%)	15,717
70대	3,748(85.9%)	614(14.1%)	4,362
전체	62,240(86.6%)	9,620(13.4%)	71,860

제4절

고령 소상공인 대출 성향

1. 전국

가. 대출 비중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5년 12월)’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72조 2,000억 원이다. 이중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은 389조 6,000억 원으로 2021년 말 대비 124조 3,000억 원 증가하였다. 이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분(163조원)의 대부분이 고연령층에 집중되었다. 인구 고령화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본격화 등으로 자영업 창업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대출이 연령대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60대 이상 고연령 자영업자 차주가 전체 차주의 31.2%인 96.3만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36.3%인 389.6조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이후 50대 이하 자영업자 차주는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60대 이상 자영업자 차주의 경우 고령화, 창업 및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인해 차주 수와 대출이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나 전체 자영업자의 차주 수 및 대출 증가를 주도하였다.

업종별 분포를 보면 연령대별로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60대 이상의 경우 부동산업 비중(차주 수 22.9%, 대출금액 38.1%)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높은 반면, 30대 이하의 도소매, 숙박음식 등 경기민감업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모든 연령대에서 은행 대출 비중이 60% 내외를 기록한 가운데 은행을 통한 생애 최초 차입이 많은 30대 이하가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의 경우 높은 연령대일수록 비중도 커지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한편, 2022년 이후 모든 연령대에서 은행 대출 비중은 하락하고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 비중은 상승하였는데, 특히 60대 이상에서 은행 대출 비중 감소폭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대출비중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은행권 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다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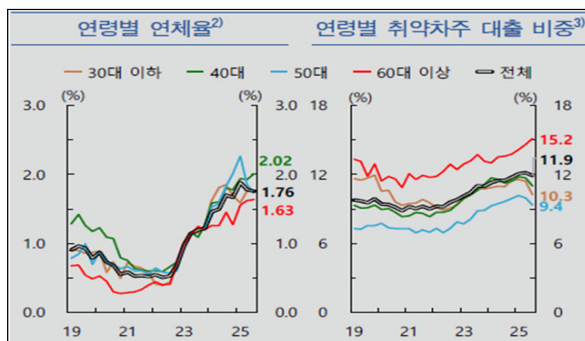
채무자 등 취약 차주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65세 이상 자영업자의 40% 이상이 금융지식 부족으로 자금조달이나 재무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연체율

최근 자영업자 대출은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체율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5년 3/4분기말 1.76%로 2025년 1/4분기말(1.88%) 이후 2분기 연속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장기평균(1.41%)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2025년 3/4분기말 현재 연령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을 살펴보면, 40대의 연체율(2.0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60대 이상(1.63%)은 전체 평균(1.76%)을 소폭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연령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가장 낮지만, 취약차주 대출 비중은 가장 높은 편이다.

[그림 2-10] 연령별 연체율 추이 및 금융채무 불이행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사산(가계부채DB)



자료 : 나이스평가정보

개인사업자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총 16만 6,562명(2025년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전체 차주(332만 8,347명)의 5%에 해당하는 규모다. 자영업자 20명 중 1명은 대출 원리금을 3개월 넘도록 갚지 못했다는 뜻이다. 2020년까지만 해도 금융채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한 개인사업자는 5만 1,045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며 2022년 6만 3,031명에서 2023년 11만 4,856명으로 급증하더니 2025년 16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차주 중 채무 불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20년 말 2%에서 2025년 말 5%로 급등했다.

특히 60대 이상 자영업자 상황이 가장 빠르게 악화했다. 60대 이상인 개인사업자대출 채무 불이행자는 2020년 말 7,191명에서 2025년 말 3만 8,185명으로 5년간 431% 늘어났다. 같은 기간 30대는 172%, 40대는 180.7% 늘었다. 업권별로 나눠 보면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020년 말 6,407명에서 2만 4,833명으로 288% 증가해 가장 빠른 속도로 늘었다¹⁷⁾.

2. 인천

가. KCB 자료 근거

2025년 12월말 기준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이 KCB(코리아크레딧뷰로)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연령별로 다중채무 분포가 다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표 2-24>는 인천 보증이용기업이 5개이상의 금융기관에서 2억 원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사용한 다중채무자 여부별로 구분하여 연령별로 분석한 것이다. 40대와 50대가 각각 2.8%, 2.1%로 높은 편이다. 20대가 0.3%, 70대가 0.5%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연령별로 다중채무자 비율의 큰 차이는 발견할 수 없으며 오히려 고령자의 다중채무자 비중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2-24> 연령별 다중채무 사용여부별 교차분석 결과

(단위: 개)

구분	다중채무자 여부별		소계
	비다중채무자	다중채무자	
20대	1,168(99.7%)	4(0.3%)	1,172
30대	10,215(98.5%)	155(1.5%)	10,370
40대	18,573(97.2%)	542(2.8%)	19,115
50대	20,684(97.9%)	440(2.1%)	21,124
60대	15,556(99.0%)	161(1.0%)	15,717
70대	4,341(99.5%)	21(0.5%)	4,362
전체	70,537(98.2%)	1,323(1.8%)	71,860

주: 다중채무자는 5개이상 금융기관에서 2억 원을 초과하여 대출을 사용한 자를 의미

참고로 거래기업의 연령별 신용등급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보증이용기업의 신용평점의 등급을 900점이상을 1등급, 800점이상을 2등급, 700점이상을 3등급, 600점이상을 4등급, 600점미만을 5등급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1등급은 40대가 30.9%로 가장 높고, 20대가 14.4%로 가장 낮다. 2등급은 20대가 가장 높고 50대가 가장 낮다. 3등급은 20대가 가장 높고 70대가 가장 낮다. 5등급이하의 전체적으로 1%이하로 낮은 편이다. 연령대별 신용등급 분포는 전체 신용등급 분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고령층의 신용등급 분포도 다른 연령대와 비슷하고 고령층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현상 등은 찾아볼 수 없다.

17) 이재호·정동재·안병탁(2025),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표 2-25〉 연령별 신용평점 등급별 교차분석 결과

(단위 : 개)

구분	신용등급					소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대	243 (14.7%)	886 (53.7%)	452 (27.4%)	65 (3.9%)	3 (0.2%)	1,649
30대	3,497 (25.5%)	6,328 (46.1%)	3,095 (22.6%)	718 (5.2%)	81 (0.6%)	13,719
40대	8,316 (34.2%)	9,437 (38.8%)	5,118 (21.0%)	1,282 (5.3%)	170 (0.7%)	24,323
50대	8,870 (33.1%)	10,625 (39.7%)	5,612 (20.9%)	1,468 (5.5%)	221 (0.8%)	26,796
60대	6,588 (32.5%)	8,260 (40.8%)	4,152 (20.5%)	1,079 (5.3%)	169 (0.8%)	20,248
70대	1,780 (31.7%)	2,455 (43.7%)	1,115 (19.8%)	219 (3.9%)	49 (0.9%)	5,618
전체	29,294 (171.7%)	37,991 (41.1%)	9,544 (21.2%)	4,831 (5.2%)	693 (0.8%)	92,353

주 : 1. 기업은행와 위탁보증과 관련하여 등급이 없는 기업이 12,045개이며 이를 포함할 경우 104,398개 기업임

2. 괄호는 비율

나. 설문조사 근거

‘2025 인천시 소상공인 생활백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천의 소상공인에서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대출총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이 높을수록 업력이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래 영업기간 동안 부채가 누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26〉 운영 관련 대출 총액

(단위 : %, 만 원)

구분	사례수	1,0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평균(만 원)
20대	33	0.0	39.4	27.3	12.1	21.2	4,897.0
30대	119	5.9	28.6	28.6	21.8	15.1	6,748.3
40대	234	3.8	26.5	27.8	22.6	19.2	8,325.0
50대	302	3.0	23.8	27.2	22.2	23.8	8,545.9
60대 이상	316	3.2	25.0	23.4	23.4	25.0	9,387.8

대출 유형별로 보면, 대부분 은행권 이용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가운데 대략 연령이 올라갈수록 은행권 이용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고령자의 제2금융권 이용비율이 높다고는 볼 수 없다.

〈표 2-27〉 운영 관련 대출 유형별 비율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은행권	저축은행	여신	가족, 지인	기타 기관
20대	33	77.3	0.9	10.6	0.0	11.2
30대	119	82.2	2.7	3.4	4.3	7.4
40대	234	82.7	2.1	3.9	2.9	8.4
50대	302	80.7	2.2	5.6	2.2	9.4
60대 이상	316	86.0	2.4	4.6	1.1	5.8

자영업자는 법인 명의로 대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등을 담보로 개인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아서 가계 대출도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자영업자의 대출 특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생략하기로 한다.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라는 특성상 기업채무와 가계채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대출은 가계의 부채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사업규모가 작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산과 가계자산,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 혼재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지만, 자본의 출자와 운용, 사업 운영형태, 종업원의 수와 구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의 영역과 연관이 되어 있다.

제5절 영업 현황 및 실적

1. 고령 소상공인 영업 현황

가. 전국

소상공인 연령별로 영업현황, 디지털 전환, 교육수료 유무, 위험준비 및 미래대비 현황 등을 소상공인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창업준비기간은 젊은 층과 고령층이 중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창업교육을 받은 경험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창업준비가 부실할 수 있다는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자영업자 가운데 창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는 비율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전자상거래 실적이 있다는 비율도 가장 낮아 디지털 전환에서 크게 뒤처져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고령 자영업자 다수는 디지털 기술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배달 앱, 키오스크 활용, 온라인 마케팅, SNS 운영 등 현대 자영업의 필수 역량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시장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서비스 품질이나 고객 관리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이 된다.

월 영업일수는 연령과 관계없이 대부분 24일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서 임금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길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그리고 고령자로 갈수록 당연히 업력이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8〉 소상공인 연령별 영업현황(2023년)

(단위: 년, %, 일, %, 년)

구분	창업준비기간	창업교육경험 있음	전자상거래 실적 있음	월 영업일수	업력(운영기간)
20대 이하	0.59	37.7	17.0	24.3	3.94
30대	0.63	32.2	18.6	24.0	4.62
40대	0.78	31.3	13.2	23.8	7.12
50대	0.78	30.7	6.2	23.8	10.64
60대 이상	0.63	22.8	7.7	24.0	16.25
전체	0.73	29.8	10.5	23.8	11.34

주: 업력은 연말에 창업 또는 인수한 것으로 전제하여 2023년을 기준으로 계산

자료: 통계청, 2023 소상공인실태조사

2023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 자영업자의 70% 이상이 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온라인 마케팅이나 전자상거래 활용률은 15%에 불과하다. 실제로 고령층이 주도하는 음식·주점업 등의 디지털 도입률은 20~30대(40% 전후)에 비해 현저히 낮은 8.1%(60대 기준)에 불과해 배달앱이나 키오스크 활용 등 비대면 소비 트렌드 변화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⁸⁾. 연령대, 사업장 점유 형태, 사업전환계획 교차분석은 아래 표와 같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사업자 소유 비중은 높아지고, 사업전환 계획에서 '폐업 및 은퇴' 선택비율이 높아진다.

〈표 2-29〉 소상공인 연령별 사업장 점유형태(2023년)

구분		사업장 점유 형태		전체
		소유(자가)	임차	
연령대	10	2	3	5
	20	28	166	194
	30	458	1,763	2,221
	40	2,350	6,169	8,519
	50	5,229	10,913	16,142
	60	4,198	6,320	10,518
	70	1,061	1,054	2,115
	80	165	115	280
	90	6	0	6
전체		13,497	26,503	40,000

〈표 2-30〉 소상공인 연령별 사업전환 운영계획(2023년)

		사업전환계획				전체
		1	2	3	4	
연령대	10	4	1	0	0	5
	20	189	1	4	0	194
	30	2,120	42	47	12	2,221
	40	8,131	178	137	73	8,519
	50	15,307	299	211	325	16,142
	60	9,765	114	128	511	10,518
	70	1,836	9	11	259	2,115
	80	209	1	0	70	280
	90	4	0	0	2	6
전체		37,565	645	538	1,252	40,000

주) 1. 계속운영, 2. 사업전환(업종전환, 재창업), 3. 폐업 후 임금근로자 희망, 4. 폐업 및 은퇴(일 안 함)

18) 안수지(2025), 「인구구조 변화와 자영업의 지역·연령별 구조 전환 및 대응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나. 인천

인천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영업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원자료는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다. 인천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전국 소상공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창업교육경험 있음’비율은 고령자가 최저로 나오고, 창업준비기간, 전자상거래 실적 있음 비율 등도 최저로 나타난다. 월 영업일수, 업력 등은 전국의 경우와 유사한 연령별 분포를 보인다.

〈표 2-31〉 인천시 소상공인 연령별 영업현황(2023년)

(단위 : 년, %, 일, 년)

구분	창업준비기간	창업교육경험 있음	전자상거래 실적 있음	월 영업일수	업력(운영기간)
전체	0.49	21.1	7.9	23.5	12.03
20대 이하	0.71	28.5	20.0	25.8	3.00
30대	0.45	19.0	9.2	23.7	4.50
40대	0.50	21.9	12.3	23.2	7.07
50대	0.54	23.1	8.2	23.2	11.05
60대 이상	0.40	17.7	4.9	23.9	16.85

주 : 업력은 연말에 창업 또는 인수한 것으로 전제하여 2023년을 기준으로 계산

자료 : 인천광역시, 2023 소상공인실태조사

2023년 기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통계보고서에 의해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업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프랜차이즈 가입은 현저하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32〉 인천시 소상공인 연령별 특성(2023년)

(단위 : 개, %, 년, %)

구분	사업체 수	구 성 비	평균 영업기간	프랜차이즈 가맹점 구성비
계	325,827	100.0	7.5	100.0
20대	15,476	4.7	1.8	8.0
30대	53,046	16.3	3	22.3
40대	80,816	24.8	5	29.0
50대	90,808	27.9	8.3	27.1
60대	65,847	20.2	12	11.7
70대	13,182	4.0	16.1	1.4
기타	6,652	2.0	13.2	0.5

주 : 기타는 19세 이하, 80세 이상, 미상 포함

자료 : 2023년 기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통계보고서

2. 고령 소상공인 영업 실적

가. 전국

박주완·배진성·윤희준(2019) 연구에서는 대표자 연령, 업력이 증가할수록 창업기에서 쇠퇴기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매출액, 순이익과 종업원 수 등은 창업기에서 성숙기까지는 증가하지만 쇠퇴기 이후는 감소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⁹⁾. 하지만 소상공인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연령별로 영업실적을 살펴본 결과는 과도한 경쟁,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해 고령 소상공인들이 매출, 영업이익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고령자와 50대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생계형 업종 등 특정 업종으로 좁혀서 살펴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나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 경향은 없다. 안수지(2025)에서는 음식주점업, 소매업에서는 고령자의 매출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다²⁰⁾. 다만 60대 이상 고령자에서 부채 규모는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모습을 보인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부채 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표 2-33〉 전국 소상공인 연령별 경영실적(2023년)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사례수	기업체당 종사자수	기업체당 매출액	기업체당 영업이익	기업체당 부채
20대 이하	199	1.62	157.55	22.91	103.73
30대	2,221	1.64	206.89	25.21	166.33
40대	8,519	1.77	222.95	27.13	210.41
50대	16,142	1.93	271.17	32.26	250.36
60대 이상	12,919	1.91	268.18	30.25	270.09
전체	40,000	1.87	256.44	30.08	242.46

자료: 통계청, 2023 소상공인실태조사

나. 인천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되 인천시 소상공인만 자료를 선별하여 연령별로 매출액, 영업이익 등 영업실적 측면이 다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대상을 인천시 소상공인으로 좁혀서 살펴봐도 결과는 전국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다만 다른 연령대에서는 전국보다 인천시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이 더 큰 것으로 나오는데 비해 60대 이상 고령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전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국의 수치와 비교해 봤을 때, 인천시가 기업체당 매출액, 영업이익 크기는 더 크고, 부채 규모 또한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19) 박주완·배진성·윤희준(2019),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특성 연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 안수지(2025), 인구구조 변화와 자영업의 지역·연령별 구조 전환 및 대응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표 2-34〉 인천시 소상공인 연령별 경영실적(2023년)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사례수	기업체당 종사자수	기업체당 매출액	기업체당 영업이익	기업체당 부채
20대 이하	10	1.70	127.30	19.70	213.80
30대	141	1.81	271.94	31.41	232.37
40대	444	1.84	247.48	35.93	235.73
50대	835	2.06	377.06	40.34	291.90
60대 이상	861	1.93	296.94	29.49	327.88
전체	2,291	1.95	314.28	34.77	290.92

자료: 통계청, 2023 소상공인실태조사

한편 2023년 기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통계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층에서 사업체당 매출액이 특별히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젊은 층에서 매출액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35〉 인천시 소상공인 대표자 연령별 현황(2023년)

(단위: 개, 억 원)

구분	사업체 수	구 성 비	매출액	평균 매출액
계	325,827	100.0	680,640	2.1
20대	15,476	4.7	20,338	1.3
30대	53,046	16.3	87,571	1.7
40대	80,816	24.8	184,538	2.3
50대	90,808	27.9	220,281	2.4
60대	65,847	20.2	137,222	2.1
70대	13,182	4.0	21,418	1.6
기타	6,652	2.0	9,273	1.4

주: 기타는 19세 이하, 80세 이상, 미상 포함

자료: 인천광역시, 2023년 기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통계보고서

또한 '2025 인천시 소상공인 생활백서'를 통해 연령별로 영업이익, 부채, 영업기간, 보증서비스 이용 여부, 대표자 성별 등을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다. 연도별로는 30대와 60대 이상에서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경향, 부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늘어나는 경향 등이 확인된다. 영업기간이 오래되면서 부채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은행권의 이용비율이 높아지는 경향도 나타난다.

〈표 2-36〉 사업체당 영업이익

(단위: 만 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대	4,032.4	5,243.6	5,631.1
30대	7,551.3	6,287.4	5,925.6
40대	6,190.9	5,216.7	5,298.1
50대	6,985.0	7,059.4	6,468.4
60대 이상	5,369.5	5,397.2	4,981.8

자료: 인천신용보증재단(2025), 「2025 인천시 소상공인 생활백서」

제6절

인천 소상공인 신용보증 이용 현황

1. 보증 이용 현황

가. 신청, 인지

2025 인천시 소상공인 생활백서에 의하면, 고령 소상공인에서 보증을 신청하지 않은 비율이 높고, 그에 따라 보증지원을 받은 비율도 떨어지고 있다.

〈표 2-37〉 신용보증 지원 신청 및 지원 여부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지원 받음	신청하지 않음	신청했으나 지원받지 못함
20대	89	33.7	58.4	7.9
30대	278	36.0	56.5	7.6
40대	475	35.8	55.8	8.4
50대	698	31.5	57.6	10.9
60대 이상	960	24.0	69.3	6.8

자료 : 인천신용보증재단(2025), 「2025 인천시 소상공인 생활백서」

보증 이용 집단과 비이용 집단으로 구분해 봤을 때, 비이용 집단에서 고령자의 비중이 확연히 올라간다. 샘플수가 고령자가 많아서 비율이 올라가는 면도 있지만 60세 이상에서만 샘플 비중보다 보증 비이용 비중이 높은 것을 볼 때 고령자가 다른 집단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대출이용 현황에서도 알려진 바와 같이 고령층에서 대출 비율이 적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보증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 비율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표 2-38〉 연령별 보증 서비스 이용 여부

(단위 : %)

구분	사례수(명)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평균(세)
이용	750	4.0	13.3	22.7	29.3	30.7	51.75
비이용	1,750	3.4	10.2	17.4	27.3	41.7	55.03
전체	2,500	3.6	11.1	19.0	27.9	38.4	54.05

자료 : 인천신용보증재단(2025), 「2025 인천시 소상공인 생활백서(기초통계분석보고서)」

또한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시행한 ‘2025년 특례보증 모니터링 조사’에 따르면, 30대 이하가 보증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해 모르고 있는 비율이 높고 이에 반해 60대에서는 알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반복적으로 보증을 받는 경우가 많고 오랫동안 보증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교육 컨설팅 프로그램 인지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39〉 연령대와 교육인지 교차표

구분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인지		전체
		알고 있음	모르고 있음	
연령대	20대 이하	6	13	19
	30대	39	55	94
	40대	83	65	148
	50대	111	68	179
	60대	91	50	141
	70대 이상	13	8	21
전체		343	259	602

주 : 질문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자료 : 인천신용보증재단(2025), 「2025년 특례보증 모니터링 조사」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이용경험 유무에 관계 없이 향후 무료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이용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연령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40〉 연령대와 교육프로그램 이용의향 교차표

구분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이용 계획				전체
		1	2	3	4	
연령대	20대 이하	1	1	11	6	19
	30대	11	2	59	21	93
	40대	24	3	93	25	145
	50대	31	9	109	29	178
	60대	33	7	82	19	141
	70대 이상	4	2	11	4	21
전체		104	24	365	104	597

주 : 이용계획의 번호는 ① 이용경험 있으며, 향후 이용계획 있음 ② 이용경험 있으며, 향후 이용계획 없음 ③ 이용경험 없으며, 향후 이용계획 있음 ④ 이용경험 없으며, 향후 이용계획 없음

자료 : 인천신용보증재단(2025), 「2025년 특례보증 모니터링 조사」

비대면 심사를 이용할 의향에 대해서는 연령대에 관계 없이 비대면 심사를 이용할 계획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60대 이상도 다르지 않아 비대면 심사가 점차적으로 대세가 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41〉 연령대와 비대면 신청 이용의향 교차표

구분		비대면 신청 이용 의향			전체
		1	2	3	
연령대	20대 이하	17	2	0	19
	30대	81	8	3	92
	40대	131	7	4	142
	50대	151	25	1	177
	60대	109	26	5	140
	70대 이상	14	7	0	21
전체		503	75	13	591

주 : 이용계획의 번호는 ① 이용할 생각이 있음 ② 현재는 생각이 없으나 고려해 보겠음 ③ 이용할 생각이 없음

자료 : 인천신용보증재단(2025), 「2025년 특례보증 모니터링 조사」

나. 지원 실적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통계보고서에 의하면 보증지원 사업체수를 인천 지역별로 알 수 있다.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이 보증 수혜 사업체도 많고 이것은 매년 큰 변화가 없다.

〈표 2-42〉 인천시 소상공인 지역별 신용보증 융자지원 사업체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22,660	25,552	18,010
강화군	346	525	388
옹진군	247	170	144
중구	1,718	1,740	1,344
동구	832	751	615
미추홀구	3,042	3,822	2,706
연수구	2,465	2,957	2,109
남동구	4,265	4,543	3,069
부평구	3,374	3,778	2,269
계양구	1,985	2,255	1,469
서구	4,026	5,011	3,897

자료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통계보고서

보증을 받은 사업체는 업종별로 보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나고, 소상공인수 대비 지원 보증수혜비율을 보면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이 높게 나온다.

〈표 2-43〉 인천시 소상공인 업종별 신용보증 수혜비율(2023년)

구분	소상공인수(A)	신용보증 사업체(B)	보증수혜비율(B/A)
인천시	325,827	18,010	5.5
제조업	29,403	388	3.9
건설업	28,653	144	3.8
도매 및 소매업	97,481	1,344	5.0
운수 및 창고업	42,048	615	3.6
숙박·음식점업	41,728	2,706	11.1
교육서비스업	12,657	2,109	8.7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1,025	3,069	7.5

주 : 보증수혜비율 : 신용보증 융자지원 ÷ 소상공인수

자료 : 인천광역시(2025), 「2023년 기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통계보고서」

2. 신용보증재단 통계분석시스템²¹⁾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통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2025년까지 보증실적을 지역별, 연령별, 업종별로 모두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보증 실행, 공급, 회수후 보증 등 분석기준이 여러 개 있어서 이것을 먼저 정해주는 것이 먼저다.

먼저 보증실행건수를 보면, 최근 연도에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20대 이하를 제외한 전연령층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고령층에서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보증 신청과 지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44〉 인천시 소상공인 연령별 보증실행건수(신규보증)

(단위 : 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대 이하	1,611	1,394	1,346
30대	5,163	4,798	5,490
40대	6,520	6,249	7,561
50대	5,173	5,117	6,598
60대	2,584	2,694	3,459
70대 이상	373	371	607
계	21,414	20,623	25,061

21)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신용보증 자료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려는 차원에서 신용보증재단 통계분석시스템을 이용하여 경향을 살펴보았다.

2025년 기준으로 군·구별, 연령별로 보증잔액 규모를 보면, 고령자의 보증잔액이 많은 곳은 남동구, 서구, 미추홀구, 부평구 순으로 나타난다. 이 지역이 소상공인 수가 많다보니 보증 잔액도 많게 나타난다.

〈표 2-45〉 군·구별·연령별 보증잔액금액(2025년)

(단위 : 백만 원)

구분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20대 이하	1,484.84	298.29	7,136.24	1,886.12	13,730.52	14264.33	16,399.25	15,055.88	6,859.55	21,483.01
30대	5,937.15	1,592.05	29,706.17	7,051.87	55,489.56	63218.50	69,912.23	59,296.31	28,757.03	98,706.611
40대	10,952.64	2,823.73	47,432.47	19,503.69	80,640.98	83249.17	104,071.6	82,480.06	43,111.93	145,560.39
50대	13,682.93	4,771.10	42,583.56	22,714.98	74,134.56	59,013.93	101,652.9	79,379.51	50,080.83	114,493.96
60대	9,456.57	4,385.55	21,837.64	12,897.26	39,848.40	23,048.79	45,905.62	36,973.74	23,694.31	45,707.04
70대 이상	1,543.15	879.16	3,618.39	1,951.439	6,370.75	3,052.47	6,178.99	5,506.02	2,403.81	6,748.37
계	43,057.32	14,749.90	152,314.50	66,005.38	270,214.80	245,847.21	344,120.73	278,691.55	154,907.48	432,699.41

최근 신용보증에서 비대면 보증이 증가하고 있는데 연령대별로는 이용비율에 차이가 있는지, 고령자의 이용비율이 낮은지를 살펴보았다. 〈표 2-4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25년에 비대면 보증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60대 이상 고령 소상공인도 다르지 않다. 다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이용자수가 적은 것이 여기서도 확인된다.

참고로 비대면 이용에는 비대면(플랫폼), 비대면(직접), 비대면(자동)이 있다. 비대면 보증은 통상 전용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다. 비대면(직접), 비대면(자동)은 보증 디지털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을 당시 시중은행 인터넷 뱅킹 앱을 이용하여 보증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보증담당 직원의 수기 심사 여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는 비대면(직접), 심사 없이 자동으로 대출로 연결되는 비대면(자동)으로 구분된다.

〈표 2-46〉 인천시 소상공인 연령별 비대면 이용건수

(단위 : 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대 이하	242	366	1,072
30대	1,013	1,205	4,355
40대	1,224	1,580	6,048
50대	603	695	4,499
60대	201	461	1,968
70대 이상	21	20	267
계	3,304	4,327	18,209

전체 신규보증건수에서 비대면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비대면 이용 비율이 증가하면서 2025년에 현저하게 높아졌으며, 당초 예상대로 젊은 층의 이용 비율이 매우 높고 고령층으로 갈수록 이용비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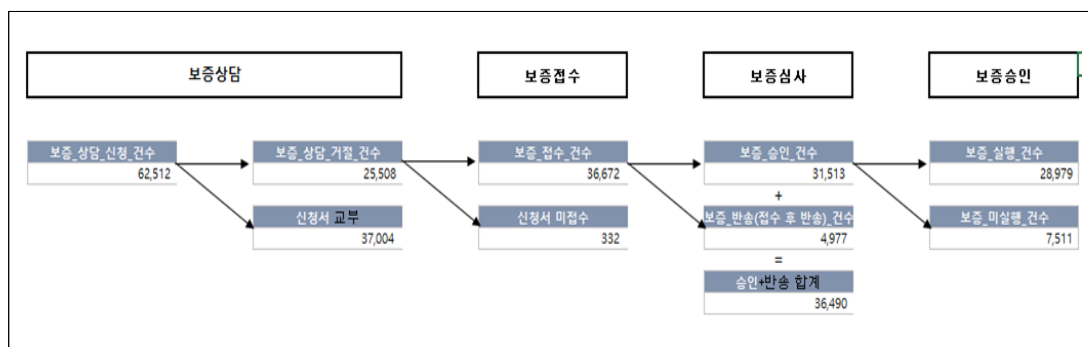
〈표 2-47〉 전체 신규보증건수 대비 비대면 건수 비중

(단위 :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대 이하	15.0	26.3	79.6
30대	19.6	25.1	79.3
40대	18.8	25.3	80.0
50대	11.7	13.6	68.2
60대	7.8	17.1	56.9
70대 이상	5.6	5.4	44.0
계	15.4	21.0	72.7

다음으로는 연령대 별로 보증신청 대비 승인 과정에서 결과의 차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신용보증재단 통계정보시스템에서는 연령별 기준으로는 신청실적, 승인실적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업력을 연령의 대리변수로 사용하기로 한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업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들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대리변수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025년의 보증 심사 단계별 집행실적은 [그림 2-11]과 같다.

[그림 2-11] 심사과정 및 2025년 실적



업력별 각 보증단계별 지표를 보면 고령층이라고 해서 거절, 접수 대비 승인 비율이 떨어진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게 때문에 연령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증접수가 되면 대부분 보증 승인이 되고 있어서 업력이 오래된 경우에도 특별히 거절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 2-48〉 2025년 보증심사 단계별 실적

업력	보증상담 거절건수	보증상담 신청건수	보증접수건수	보증승인건수	보증실행건수
3개월이하	0	492	500	497	497
6개월이하	0	902	908	903	906
1년이하	0	2,115	2,136	2,139	2,147
2년이하	1	4,283	4,320	4,309	4,333
3년이하	0	3,220	3,250	3,246	3,237
4년이하	0	2,628	2,674	2,672	2,666
5년이하	0	2,355	2,394	2,377	2,371
6년이하	0	2,227	2,270	2,251	2,243
7년이하	0	1,757	1,791	1,792	1,802
10년이하	0	3,995	4,070	4,051	4,045
15년이하	0	3,672	3,757	3,749	3,736
20년이하	0	1,782	1,830	1,822	1,811
20년초과	0	1,582	1,636	1,632	1,631

제3장

이슈별 분석



제1절 고령화와 생존율

1. 분석 자료 및 방법

가. 분석 자료

인천신용보증재단 거래기업의 신용보증이용 소상공인의 연령별 실증분석을 위해서 총 3가지 자료를 사용하였다. 첫번째 자료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보증공급을 받은 137,703개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두번째 자료는 2025년 12월말 기준으로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KCB(코리아크레딧뷰로)로부터 받은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정상기업은 62,241개 기업이고 폐업기업은 9,620개 총 71,861개 기업이었다. 세번째 자료는 한국신용데이터로부터 받은 2025년 12월말 기준 48,559개 기업이다.

〈표 3-1〉 생존분석 자료유형

분석 유형	분석 내용
전체기업	① 인천신용보증재단 2019~2024년 데이터의 모집단 104,398개 자료 ② '25.12월말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KCB로부터 받은 71,861개 자료 ③ 한국신용데이터로부터 받은 '25.12월말 기준 48,559개 자료
업종별	업종을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로 구분하여 분석
다중채무유형별	KCB로부터 받은 자료를 사용하여 5개 금융기관에서 총대출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한경우와 초과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
대출금증가율별	KCB로부터 받은 자료를 사용하여 대출금 증가율이 1년전 대비 100% 이내 증가와 100% 초과 증가로 구분하여 분석
대표자 연령별	대표자 연령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으로 구분하여 분석

나. 분석 방법

실증분석은 생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생존분석에 사용한 중도절단 자료는 사고유보정상화, 구상권 완제, 보증업체, 사고정상화, 전액해지, 특수채권 완제 등 폐업하지 않는 업체로 정의하며, 사건발생은 폐업업체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고유보 정상화, 구상권 완제, 사고정상화는 중도절단 자료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생존분석의 정의와는 상충될 수 있으나 기업에 대한 생존분석 특성상 기업의 최종상태만을 가지고 처리하였다. 생존시간에 관한 데이터를 이용 분석하는 통계적인 방법인 생존분석방법을 이용하였으며, 통계분석 패키지인 SPSS의 생명표법과 Kaplan-Meier method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카플란마이어분석은 생존분석 기법의 하나로 비모수적 모형을 이용하여 생존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비모수적 모형은 생존시간이 특정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한 집단의 생존시간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표본의 크기에 관계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분석에 관한 연구에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분석에서 시간간격 표시는 '월' 단위로 절단해 주었고 증가폭을 12개월 단위로 고정하여 주었다.

2. 생존분석 결과

가. 연령별 업종별 생존분석

1)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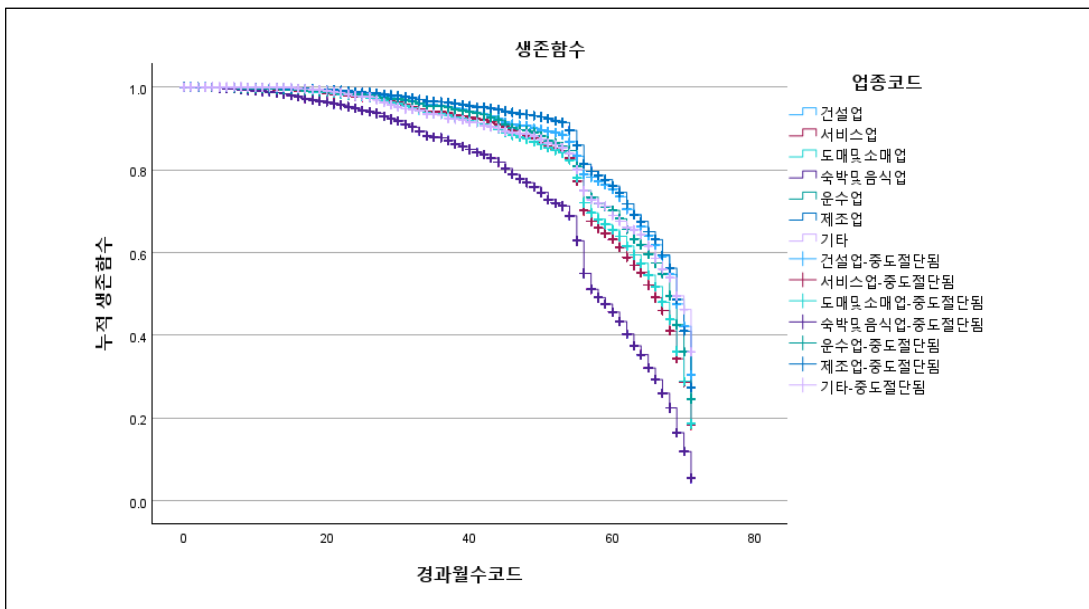
〈표 3-2〉의 분석 결과와 같이 업종별 평균 점수는 건설업(17.421), 서비스업(-18.122), 도매 및 소매업(-13.514), 숙박 및 음식점업(-126.684), 운수 및 창고업(5.217), 제조업(37.668), 기타(-185.656)로 업종별 생존율은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 > 도매 및 소매업 > 서비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기타 순으로 나타났는데 원인은 다음과 같다.

보증 업체중 제조업이 가장 높은 생존율을 기록한 것은 인천 남동공단이 주위에 있어서 납품 거래하는 업체들이 있고, 제조업 특성상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쉽게 창업하기도 어렵고 폐업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며, 건설업과 운수업도 마찬가지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쉽게 폐업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숙박 및 음식점업이 생존율이 가장 낮은 것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과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소비가 급락하여 폐점한 업체들이 많은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표 3-2〉 업종별 평균점수(생명표법)

비교집단	합계 N	중도절단 되지 않음	중도절단	중도절단 된 퍼센트	평균점수
건설업	7,188	911	6,277	87.3%	17.421
서비스업	33,986	6,878	27,108	79.8%	-18.122
도소매업	36,503	7,337	29,166	79.9%	-13.514
숙박및음식업	31,843	11,336	20,507	64.4%	-126.684
운수창고업	11,808	1,803	10,005	84.7%	5.217
제조업	9,399	1,247	8,152	86.7%	37.668
기타	1,907	243	1,664	87.3%	-185,.656

[그림 3-1] 업종별 생존함수



2) 60대 이상

생명표법의 분석 결과와 같이 60대와 70대의 업종별 평균점수는 제조업(8.626), 건설업(1.177), 운수업(2.908), 도매 및 소매업(-0.750), 서비스업(-4.276), 숙박 및 음식업(-17.536), 기타(377.325)로 나타났으며 업종별 생존율은 제조업 > 운수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서비스업 > 숙박 및 음식업 >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60대와 70대의 경우 전체 연령대와 비슷하게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의 생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운수업의 생존율이 높은 것은 은퇴후에 택시업계에 종사하는 60대 이상의 소상공인들의 생존율이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나. 연령별 다중채무자 여부별 생존분석

1)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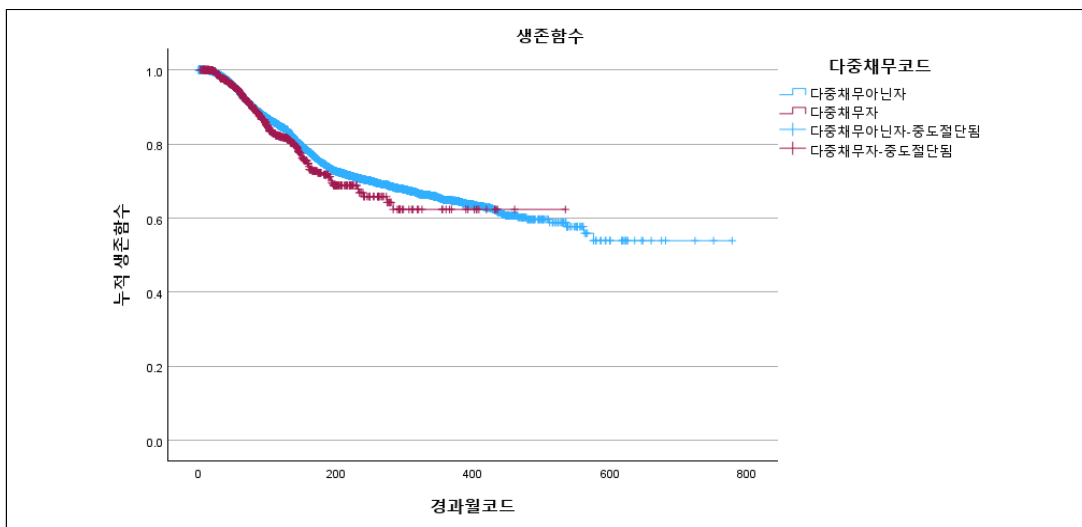
다중채무자 여부별 생존분석의 경우<표 3-3>의 생존기간에 대한 평균 및 중위수를 보면 다중채무자가 아닌 경우 평균값이 524.756이고 다중채무자인 경우 평균값이 384.388로 다중채무자가 아닌자의 생존율이 다중채무자에 비해서 생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중채무자인 경우 5개이상 금융기관에서 2억 원 이상을 차입한 소상공인으로서 금융비용 부담이 크고 매출액이 저하되어 차입금이 많아진 것으로 여겨지며 그래서 생존율이 더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표 3-3〉 다중채무자여부별 생존기간에 대한 평균 및 중위수(카플란마이어)

(단위: 개월)

다중 채무	평균			
	추정값	표준오차	95%신뢰구간	
			하한	상한
다중채무아닌자	524.756	7.688	509.687	539.824
다 중 채 무 자	384.388	12.050	360.770	408.006

[그림 3-2] 상환유형별 생존함수



2) 60대 이상

카플란마이어 분석에서 60대와 70대의 다중채무자의 평균값이 398.271이고 다중채무가 아닌 자의 평균값은 565.910으로 비다중채무자의 생존율이 다중채무자의 생존율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0대와 50대와 마찬가지로 사업경험이 많고 자기자금을 많이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차입금이 많지 않아서 다중채무자에 비해서 생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대와 30대의 소상공인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다. 연령별 대출금증가율별 생존분석

1)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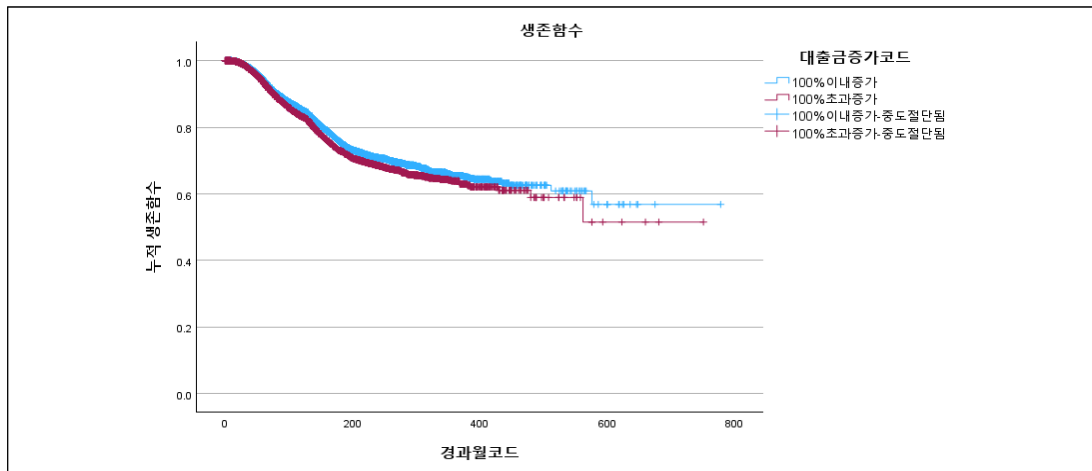
대출금증가율별 전체연령대의 생존분석의 경우<표 3-4>의 생존기간에 대한 평균 및 중위수를 보면 1년 이내 100%이내 증가한 경우 평균값이 536.906이고 1년 이내 100% 초과 증가한 경우 평균값이 499.648으로서 대출금증가율이 100% 이내인 경우가 생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대출금이 100%이내에서 증가한 경우가 전체적인 부채구조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출금이 100% 초과인 경우 매출 하락과 영업손실 발생 등으로 차입금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생존율이 더 낮아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3-4> 대출금증가율별 생존기간에 대한 평균 및 중위수(카플란마이어)

(단위: 개월)

대출증가	평균			
	추정값	표준오차	95%신뢰구간	
			하한	상한
100%이내	536.906	10.202	516.911	556.902
100%초과	499.648	15.217	469.822	529.474

[그림 3-3] 대출금증가율별 생존함수



2) 60대 이상

카플란마이어 분석에서 60대와 70대에서 대출금증가율이 1년 이내에 100% 이내에서 증가한 자의 평균값이 576.118이고 대출금증가율이 100% 초과 증가한 경우의 평균값이 542.723이므로 대출금증가율이 100% 이내에서 증가한 소상공인이 100% 초과 증가한 소상공인보다 생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연령대의 생존율과 비슷한 양상이며 연령대가 60대와 70대는 사업 경험이 풍부하고 자기자금이 20대~50대에 비해서 비교적 여유가 있어서 차입금을 적게 차입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생존율이 더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제2절

자영업 선택과 동기

1. 개념 구분

자영업자를 창업 동기에 따라 생계형 자영업자와 기회형 자영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대안 선택과 여유를 구분하는 기준인 만큼 학계의 관심이 높다. 이것은 간단하게는 자영업 진출이 불황에 밀려난(pushed) 것인지 아니면 기업이 정신(entrepreneurship)의 발현에 의한 자발적인(pulled) 것인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자영업 선택을 설명하는 대표적 가설은 유인가설과 구축가설이다. 유인가설(pulled hypothesis)은 자영업의 증가가 위험선호적인 기업이 정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으로, 경기가 호황일 때 자영업을 통한 이윤을 획득할 수 있고 혹여 실패하더라도 재취업이 비교적 쉽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자영업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반면 구축가설(pushed hypothesis)은 자영업의 증가가 비자발적인 낙오에서 비롯된다는 것으로, 경기가 불황일 때 임금근로의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하지 못하고 자영업 영역으로 밀려난다는 것이다.

자영업 진입에 있어 기회의 추구(opportunity driven)와 대안의 부재(necessity driven) 중 어느 동기가 더 우세하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자영업 선택의 이유를 기회(opportunity)와 필요(necessity)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당기는 요인(pull factor)에 의한 선택, 후자는 밀어내는 요인(push factor)에 의한 선택으로 부르기도 한다²²⁾.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임금근로자가 경기부진에 따라 자영업으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나, 구축가설을 지지한다. 미국과 캐나다 역시 실업률이 5% 높아지면, 자영업 이행률이 1.9% 높아져 실업률과 자영업 비율의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다(Schuetze, 2000; Georgellis et al., 2005)²³⁾. 구윤혜와 차경욱(2019)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자영업 대부분이 생계형 기업이며, 전문성과 수익성이 모두 낮아 치열한 경쟁 체계 하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²⁴⁾.

22) 이진국 편(2020), 「자영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제언」, 한국개발연구원

23) 지은정(2012), “경기변동이 자영업이행에 미치는 영향의 연령집단별 차이 -구축가설과 유인가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3권 제2호 (2012)

2. 분석 과정 및 결과

가. 전국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 진출이 불황에 의해 강제된 밀어내기 요인(push factor)에 중점을 두고 실업률이 자영업 진입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전국 실업률(연령별) 자료와 자영업자에 대한 상관분석과 교차상관분석을 통해 실업률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차상관분석은 두 시계열 간의 상관을 시차별로 살펴보는 분석 방법이다.

연령별 실업률 데이터는 통계청에서 제공되나 월별 자영업 진입자는 딱 맞는 통계가 없어서 월별 자영업자수를 바탕으로 차분하여 (당기 자영업자수 - 전기 자영업자수)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것은 월별 폐업자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만 신규 진입자로 볼 수 있으므로 분석의 한계는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 신규 진입자도 연령별로 알 수 있으면 유용하나 자료가 뒷받침 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서 전체 신규 진입자로 살펴보기로 한다. 자료기간은 2000년 1월 ~ 2025년 12월의 월별 데이터이다.

상관분석 결과에서는 실업률과 신규진입자가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자영업의 신규 진입자는 늘어나는 관계를 보여준다. 실업률이 높을 때 자영업 진입자가 늘어서 구축가설을 지지한다. 다만 60대 이상의 실업률에서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자료기간이 길어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최근 고령자의 자영업 진입수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료기간을 줄일 경우 유의적인 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3-5〉 상관관계 분석(전국)

구분	실업률 (전체)	실업률 (20대이하)	실업률 (30대)	실업률 (40대)	실업률 (50대)	실업률 (60대이상)	신규 진입자
실업률(전체)	1	.761**	.760**	.811**	.864**	.464**	.124*
실업률(20대이하)		1	.634**	.497**	.629**	.256**	.150**
실업률(30대)			1	.705**	.735**	.172**	.256**
실업률(40대)				1	.842**	.127*	.245**
실업률(50대)					1	.259**	.167**
실업률(60대이상)						1	-.065
신규 진입자							1

주 : **는 0.01 수준에서 유의하고 *는 0.05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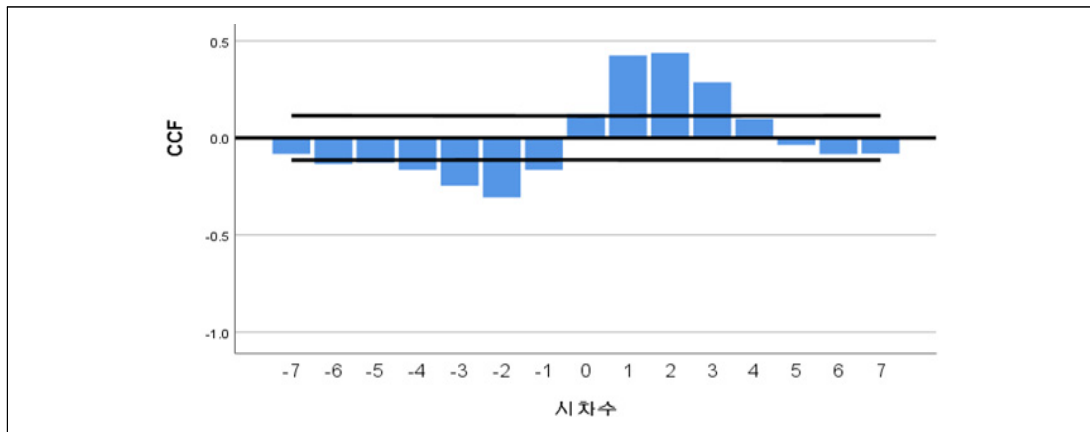
24) 구윤혜, 차경욱(2019). “자영업자의 사업체 특성에 따른 가계 재무구조와 취약성 분석”, 소비자학연구, 30(5)

실업률이 자영업 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상관관계의 시차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상관분석을 한 결과에서는 전체 실업률과 60대 실업률이 모두 신규 진입자에 2기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실업률과 자영업 진입과는 관련성이 있으므로 고령자의 생계형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6〉 실업률과 신규진입자의 교차상관(전국)

구분	신규진입자								
	t-4	t-3	t-2	t-1	t	t+1	t+2	t+3	t+4
실업률t	-0.165	-0.246	-0.307	-0.165	0.124	0.424	0.438	0.287	0.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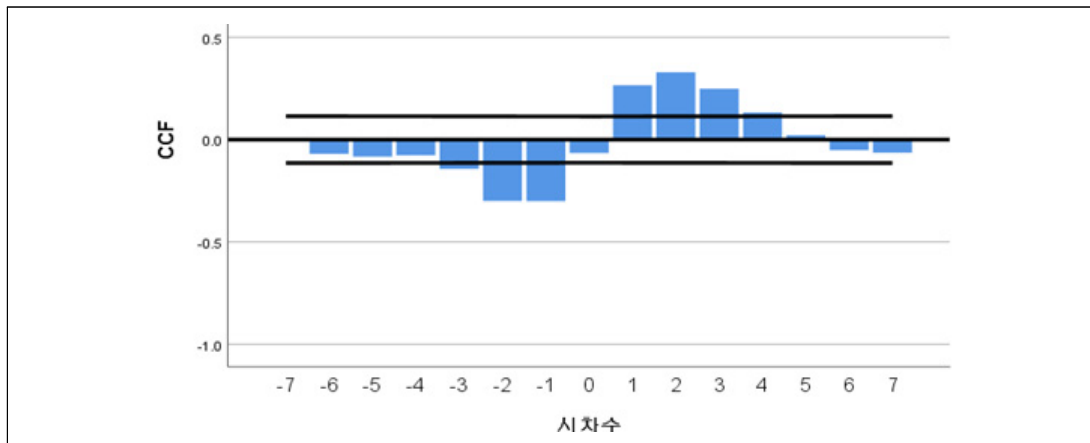
[그림 3-4] 교차상관분석 결과(실업률과 신규진입자)



〈표 3-7〉 60대이상 실업률과 신규진입자의 교차상관(전국)

구분	신규진입자								
	t-4	t-3	t-2	t-1	t	t+1	t+2	t+3	t+4
실업률t	-0.077	-0.143	-0.300	-0.300	-0.065	0.266	0.329	0.249	0.133

[그림 3-5] 교차상관분석 결과(60대이상 실업률과 신규진입자)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에서는 사업시작동기 조사결과(전국)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응답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창업동기에 대한 응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자영업자 대부분이 임노동 일 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자영업을 선택하였다는 추측이다. 소상공인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관련 설문 결과는 이러한 추측과는 반대되는 응답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표 3-8〉 사업시작 동기

(단위 : %)

구분	임금 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	기타
2021.8	22.2	69.8	8.0
2022.8	19.3	70.6	10.1
2023.8	15.3	77.2	7.5
2024.8	16.1	73.4	10.4
2025.8	17.9	73.8	8.3

주 : 비임금근로 부가조사는 매년 8월 기준으로 조사결과가 공표된다.

자료 : 국가데이터처,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나. 인천

인천 실업률 자료와 자영업자 증감을 자료를 비교하여 실업이 자영업으로 연결되는지, 관계가 없는지 등을 분석한다. 인천시에 한정하여 살펴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자영업자수는 인천시 자영업자수를 이용하되, 인천시 연령별 실업률 데이터는 분기별로만 제공되고 있어서 월별 데이터가 제공되는 전국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한다. 실업률 연령계층은 전국과는 달리 10년 단위로 구분되지 않고 15~29세, 30~59세, 60세 이상으로만 구분된다. 분석 결과, 전국과 유사하게 60대 이상의 실업률에서는 신규진입자와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전체 실업률, 40대 실업률도 신규진입자와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표 3-9〉 상관관계 분석(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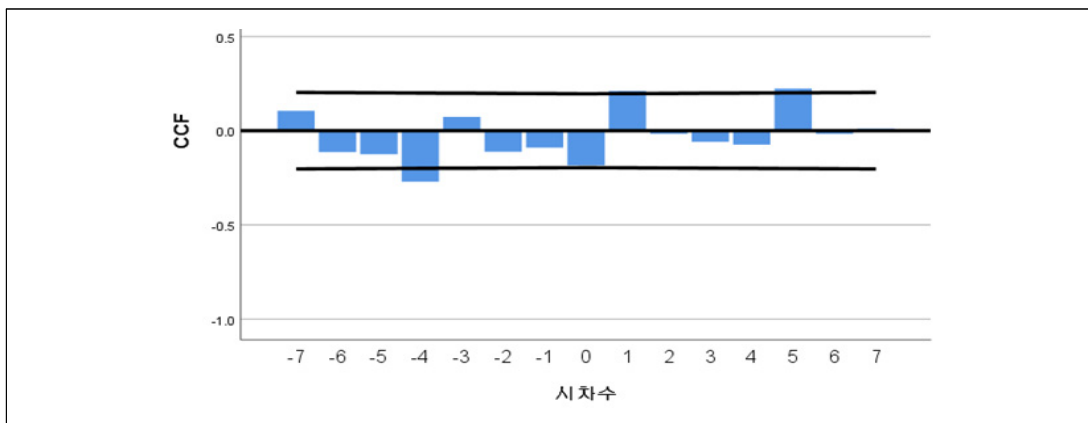
구분	실업률(전체)	실업률(20대이하)	실업률(30대)	실업률(40대)	신규 진입자
실업률(전체)	1	.711**	.854**	.544**	-.185
실업률(20대이하)		1	.355**	.452**	-.207*
실업률(40대)			1	.206*	-.137
실업률(60대이상)				1	-.072
신규 진입자					1

주 : **는 0.01 수준에서 유의하고 *는 0.05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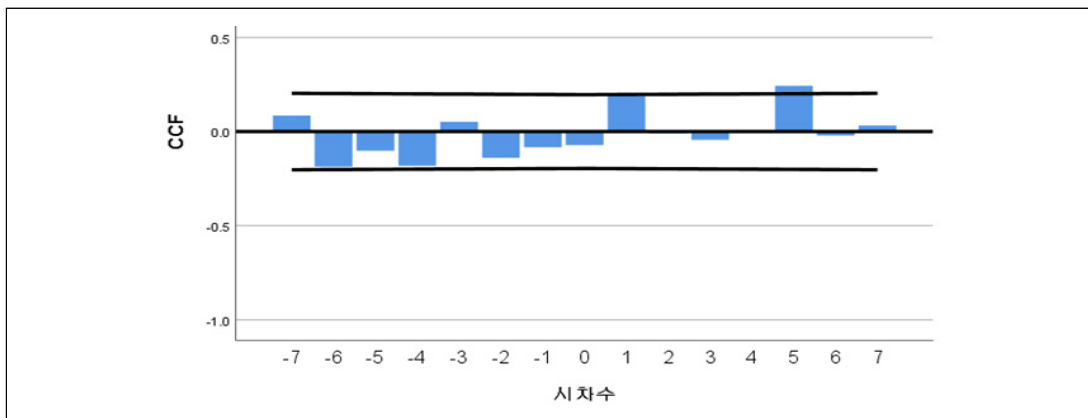
상관관계의 시차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상관분석을 한 결과에서는 실업률과 60대 실업률이 모두 신규 진입자와의 선행 관계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인천의 경우 전국과는 달리 고령자의 생계형 창업 성격이 약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안수지(2025)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언급을 하고 있다. 수도권, 광역시는 지방, 광역도와는 달리 지역의 인구, 수요, 영업 기반의 차이 등으로 인해 자영업이 생계 수단보다는 전문성·기술·경험을 활용한 기회형 경영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향후 자영업 정책이 단일한 형태보다는 지역 및 연령특성을 반영한 다층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²⁵⁾.

[그림 3-6] 교차상관분석 결과(인천 실업률과 신규진입자)



[그림 3-7] 교차상관분석 결과(인천 60대이상 실업률과 신규진입자)



설문조사의 응답을 통해 인천시 소상공인의 창업의 동기를 통계청, 소상공인실태조사에서 창업동기 조사결과(인천시)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조사에 비해 ‘임금 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 비중이 크게 낮게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25) 안수지(2025), 「인구구조 변화와 자영업의 지역·연령별 구조 전환 및 대응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 보고서에 창업 동기를 묻는 설문결과를 보면, 62.6%가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 23.4%가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를 선택하였고, 12.7%만이 “임금근로자 취업이 어려워서”를 선택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자신의 선택으로 창업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업종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경향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비자발적 이유로 창업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설문 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2023년에 비자발적 이유로 창업한 비중이 급증하였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비자발적 창업의 비중이 매우 안정적이었던 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이 창업 이유에 대해 자신의 부정적 상황을 숨기기 위해서 솔직한 응답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²⁶⁾.

〈표 3-10〉 인천시 소상공인 창업동기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임금 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기타
2021	92,852	4.0	65.5	29.4	1.0
2022	96,183	4.4	64.1	30.5	0.8
2023	105,934	9.9	62.9	25.1	2.1

자료 : 국가데이터처, 소상공인실태조사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수행한 ‘2025년 인천시 소상공인 생활백서’에서는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 하고 싶어서’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다. ‘임금 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 응답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60대 이상에서는 19.9%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젊은 세대는 위험을 즐기는 성향이 있어 자영업의 불확실한 소득과 유연성을 더 선호하여 자영업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중장년 세대는 기업가 정신의 발현으로 창업하기보다는 임금노동시장에서 밀려나거나, 임금근로 일자리 기회가 적어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중고령자들은 자영업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서 불황에 자영업으로 밀려날 소지가 크지만, 장년층은 소득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변동과 상관없이 자영업에 진출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26) 오상봉(2025), 「자영업과 자영업정책」, 한국노동연구원

〈표 3-11〉 현 사업체 창업 동기 1순위(2025년)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임금 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 하고 싶어 서	수입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적성에 맞는 일이기 때문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업화 하기 위해	주변 지인의 추천	가업 승계 위해
20대 이하	89	9.0	70.8	9.0	9.0	1.1	1.1	0.0
30대	278	9.7	56.1	15.1	14.7	0.4	2.2	1.8
40대	475	12.6	52.0	18.5	13.1	0.6	1.7	1.5
50대	698	13.9	55.4	14.3	10.9	0.1	3.3	2.0
60대 이상	960	19.9	49.1	17.2	8.2	0.5	4.3	0.7
전체	2,500	15.3	53.0	16.1	10.6	0.4	3.2	1.3

자료 : 인천신용보증재단(2026), 「2025년 인천시 소상공인 생활백서」

제3절 고령화와 보증 리스크

1. 고령화와 경기 변동(business cycle)

가. 선행 연구

여기서는 고령 소상공인이 경기 변동, 경기 충격에 더 민감한가에 대해 검증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 경기변동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왔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산업은 대부분 경기변화에 민감하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고령 소상공인은 대체로 호경기 때보다 불경기 때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신용경색 및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경기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기업 규모별로 경기순환(business cycle)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그 특성과 경제 충격에 대한 반응은 다를 수 있다. 보통은 대기업, 중소기업보다 소기업, 소상공인이 경기변동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기변동 국면에 따라 매출액 변동이 기업별로 상당히 다르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기업은 경기둔화기에 회복국면보다 더 차별적으로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매출액증가율이 저조한 기업일수록 경기변동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게 영향받는 것으로 보인다²⁷⁾.

Agarwal, Chomsisengphet and Liu(2008)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경기변동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실증하였다²⁸⁾. 우리나라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은 중소기업에 비해서도 제도권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 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즉, 경기가 나빠지면 소비와 매출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악화되어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중소기업에 비해 더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고령자가 업력이 길 가능성이 큰데, 업력이 길수록 경기변동에 덜 민감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김흥기 2021)²⁹⁾.

27) 홍성철·정유탍·김준엽(2025),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간 경기변동(Business Cycle) 비교 분석”, 중소기업금융연구 제45권 제4호, 신용보증기금

28) Agarwal, S., S. Chomsisengphet, and C. Liu, (2008), “Determinants of small business default,” *The Analytics of Risk Model Valuation*, pp.1-12.

나. 분석 방법 및 결과

1) GDP와 매출액 비교

중소기업기본통계에서 소상공인 매출액은 2023년만 나타나고, 중소기업 매출액은 2019년~2023년까지 제공되고 있어서 이 수치들과 국내총생산(명목)의 추이를 비교하기로 한다. 국내총생산(GDP)과 매출액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추이만을 살펴보기 위해 두개 수치를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추이를 살펴볼 때, GDP보다는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의 변동폭이 크다. 중소기업 연령별 매출액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연령별로 증가율의 편차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연령별로 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GDP증가율 대비 매출액증가율이 60대이상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기변동의 영향을 더 받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보다 인천시 소상공인에서 연령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2〉 국내총생산(명목)

(단위: 십억 원,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GDP	2,040,594.3	2,058,466.5	2,221,912.9	2,323,781.5	2,408,687.4
증가율	1.68	0.88	7.94	4.58	3.65

주: 2018년 GDP는 2,006,974.5 십억 원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3-13〉 중소기업의 대표자 연령별 매출액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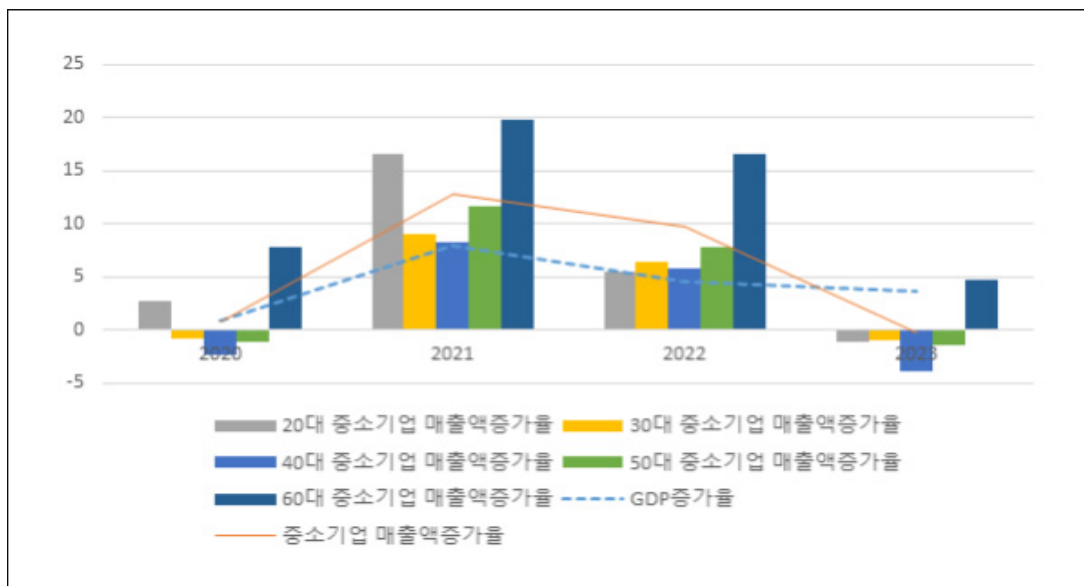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대 이하	매출액	374,002	384,485	447,948	472,250	467,099
	증가율		2.80	16.51	5.43	-1.09
30대	매출액	2,485,558	2,466,723	2,690,945	2,862,834	2,837,179
	증가율		-0.76	9.09	6.39	-0.90
40대	매출액	7,061,005	6,900,596	7,475,437	7,912,987	7,612,164
	증가율		-2.27	8.33	5.85	-3.80
50대	매출액	9,856,862	9,742,527	10,878,272	11,725,730	11,555,536
	증가율		-1.16	11.66	7.79	-1.45
60대 이상	매출액	6,483,518	6,992,247	8,377,225	9,761,014	10,216,316
	증가율		7.85	19.81	16.52	4.66
계	매출액	26,542,289	26,745,661	30,171,248	33,090,291	33,012,545
	증가율		0.77	12.81	9.67	-0.23

주: 대표자연령별 매출액은 2019년부터 통계 제공

자료: 국가데이터처, 중소기업기본통계

29) 김홍기(2021), 「리스크 요인 및 기본재산 기반의 적정 신용보증규모 분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그림 3-8] GDP 증가율과 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 추이



아래 표를 보면, 시계열 자료가 짧은 자료의 한계가 있지만, 중소기업 보다 소상공인이 GDP증가율에 비해 연도별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와서 경기변동에 더 증폭되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고령층에서 연도별로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4〉 대표자 연령별 매출액(인천시 소상공인)

(단위: 억 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대	매출액	18,837	20,345	20,338
	증가율		8.01	-0.03
30대	매출액	78,330	85,332	87,571
	증가율		8.94	2.62
40대	매출액	172,122	184,206	184,538
	증가율		7.02	0.18
50대	매출액	207,979	223,252	220,281
	증가율		7.34	-1.33
60대	매출액	108,436	128,482	137,222
	증가율		18.49	6.80
70대	매출액	14,829	19,032	21,418
	증가율		28.34	12.54
계	매출액	610,260	671,635	680,640
	증가율		10.06	1.34

주: 1. 19세 이하, 80세 이상, 대표자 연령 미상 등은 제외

2.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통계는 2021년 기준부터 생산

자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통계보고서

2) 영업이익 비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인천시 소상공인 생활백서’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영업이익 수준까지 내려가면 영업 레버리지에 의해 영업이익의 변동폭이 더욱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0대 이상이 매출액, 영업이익의 평균 수치는 다른 연령대보다 떨어진다.

〈표 3-15〉 대표자 연령별 매출액(인천시 소상공인)

(단위: 만 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대	17,111.6	19,227.8	19,822.7
30대	20,447.9	18,818.8	19,508.8
40대	25,384.9	23,235.6	22,606.9
50대	26,393.4	26,533.8	26,567.1
60대 이상	18,817.3	18,943.4	18,534.3

주: 1. 19세 이하, 80세 이상, 대표자 연령 미상 등은 제외

2.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통계는 2021년 기준부터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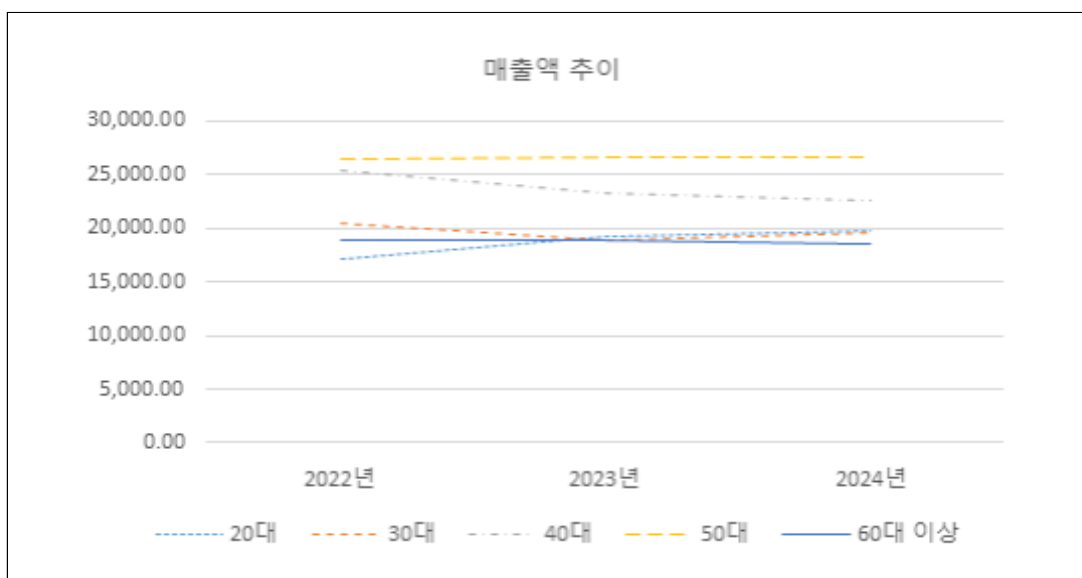
자료: 인천신용보증재단(2025), 인천시 소상공인 생활백서

〈표 3-16〉 사업체당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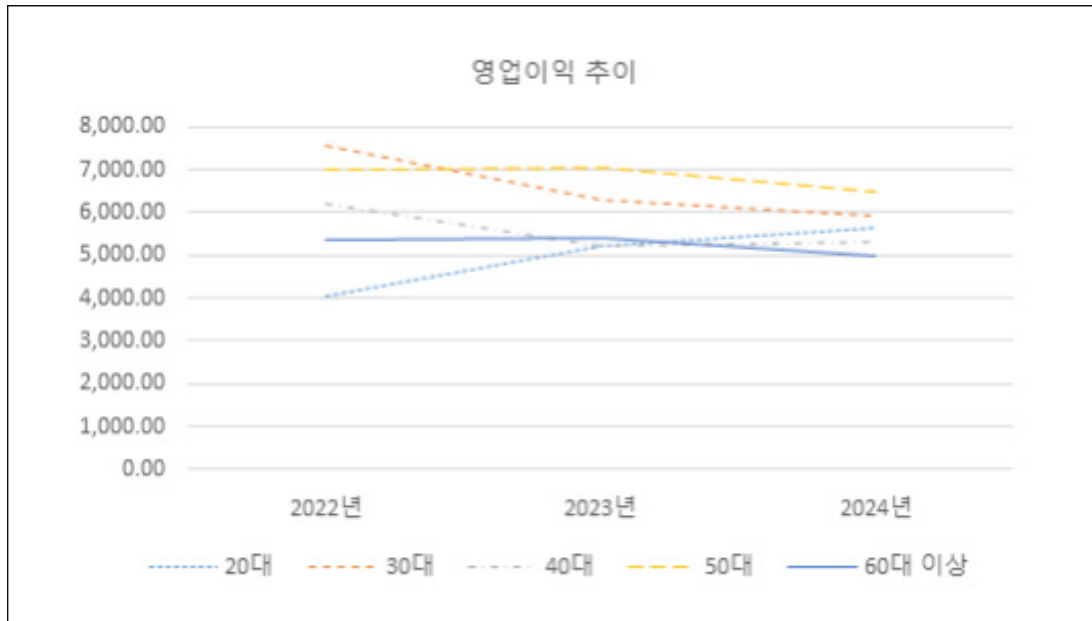
(단위: 만 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대	4,032.4	5,243.6	5,631.1
30대	7,551.3	6,287.4	5,925.6
40대	6,190.9	5,216.7	5,298.1
50대	6,985.0	7,059.4	6,468.4
60대 이상	5,369.5	5,397.2	4,981.8

[그림 3-9] 인천 소상공인의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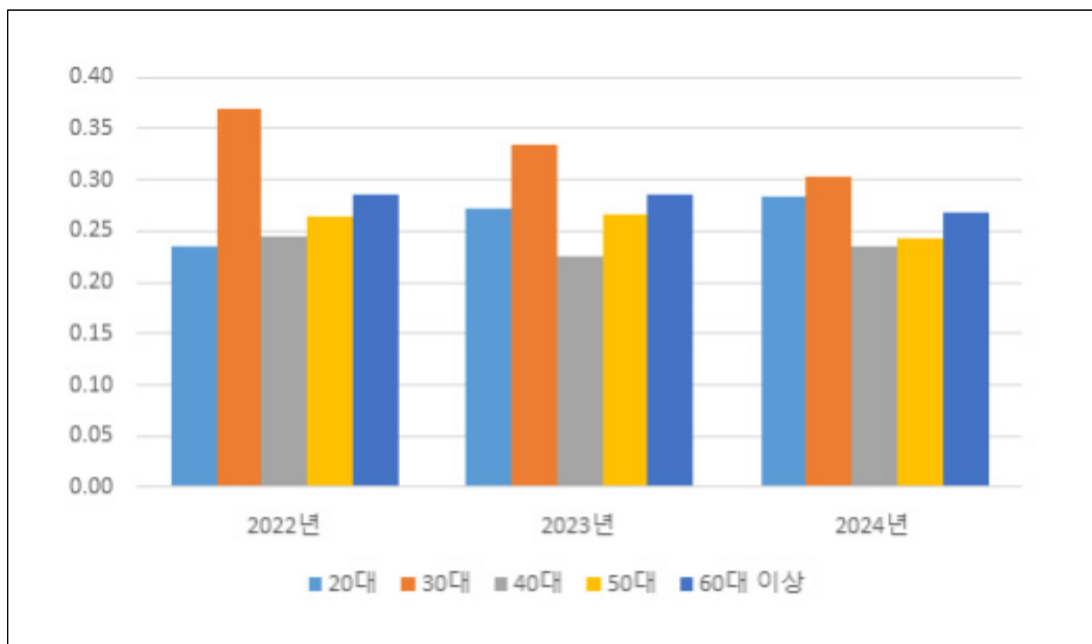


[그림 3-10] 인천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추이



영업이익률의 연령별 변화를 보면 60대 이상이 보통 이상이면서 연도별로 변동이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고령자일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시계열자료가 길지 않아서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몇 년의 영업실적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료의 한계이다.

[그림 3-11] 연령별, 연도별 영업이익률 변동



2. 고령화와 보증부실율³⁰⁾

가.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자 집단에서 폐업률이 높아졌다는 신문기사가 있어서 그럼 실제로 인천시 신용보증 결과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폐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즉 보증사고율, 대위변제율을 통해 고령화의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학술연구는 신문기사와는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다. 김흥기(2021) 연구에서는 업력이 1년 증가할수록 보증사고 발생확률은 1.3%p 감소하고, 대위변제 발생확률은 1.13%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³¹⁾. 통상 고령자로 갈수록 업력이 길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해 보면 고령자의 보증사고율이 더 낮을 것이라는 추정으로 연결된다. 업력이 높을수록 경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노하우가 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임성희·김진옥(2021)의 연구에서는 개인 창업 사업체의 연령층별 생존시간(중위수 기준)이 청년층(35세 미만) 2.3년, 중년층(35~49세) 2.9년, 장년층(50~64세) 3.1년, 노년층(65세 이상) 2.9년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으로 갈수록 생존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생존곡선을 보더라도 모든 시점에서 청년층의 생존율이 그 외 다른 연령층보다 현저히 낮고 폐업 발생위험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³²⁾.

반면에 박주완·배진성·윤혁준(2019) 연구에서는 대표자 연령, 업력이 증가할수록 창업기에서 쇠퇴기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보증사고나 대위변제는 점차 감소하다가 쇠퇴기에 접어든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³³⁾.

본 연구에서는 ‘신용보증재단 통계분석시스템’을 통해 실제로 고령층의 폐업률이 높고 그에 따라 보증사고율이 높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연도별로 (사고발생금액 - 정상화금액)을 보증잔액으로 나누어서 보증순사고율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연간 보증순사고율의 산식은 아래와 같다.

$$\text{보증순사고율(\%)} = \frac{\text{보증사고발생금액} - \text{보증사고정상화금액}}{\text{보증잔액금액}} \times 100$$

30) 이것은 보증 관점에서 고령 신청자의 특성을 살펴보고 정책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관점에서 몇가지 가설을 검증해 보기로 한다.

31) 김흥기(2021), 리스크 요인 및 기본재산 기반의 적정 신용보증규모 분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2) 임성희·김진옥(2021), “개인 창업사업체 생존분석 : 2010~2018 행정데이터를 중심으로”. 통계연구, 제26권 제2호

33) 박주완·배진성·윤혁준(2019),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특성 연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나. 분석 결과

1) 보증실행건수

신규보증 실행 기준으로 최근 3개년의 연령별 보증건수, 보증금액을 보면, 20대 이하를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보증 실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60대 이상 고령층만 보증 공급이 급증한 것은 아니다. 보증실행 금액이 큰 연령층은 40대, 50대이고 60대 이상 고령층은 비중이 크지는 않다.

〈표 3-17〉 인천시 소상공인 대표자 연령별 보증실행건수(신규보증)

(단위 : 개)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대 이하	1,611	1,394	1,346
30대	5,163	4,798	5,490
40대	6,520	6,249	7,561
50대	5,173	5,117	6,598
60대	2,584	2,694	3,459
70대 이상	373	371	607
계	21,414	20,623	25,061

자료 : 신용보증재단 통계정보시스템

〈표 3-18〉 인천시 소상공인 대표자 연령별 보증실행금액(신규보증)

(단위 : 백만 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대 이하	35,146.13	32,607.35	32,218.95
30대	117,111.47	125,701.18	150,882.05
40대	151,187.25	169,166.12	215,143.69
50대	120,920.92	140,148.29	187,095.57
60대	57,224.90	68,707.51	94,688.32
70대 이상	9,214.62	9,263.02	15,630.10
계	490,805.28	545,593.46	695,658.68

자료 : 신용보증재단 통계정보시스템

보증공급건수와 보증실행건수를 보증처리 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연령별로 살펴보면, 고령층에서 특별히 다른 연령층과 다른 분포를 보이는 경우는 적고, 다만 고령층의 기한연장의 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3-19〉 연령별 보증공급건수와 실행건수 구분(2025년)

(단위 : 개)

구분	보증공급건수		보증실행건수	
	기한연장	보증실행	신규보증	회수보증
20대 이하	777	1,405	1,346	59
30대	3,773	5,995	5,490	505
40대	6,359	8,679	7,561	1,118
50대	6,078	7,865	6,598	1,267
60대	2,467	4,260	3,459	801
70대 이상	319	775	607	168
계	19,773	28,979	25,061	3,918

주 : 보증공급은 기한연장과 보증실행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다시 보증실행은 신규보증과 회수보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자료 : 신용보증재단 통계정보시스템

2) 보증사고율

보증사고율 조사 결과, 60대 이상 고령자의 보증순사고율이 다른 연령대 보다 낮게 나타난다. 오히려 30대 이하 젊은 층에서 보증사고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또한 고령자의 보증사고율이 연도별로 높아지는 경향을 발견하기도 힘들다. 연령이 높고, 업력이 높은 대표자인 기업일수록 보증사고율이 낮다는 것은 다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³⁴⁾.

이것은 보증사고율이 폐업률과 동일한 지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보증사고의 사유에는 파산, 청산, 법정관리 외에도 원금 및 이자의 상환불이행, 연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³⁵⁾. 또는 보증 사업체들이 비보증 사업체에 비해 폐업률이 낮아서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다. 생존하는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보증을 받는 경우에는 사고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보증횟수가 적은 고령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고령자라고 해서 폐업률이 더 높거나 보증사고율이 더 높다고 볼 수는 없다.

〈표 3-20〉 인천시 소상공인 연령별 보증사고율

(단위 :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대 이하	9.92	10.77	9.30
30대	8.17	9.13	6.87
40대	6.81	8.05	7.07
50대	5.04	6.79	5.78
60대	4.87	6.57	5.85
70대 이상	6.35	7.04	6.32
계	6.52	7.88	6.60

자료 : 신용보증재단 통계정보시스템

34) 박주완·배진성(2020), 「신용보증 사고 및 대위변제 요인 분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5) 신용보증기금은 원금 또는 이자 채무불이행 기업,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부도 등 신용관리정보에 등록된 기업, 파산 및 회생절차 진행 기업, 3개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기업 등을 부실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연도별 보증사고율의 계산 과정은 아래와 같다. 연령이 올라갈수록 보증사고율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신규보증 실행금액은 30대, 40대, 50대가 많고, 60대 이상은 20대보다는 많지만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없다.

〈표 3-21〉 2025년 연령대별 보증순사고율

(단위 : 백만 원, %)

구분	보증실행(신규보증) 금액	보증잔액 금액	보증사고발생 금액	보증사고 정상화 금액	보증순사고율
20대 이하	32,218.95	100,245.00	14,746.27	5,423.41	9.30%
30대	150,882.05	428,934.36	41,175.27	11,716.61	6.87%
40대	215,143.69	6340.25.37	57,561.51	12,713.10	7.07%
50대	187,095.57	572,511.65	42,631.44	9,547.02	5.78%
60대	94,688.32	267,663.28	20,074.88	4,411.60	5.85%
70대 이상	1,563.01	38,769.66	3,454.15	1,005.81	6.32%
합계	695,658.68	2,042,149.35	179,643.55	44,817.58	6.60%

자료 : 신용보증재단 통계정보시스템

2023년~2024년 자료를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더라도 2025년과 보증사고율 분포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

〈표 3-22〉 2024년 연령대별 보증순사고율

(단위 : 백만 원, %)

구분	보증실행(신규보증) 금액	보증잔액 금액	보증사고발생 금액	보증사고 정상화 금액	보증순사고율
20대 이하	32,607.35	112,410.34	17,495.35	5,391.31	10.77
30대	125,701.18	427,744.10	51,572.33	12,523.67	9.13
40대	169,166.12	628,863.68	65,125.43	14,480.16	8.05
50대	140,148.29	567,190.77	50,053.50	11,556.38	6.79
60대	68,707.51	252,205.12	22,536.31	5,968.28	6.57
70대이상	9,263.02	32,171.67	3,300.90	1,035.66	7.04
합계	545,593.46	2,020,585.68	210,083.82	50,955.47	7.88

〈표 3-23〉 2023년 연령대별 보증순사고율

(단위 : 백만 원, %)

구분	보증실행(신규보증) 금액	보증잔액 금액	보증사고발생 금액	보증사고 정상화 금액	보증순사고율
20대 이하	35,146.13	126,613.35	18,220.31	5,660.99	9.92
30대	117,111.47	459,694.87	47,489.09	9,933.00	8.17
40대	151,187.25	684,008.26	58,483.02	11,871.12	6.81
50대	120,920.92	632,527.03	40,788.81	8,926.76	5.04
60대	57,224.90	270,065.02	18,299.83	5,146.95	4.87
70대이상	9,214.62	34,081.20	3,543.67	1,380.45	6.35
합계	490,805.28	2,206,989.72	186,824.73	42,919.28	6.52

3) 대위변제율, 회수율

보증순사고율이 아닌 연령대별 대위변제순증률을 보더라도 고령층으로 갈수록 대위변제순증률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보증순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상관관계가 높으므로 당연한 결과이다. 고령자가 보증순사고율이 낮은 만큼 대위변제률도 낮게 나타난다.

〈표 3-24〉 2025년 연령대별 대위변제순증률

(단위: 백만 원, %)

구분	보증_잔액_금액	구상채권 발생액	구상채권 회수액	대위변제순증률
20대 이하	100,245.01	10,189.62	1,796.79	8.37
30대	428,934.37	33,427.61	4,970.00	6.63
40대	634,025.37	47,563.28	5,412.74	6.65
50대	572,511.66	34,932.96	3,983.77	5.41
60대	267,663.29	16,589.75	1,353.09	5.69
70대 이상	38,769.66	2,284.75	150.73	5.50
합계	2,042,149.35	144,987.97	17,667.12	6.23

주 : 대위변제순증률 = (연간 구상채권 발생액-연간 구상채권 회수액) / 보증잔액 × 100

고령층으로 갈수록 회수율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이의 역순으로 회수율이 높다. 하지만 회수율이 대위변제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므로 회수율 자체만 가지고 고령층이 더 위험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회수율의 산식은 아래와 같다.

$$\text{대위변제회수율(\%)} = \frac{\text{연간구상채권회수액}}{(\text{전년말 구상채권잔액} + \text{연간 구상채권발생액})} \times 100$$

〈표 3-25〉 2025년 연령대별 대위변제회수율

(단위: 백만 원, %)

구분	구상채권 회수액	구상채권 발생액	전년말 구상채권잔액	대위변제회수율
20대 이하	1,796.79	10,189.62	22,738.11	5.46
30대	4,970.00	33,427.61	68,320.44	4.88
40대	5,412.74	47,563.28	84,073.71	4.11
50대	3,983.77	34,932.96	61,777.16	4.12
60대	1,353.09	16,589.75	23,549.32	3.37
70대 이상	150.73	2,284.75	3,798.48	2.48
합계	17,667.12	144,987.97	264,257.22	4.32

자료 : 신용보증재단 통계분석시스템

4) 업력과 보증사고율

고령층의 사고율이 더 높은 것은 아니나 이것은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집단의 학습효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력을 통제한 후 살펴보는 시도도 필요하다. 고령자일수록 업력이 오래 되었는데 업력이 오래 될수록 보증을 여러 번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반복적으로 보증을 이용하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사고율이 더 낮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신용보증재단 통계정보 시스템으로는 반복적으로 보증을 받는 사업체를 별도로 파악하기는 힘들다.

다만 2025년에 한하여 연령별 전체 보증 대비 신규 보증의 비율을 보면 고령자로 갈수록 신규보증의 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기한연장, 회수보증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온다.

〈표 3-26〉 2025년 연령대별 신규보증 비율

(단위: 백만 원, %)

구분	보증실행금액	신규보증금액	신규보증 비율
20대 이하	33,421.38	32,218.96	96.40
30대	161,777.34	150,882.05	93.27
40대	239,524.69	215,143.69	89.82
50대	214,911.18	187,095.57	87.06
60대	111,468.45	94,688.32	84.95
70대 이상	19,237.52	15,630.10	81.25

주: 신규보증은 전체 보증에서 기한연장, 회수보증을 제외한 것임

자료: 신용보증재단 통계분석시스템

단순히 연령대로만 살펴봤을 때는 고령층의 보증사고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고령층의 업력에 따라 구분해 봤을 때는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고령층의 폐업이 모두 많아졌다고 보다는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고령층의 폐업이 주로 늘어났을 수 있기 때문에 신생업체와 오래된 업체를 구분하여 살펴보려는 것이다. 업력이 많은 고령 자영업자는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5년 보증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업력이 짧은 60대 이상 사업주만을 선별하여 보증순사고율을 살펴보면,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고령층 사업자들의 순사고율이 업력 전체평균 60대 5.85%, 70대 이상 6.32%에서 9.85%까지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이 확인된다. 같은 고령층에서도 업력이 짧을수록 보증순사고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준비 안 된 고령층의 창업에서는 폐업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라고 볼 수 있다.

〈표 3-27〉 2025년 60대 이상 연령 사업주의 업력별 보증순사고율

(단위: 백만 원, %)

업력	보증잔액 금액	보증사고발생 금액	보증사고 정상화 금액	보증순사고율
1년이하	22,112.52	3,186.95	1,022.88	9.79
1년초과 2년이하	23,412.81	2,666.81	628.08	8.71
2년초과 3년이하	20,717.53	2,496.85	456.61	9.85
3년초과 4년이하	18,537.09	1,835.91	387.28	7.81
4년초과 5년이하	16,693.90	1,675.35	296.08	8.26

자료: 신용보증재단 통계분석시스템

위의 업력이 짧은 고령 소상공인의 높아진 보증사고율 결과를 아래 전체 연령대의 업력별 사고율과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더 높은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연령대 보다 고령자의 창업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3-28〉 2025년 전체 연령대의 업력별 보증순사고율

(단위: 백만 원, %)

업력	보증잔액 금액	보증사고발생 금액	보증사고 정상화 금액	보증순사고율
1년이하	282,885.37	34,439.59	9,364.99	8.86
1년초과 2년이하	302,367.62	32,763.68	8,690.48	7.96
2년초과 3년이하	223,343.54	23,757.70	6,221.12	7.85
3년초과 4년이하	179,088.88	17,625.51	4,162.81	7.52
4년초과 5년이하	150,477.05	14,069.29	3,150.58	7.26

제4절 고령화와 상권 쇠퇴

1. 의의 및 방법³⁶⁾

지역 상권에서 고령 노후화 점포가 장기간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신규 창업자의 접근성이 낮아지고, 상권 교체 주기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 사업자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쇠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 비대면·디지털 전환,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상권 쇠퇴와 불가피하게 연관을 가질 수 있다.

고령화-상점 노후화-상권 쇠퇴는 상관성은 높은 편이지만, 자동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조건부 관계이다. 즉, 강한 경향성은 있지만 ‘항상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령화가 상권 쇠퇴를 유발하는가? 아니면 결과인가? 최근 연구 흐름은 고령화는 상권 쇠퇴의 원인이 아니고 상권 쇠퇴의 결과로 고령화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 지역에서 고령화와 상권 쇠퇴가 지역별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몇 가지 통계를 통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고령 사업자와 상권 쇠퇴 간에는 관련성이 있는지, 고령화 현상이 보증에는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인천시의 군·구별, 연령대별 소상공인 분포를 ‘2023년 기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통계보고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2023년 통계가 수집 가능한 최근 자료이지만 2025년도에도 소상공인 분포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분석은 행정동 단위의 파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통계 수집에 한계를 지니므로 여기서는 인천시 군·구 단위로 살펴보기로 한다. 추가적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 자료, 보증사고율, 공실률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6) 고령층 사업자가 많으면 상권이 쇠퇴하는가?, 고령 보증 수혜자와 상권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에 대한 대략적인 대답에 해당한다. 고령 사업자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쇠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대적 흐름(온라인, 비대면, 디지털화)에 뒤처지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상권 쇠퇴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2. 분석 과정 및 결과

가. 지역별 연령 분포

2023년 기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통계보고서로 볼 때, 인천 소상공인의 60대 이상 고령층은 규모로는 서구,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순으로 많은데, 상대적 비율로는 옹진군, 강화군, 동구, 미추홀구 순으로 높다. 쉽게는 송도, 청라 등 신도시가 위치한 연수구, 서구와 부평구의 고령 소상공인 비율이 낮고 도서·농어촌 지역인 옹진군, 강화군의 고령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인천 지역별 고령화율 차이와도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뚜렷하게는 아니지만 지역과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별로 연령 특성의 차이가 약간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도심(동구·중구·미추홀 등 원도심에 고령화·영세 자영업 과밀화가 보다 심화되어 있고, 송도·청라·검단 등 신도시에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3-29〉 인천시 지역별·연령별 소상공인 현황(2023년)

(단위 : 개)

구분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계
계	9,862	2,690	24,591	10,881	41,752	37,427	55,738	48,719	28,161	66,006	325,827
20대	263	58	987	285	1,972	2,094	2,462	2,620	1,401	3,334	15,476
30대	979	210	3,397	939	6,407	7,690	8,444	9,117	4,266	11,597	53,046
40대	1,767	401	5,980	2,274	9,691	10,877	13,732	11,584	6,445	18,065	80,816
50대	2,816	713	7,139	3,544	11,268	9,421	16,228	12,900	8,471	18,308	90,808
60대	2,877	944	5,257	2,812	9,178	5,517	11,671	9,505	6,172	11,914	65,847
70대	825	233	1,261	723	2,110	998	2,213	1,886	908	2,025	13,182
기타	335	131	570	304	1,126	830	988	1,107	498	763	6,652

자료 : 인천광역시(2025), 「2023년 기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통계보고서」

〈표 3-30〉 인천 소상공인 군·구별 연령대 비율(2023년)

(단위 : %)

구분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20대	2.7	2.2	4.0	2.6	4.7	5.6	4.4	5.4	5.0	5.1
30대	9.9	7.8	13.8	8.6	15.3	20.5	15.1	18.7	15.1	17.6
40대	17.9	14.9	24.3	20.9	23.2	29.1	24.6	23.8	22.9	27.4
50대	28.6	26.5	29.0	32.6	27.0	25.2	29.1	26.5	30.1	27.7
60대	29.2	35.1	21.4	25.8	22.0	14.7	20.9	19.5	21.9	18.0
70대	8.4	8.7	5.1	6.6	5.1	2.7	4.0	3.9	3.2	3.1
기타	3.4	4.9	2.3	2.8	2.7	2.2	1.8	2.3	1.8	1.2

인천신용보증재단의 ‘2025 인천시 소상공인 생활백서’에 의하면, 연령별 지역 구분을 보면, 60세 이상 소상공인이 인천시 원도심과 도서지역에서 비율이 높고, 신도시에서의 고령 소상공인 비율은 낮은 것이 확인된다.

〈표 3-31〉 연령별 지역 구분

(단위 : %)

구분	사례수(명)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평균(세)
신도시	269	5.9	21.2	34.6	23.0	15.2	46.93
원도심	2,145	3.4	10.0	17.2	28.6	40.9	54.79
도시지역	86	1.2	8.1	15.1	26.7	48.8	57.81

주 : 신도시는 송도, 청라, 영종, 검단의 일부 지역을 말함

대표자 평균 연령을 권역별로 세분화하면, 도시지역 소상공인들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고, 반대로 신도시 지역 사장님들의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가운데, 이들 지역간 격차는 10세 내외이다. 보증여부별에서는 비보증 집단에서의 평균 연령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12] 권역 및 보증 여부별 사장님 평균연령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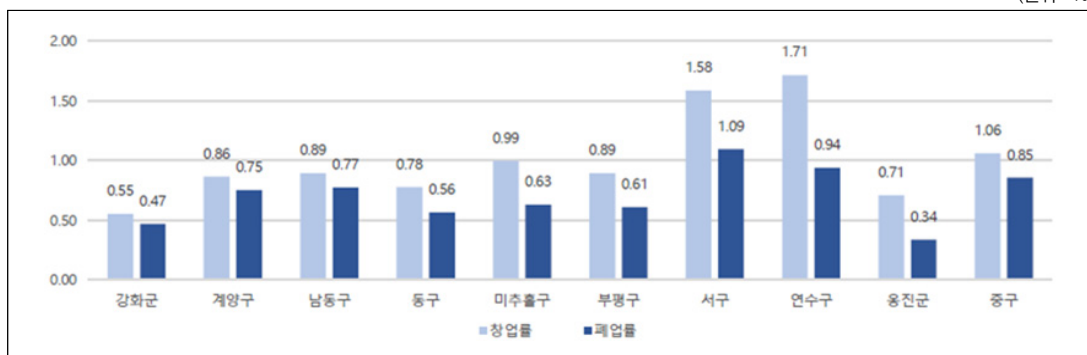


나. 지역별 폐업률

최근의 인천 지역별 폐업률 현황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인천시 소상공인 경제동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폐업률을 보면 최근에는 서구, 연수구, 중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도시 지역에서 폐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간으로 보면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시점에 따라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지역, 상권에서 고정적으로 폐업률이 높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림 3-13] 인천시 군·구별 창업률 및 폐업률(2026년 1월)

(단위 : %)



자료 : 인천신용보증재단(2026), 인천시 소상공인 경제동향

〈표 3-32〉 인천시 군·구별 폐업률

(단위 :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인천시 전체	9.28	9.90	7.95
강화군	5.45	6.41	5.80
옹진군	3.40	5.05	8.51
중구	10.71	10.88	9.47
동구	7.60	7.31	5.65
미추홀구	11.05	12.12	8.67
연수구	10.80	11.73	9.64
남동구	8.36	9.31	7.60
부평구	10.74	9.26	7.10
계양구	9.09	10.16	8.15
서구	7.69	9.18	7.39

주 : 1. 폐업률 산식 : 월중 폐업 업체/월말 가동 중 업체

2.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를 활용한 폐업률 자료로 국제청 기준 폐업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인천신용보증재단(2026), 「인천시 소상공인 경제동향」

다. 지역별 보증사고율

여기서는 인천시 연령대별 보증사고율을 통해 지역 상권의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폐업률과 보증사고율은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신용보증기관에서의 보증사고 사유에는 폐업도 포함되어 있다. 군·구별 보증사고율은 군·구별 편차가 크지는 않다. 2025년 기준으로 미추홀구가 가장 높고 동구가 가장 낮다. 하지만 그 차이가 2.46%p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역별 편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별로 보증잔액 대비 일정한 비율의 사고금액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표 3-33〉 인천시 군·구별 보증사고율(2025년)

(단위 : %)

구분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보증사고율	7.47	6.27	6.78	5.17	7.63	5.89	6.84	6.11	6.48	6.59

아래 표에서와 같이 군·구별로 구분한 후 연령대별로 보증사고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일단 옹진군, 동구의 연령별 보증사고율 편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층으로 좁혀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군구에서 60대, 70대의 보증사고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편인 것으로 나온다. 고령층이라고 해서 보증사고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 단순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중구, 미추홀구에서 고령층의 보증사고율이 높고, 동구, 옹진군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폐업률이 높은 지역과 일관된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보증사고의 사유에는 폐업 외에도 연체 등이 있어서 폐업률과 보증사고율이 지역별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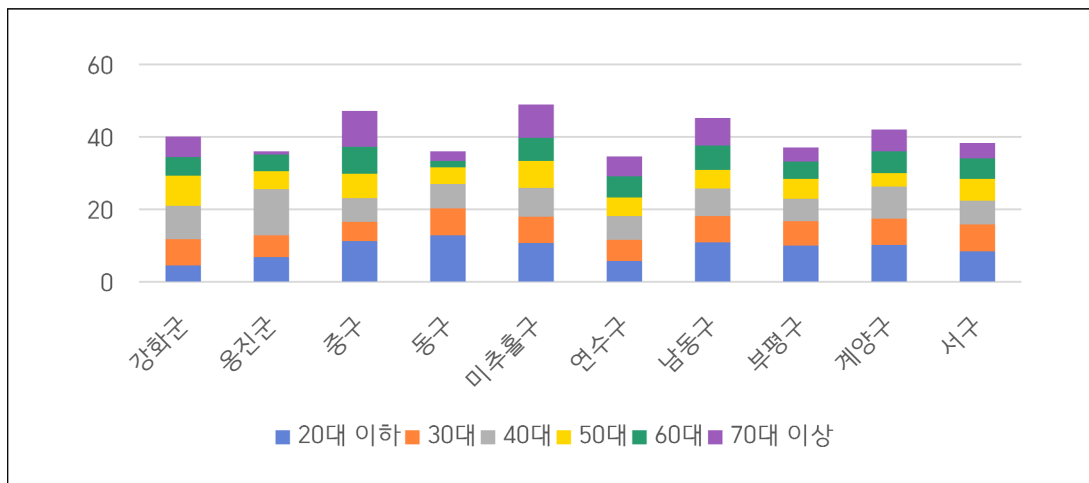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는 지역별 폐업률과 지역별 고령 소상공인 비중의 일관된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소상공인 고령화와 폐업률, 보증사고율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고, 고령화가 상권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고령층의 연령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사업을 더 벌이지 않는 만큼 대출이 많지 않고 그만큼 사고율도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단순히 고령자가 많다는 것이 상권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표 3-34〉 군·구별 연령대별 보증사고율 교차분석(2025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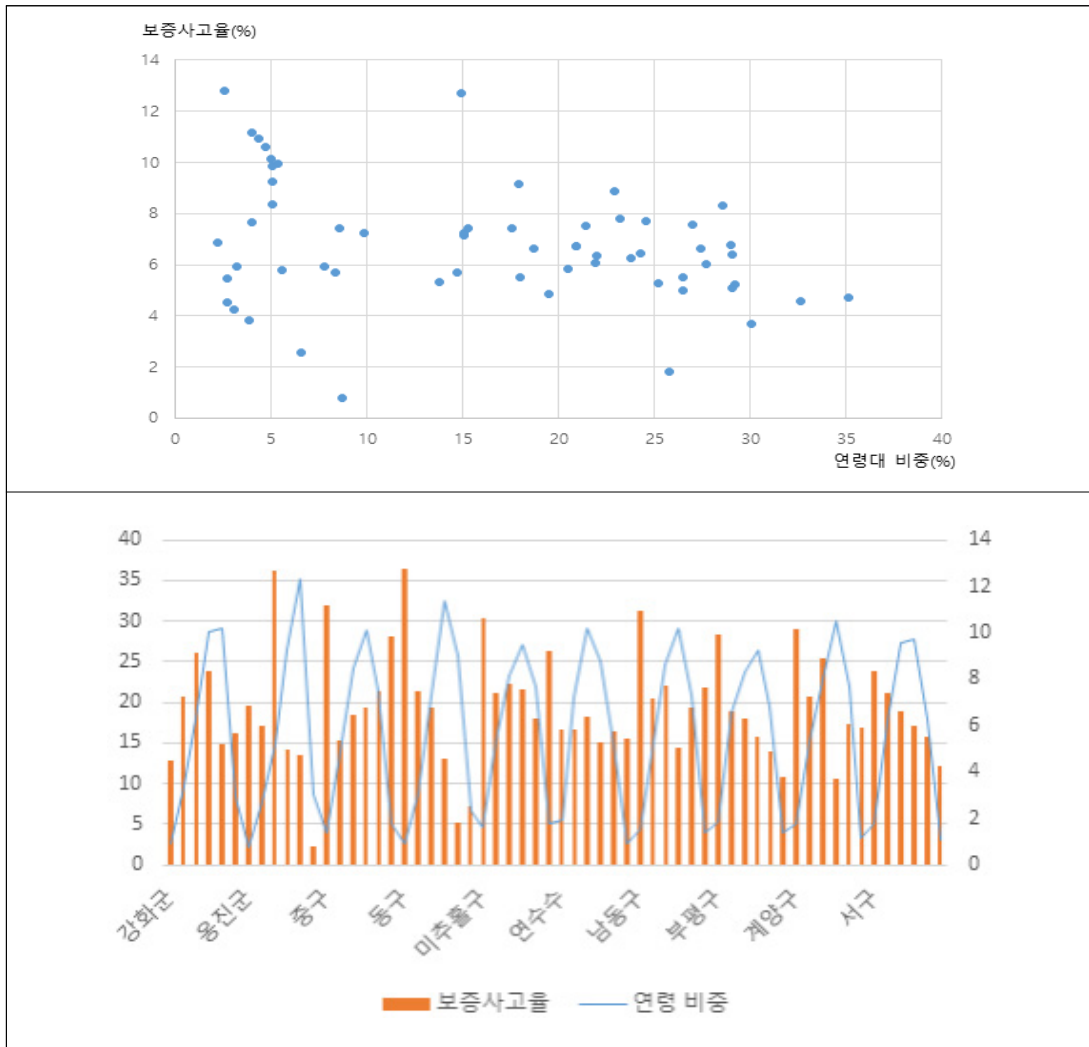
구분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20대 이하	4.52	6.86	11.19	12.79	10.60	5.81	10.92	9.95	10.13	8.36
30대	7.22	5.95	5.34	7.45	7.41	5.82	7.16	6.65	7.25	7.44
40대	9.16	12.70	6.46	6.74	7.82	6.42	7.72	6.28	8.86	6.64
50대	8.31	4.98	6.76	4.60	7.57	5.30	5.07	5.53	3.70	6.01
60대	5.21	4.71	7.50	1.81	6.34	5.72	6.74	4.85	6.07	5.53
70대 이상	5.70	0.80	9.85	2.56	9.24	5.47	7.66	3.81	5.93	4.26
평균	7.47	6.27	6.78	5.17	7.63	5.89	6.84	6.11	6.48	6.59

[그림 3-14] 군·구별 연령대별 보증사고율 분포(2025년)



인천시 군·구별로 연령별 소상공인 비율(표 3-)과 보증사고율 분포 데이터(표 3-)를 바탕으로 상관분석을 했을 때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가 나온다(-0.286, p값 0.027). 여기서 지역별로 구분해 봤을 때도 고령자의 보증사고율이 낮다는 것이 확인된다. 아래와 같이 산점도와 그래프로 그려보면 군구의 연령대별 사업체 비중과 보증사고율의 반비례 관계를 뚜렷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폐업과 상권 쇠퇴가 상관성이 높다고 본 기존의 가설은 데이터로는 고령화와 상권 쇠퇴의 직접적인 관계는 규명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15] 군·구별 연령대 비중과 보증사고율 분포



라. 공실률

상권 쇠퇴, 노후화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측정가능하나 가장 쉬운 방법은 공실률 수치이다. 상가 공실률을 통해서 보더라도 옹진군, 강화군, 동구, 미추홀구 등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인천 원도심 지역에서 공실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하기 힘들다. 따라서 직관적으로 추정했던 것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고령화 진행이 원도심과 구도심의 상권 구분이나 상권 쇠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전통시장 등 특정 세부지역에서는 고령화의 영향이 나타났을 수도 있으나 통계를 통해서만 그러한 사항을 확인하기 힘들다. 하지만 장래에 지역별 고령화 편차가 심화되는 경우 상권 쇠퇴에 영향을 줄 개연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미리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고령자-상권-전통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연결관계가 있는지 현장조사를 늘려갈 필요가 있다. 폐업률, 공실률 등은 공간을 더 세분화하여 특정지역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인천은 원도심, 신도시의 지역적 차이는 뚜렷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공간에 표시하는 공간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고서는 세부지역별로 정확한 상권 쇠퇴 현황은 살펴보기 힘들다. 이것이 공간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상권 현황을 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준비를 해 가야 하는 이유이다.

〈표 3-35〉 인천 주요 상권(중대형 상가) 공실률 현황

(단위 : %)

구분	'24년 1분기	'24년 2분기	'24년 3분기	'24년 4분기	'25년 1분기	'25년 2분기	'25년 3분기	'25년 4분기
인천	13.9	13.8	12.5	12.7	12.4	12.6	13.6	14.2
간석오거리(남동구)	20.8	20.8	20.8	24.0	15.6	16.0	16.0	15.6
검단사거리(서구)	-	-	1.3	1.3	2.5	2.5	1.9	2.9
계양계산(계양구)	8.4	8.4	7.7	7.7	7.7	9.9	9.9	9.9
구월(남동구)	8.6	9.0	8.8	10.2	10.9	10.4	9.7	9.6
부평(부평구)	19.8	18.0	16.3	15.6	16.5	18.3	21.7	22.4
가정중앙시장(서구)	13.0	12.3	11.3	11.3	11.3	7.0	7.0	7.0
소래포구역(남동구)	-	-	22.2	24.0	24.0	24.0	24.0	24.0
신포동(중구)	21.4	21.3	20.8	20.5	21.2	24.5	31.6	30.5
연수역(연수구)	-	-	3.7	3.7	3.7	3.7	5.1	8.3
인천서구청(서구)	-	-	9.6	8.1	8.1	8.14	7.0	6.6
인하대앞(미추홀구)	14.2	18.6	13.3	13.3	14.6	15.0	18.6	21.4
주안(미추홀구)	9.0	9.0	9.0	9.0	9.0	9.0	9.9	12.2

자료 :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표 3-36〉 인천 주요 상권(소규모 상가) 공실률 현황

(단위 : %)

구분	'23년 4분기	'24년 1분기	'24년 2분기	'24년 3분기	'24년 4분기	'25년 1분기	'25년 2분기	'25년 3분기
인천	6.54	6.88	7.31	7.34	6.98	10.41	10.36	11.34
간석오거리	4.85	4.85	6.51	6.51	5.04	3.37	3.37	3.37
검단사거리 완정역	-	-	-	11.76	7.69	7.69	7.69	11.76
계양계산	0.65	0.65	0.00	0.00	0.00	0.00	0.00	2.22
구월	0.00	0.00	0.00	3.53	22.45	44.43	33.97	33.97
부평	3.12	3.12	7.21	5.44	5.44	10.09	15.35	16.18
석남/가정중앙시장	10.15	10.15	7.80	7.80	7.80	7.80	7.80	7.80
신포동	12.61	12.61	11.39	10.22	10.22	16.76	20.40	21.39
인천서구청	-	-	-	0.00	0.00	0.00	0.00	6.58
주안	6.54	6.54	6.54	9.75	9.75	17.33	11.55	11.55

자료 :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제5절 분석 종합

1. 시사점

가. 추세 및 실적 확인

신문기사와 이전 연구들에 의하면 고령 자영업자들은 i) 주로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진입하고 있어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으며, ii) 준비 부족, 낮은 생산성 등으로 여타 연령대와 비교해 수익성이 낮고, iii) 부채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통계와 그 원자료, 인천시 통계,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조사, 신용보증재단 통계분석시스템, KCB 데이터 등 각종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 사업자로 기준을 달리하여 보더라도 일관되게 고령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것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범주가 유사하므로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고령 소상공인이 창업 준비과정이 부족하고 부채가 높은 것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수익성이 낮거나 부실 위험이 높다는 것은 현재까지의 공표된 통계로는 확인하기 어렵고 일부 통계에서는 그 반대로 나타난다.

고령자가 매출액, 영업이익 등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낮지 않으며 소상공인이 경기변동의 영향을 더 많이 받지만 고령자에게서 특별히 더 높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신용보증과 관련해서도 고령자의 보증사고율이 더 높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젊은 층의 보증사고율이 매년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업력을 고려해 봤을 때 업력이 짧은 고령 소상공인 즉 창업하지 얼마 안 된 고령 소상공인에게서 보증사고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이 확인된다. 고령 소상공인이 모두 위험한 것이 아니라 노후 창업에서 부실 위험이 특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고령층에서 기회형 보다는 생계형 창업이 높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령화와 상권쇠퇴의 인과성에 대해서도 일부 확인되는 사항은 있지만 상관성이 높은 것은 아니

다. 고령화에 따라 상권 쇠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권쇠퇴의 결과로 고령화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고령화가 반드시 상권 쇠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장인형 상점(맛집, 기술 기반), 관광형 상권, 지역 커뮤니티 중심 상권 등에서는 고령화 되어 있어도 오히려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시설이 노후화 되어도 반드시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레트로 감성, 역사성 있는 거리로 인식되면 낡음도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에는 세부 지역별 상권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통계가 세부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나. 고령 소상공인 특성

고령 소상공인은 공통적으로 디지털, 비대면, 온라인 주문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자가 창업준비 기간이 짧고, 창업교육 경험이 낮으면서 전자상거래 실적도 낮아서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경영컨설팅 교육, 사업편의환경 조성지원 등의 필요성이 높다.

한편으로 소상공인은 하나의 집단이 아닌 만큼 고령 소상공인도 동질적 집단으로만 볼 수는 없다. 점포 규모에 따라, 업종에 따라, 지역에 따라 세분집단별로 성격이 제각각 다를 수 있다. 고령자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게 아니라 고령 자영업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를 것이다. 생계형 창업, 상권쇠퇴 지역 입지, 과밀업종 진입의 경우에는 위험이 높아질 것이고, 단골 기반 확보, 부채 비율 낮음, 장기 운영 경험, 지역 커뮤니티 연결 등을 갖추고 있으면 오히려 위험이 낮아질 것이다. 이 경우에는 연령, 업력이 강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앞에서 고령 소상공인의 상황, 실적 등이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나타나거나 세분화된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고령자 집단을 생계형이라든지, 노후 창업자, 쇠퇴상권 등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계형 창업, 은퇴 후 고령 창업자 등에 대한 기초 통계를 확보하여야 하고, 지역상권 정보의 생산 및 공유도 염두에 두고 추적 조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분화 된 집단에 적합하도록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책 사업도 특정 집단을 선별하여 거기에 적합한 정책 사업들이 기획되어야 한다.

다. 노후 창업의 위험

고령 소상공인 집단 전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다. 고령 소상공인 중에서도 노후 창업, 취약차주가 더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순히 연령만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고령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시행되기보다는 준비 안 된 고령창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 자영업자라고 해도 다 같은 집단이 아니라 생계형도 있고, 기회형도 있다. 조기퇴직, 정년퇴직한 고령자는 생계형 창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에게서 경영위험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생애 후반기에 자영업으로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기술과 자본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생산요소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다면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사업유지가 결코 쉽지 않다. 창업 당시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영업을 그만두게 될 위험률은 높아진다. 창업 당시의 연령이 45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을 그만둘 위험률(hazard ration)이 높았다³⁷⁾.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노후 창업이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은퇴자들의 재취업이 앞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정책은 대안으로 재취업 일자리를 늘려 창업을 재취업으로 전환하고, 생계형 창업을 억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이것이 고령 창업을 억제할 가능성은 적다. 은퇴후 대안이 안 보일 경우에는 어떻게든 생계 유지를 위해 자영업 진출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이 중고령층의 완충장치 기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령 빈곤과 취약노동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되는 역설적 구조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생계형 창업을 억제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할 때는 전환, 지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2. 후속 과제

현재로서는 노후 창업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고령 소상공인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인천에서도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고령 소상공인의 폐업, 신용위험, 상권쇠퇴 등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제2 베이비 부머의 본격적인 퇴직으로 생계형 창업이 더욱 늘어나는 경우에는 고령자 집단의 부실 위험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 최근 베이비 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정년을 맞이하여 임금노동에서 비임금노동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도 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노후 창업은 근본적으로는 창업을 억제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 진입하는 만큼 무작정 억제만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성격에 따라 재취업으로 전환하거나, 업종전환을 유도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창업을 지원하는 수단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버티기·생존이 아닌 전환, 퇴출, 승계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하며, 창업이나 재창업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으로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금지원과 더불어 구조적으로 교육·네트워크·플랫폼·지역 생태계 중심으로 사업 지원 방향을 전환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 소상공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37) 이승열·손연정(2018), 「중고령 자영업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컨설팅, 디지털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정보화,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교육, 경영컨설팅을 강화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다. 신용보증 등 금융적 지원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컨설팅을 어떻게 보증 프로그램과 융합시켜갈지, 어떻게 효과적인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제각각 처지가 다른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신속하고,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통계가 우선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상권분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새로이 지역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3-16] 시사점 및 후속과제

 시사점	 후속과제
단순히 고령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준비 안 된 고령 창업이 위험 ▪ 은퇴 고령자가 생계를 위해 음식점, 소매업 등 과밀 업종에 진출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 ▪ 고령자 외에도 자영업자 전반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함	고령 창업의 억제, 전환, 지원의 동시적, 복합적 추진 ▪ 고령 소상공인 지원 강화 ▪ 구조적 전환 및 변화 유도
고령 소상공인도 동질적 집단은 아님 ▪ 단지 규모가 작다는 의미일 뿐 수 많은 사업체가 포함되어 있어서 업종, 지역, 성별 등에 따라 성격이 제각각 ▪ 세분 시장 별로 현황 파악이 우선	인천 소상공인의 세분화된 접근 ▪ 생계형 창업, 은퇴 후 고령 창업자 등에 대한 기초 통계 확보 ▪ 지역상권정보의 생산 및 공유, 활용 ▪ 특정 집단에 초점을 둔 선별적, 맞춤형 정책
고령 소상공인은 공통적으로 디지털, 비대면, 온라인 주문 등에 취약 ▪ 역량강화 및 사업편의 환경 조성 지원이 필요	지속적인 교육 컨설팅, 디지털 교육 확대 ▪ 디지털 역량 강화 및 경영컨설팅 교육 강화

제4장

대응방향



제1절 기본 방향

1. 지원방식의 전환 및 효과 제고

근래 자영업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경기순환의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인구감소, 고령화, 소비 구조 변화 등 경제 전반의 구조적 재편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단편적인 지원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변화를 인식하면서도 추세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총체적인 시각에서의 복합적인 지원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모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면서도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집단은 은퇴 후 자영업에 진출하는 노후 창업의 경우이다. 이들이 증가추세이면서도 위험성이 높은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생계형 자영업자도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정책 지원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령 소상공인은 폐업 시 소득 단절, 사업 승계 어려움, 정책 접근성 부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정책적 접근이 쉽지만은 않다.

고령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해법은 ‘버티게 하는 지원’이 아니라 ‘전환·퇴출·승계’를 유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정책은 대부분 생존 지원 중심이었고, 출구·전환 등 구조적 변화 유도는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생계형 소상공인의 일부는 고령화와 사업체 운영의 어려움으로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를 대비해 폐업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폐업을 고려하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단순히 폐업 비용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기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경쟁력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단기생계지원·직업전환·재도전 프로그램을 연계한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자발적 폐업과 노동시장 재진입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중장년층이 자신이 가진 경력과 경험을 살려 다른 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자영업 진입보다 바람직한 경로가 될 수 있다. 또한, 점포 철수 후를 대비한 컨설팅과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 폐업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지원금 + 재취업 연결, 연금형 소득 지원(노란 우산 강화), 채무 정리 지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고령 사업자에 대한 정책은 사업자 지원과 근로자로의 유도, 고령자 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과 연결되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2. 고령층 맞춤형 정책 강화

현재도 시행중에 있으나 은퇴 고령층의 창업준비 기간이 여전히 짧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창업 관련 정보 제공,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재기지원사업 등에 ‘교육 + 의무 조건’을 붙여서 교육과정이 필수적인 과정으로 인식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시장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영 컨설팅, 전문가의 조언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인생 경험이 풍부한 고령자가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기존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컨설팅도 중요하지만 이제 창업 준비를 하는 예비 창업자에 대한 사전관리도 중요하다. 소상공인도 예비 벤처의 경우와 같이 창업 이전 단계부터 정책 지원 대상으로 폭을 넓혀야 한다. 고령 창업자를 위한 지원센터 설립, 커뮤니티 형성 등을 통해 고립감을 해소하고,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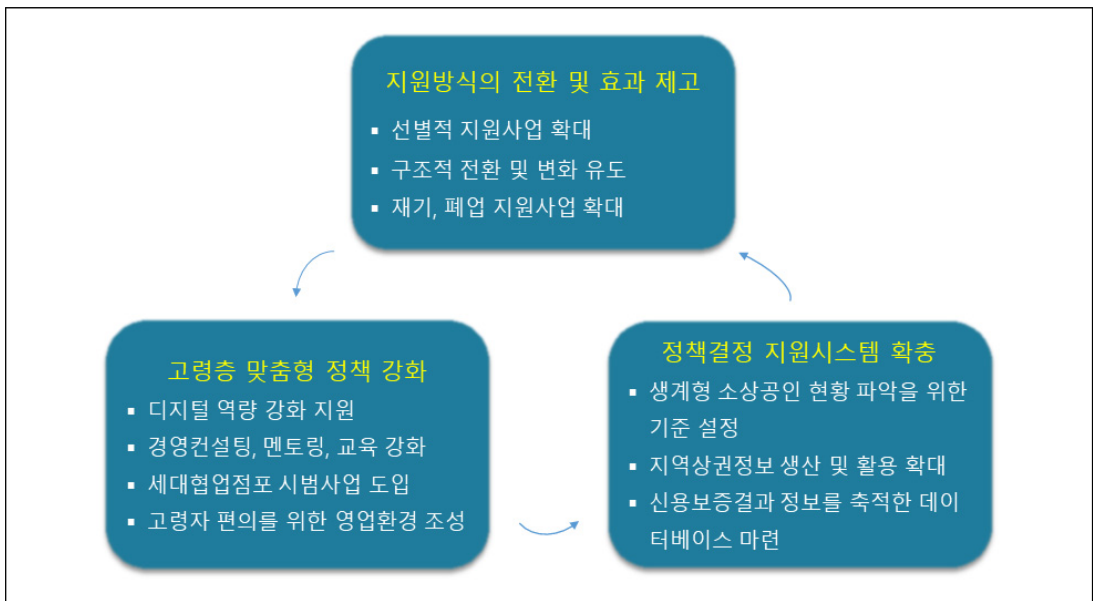
자영업자를 지속하고자 하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자 대상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마련해야 한다. 온라인 마케팅, 전자상거래 활용법 등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특히 SNS 홍보, 배달앱 운영, 온라인 상권 활용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위한 기술 지원 서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확충

인천의 고령 소상공인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지는 골목별로 상권별로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실시간으로 현황 파악이 되어야 상황에 걸맞는 정책이 도출될 수 있다. 고령화가 반드시 상권 쇠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구도심, 전통시장 주변, 인구 감소 지역 등에서는 상권 쇠퇴의 정도가 더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다. 사업주 고령화뿐만 아니라 점포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조사 및 통계화도 필요하다. 고령 자영업자 밀집지역에는 지역 상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 정책사업 발굴 및 선별적 지원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세부지역별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상권분석시스템 등을 통해 정확한 업종별 과잉 수준과 폐업을, 수익성 등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인천지역의 통계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365와 차별화 하면서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정보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4-1] 기본방향 설정



제2절 대응 과제

1. 지원방식의 전환 및 효과 제고

가. 고령 창업자 특례보증 도입

은퇴 후 생계형 업종으로의 진입이 늘고 있는데 창업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진입하고 있어서 부실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는 의미에서 특례보증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연령에만 초점을 두고 고령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령이면서 창업 1~2년차로 한정하여 창업 초기의 고령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고령화 사회 대비 보증사례는 2012년 신용보증기금의 고령친화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례가 있는데, 이는 고령 자영업 창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고령친화산업 영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의한 고령친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 지정 기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고령친화 제품개발 연구자금을 배정받은 기업, 노인요양 관련 서비스업 영위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특례보증의 인센티브로는 보증료 감면, 거치기간 확대 등을 검토할 수 있고, 고령자의 남은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일시상환보다는 분할상환을 늘리는 방향으로 상품을 설계할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일시상환 방식의 보증 건들이 분할상환 방식의 보증 건들에 비해 보증사고 발생확률은 낮지만, 대위변제 확률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연령, 업력 외에 추가 대상조건을 염두에 둘 수 있는데, 컨설팅 교육 이수, 세대협업 점포 시범사업, 생계형 자영업 등과 결합하여 대상을 제한하는 조건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재가·폐업 지원사업 확대

1) 원스탑 패키지 지원

신용보증 역할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의 재편이나 업종

의 전환을 통해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을 선별하여 교육, 컨설팅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사업 재편 및 업종 전환을 유도해 가는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은 현재 시행중인 재기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재취업 전환, 업종 전환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재기지원 사업에서는 채권회수, 개인채무조정 외에도 사업 재기를 위한 재도약 교육·컨설팅과 신규 보증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교육·컨설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재기지원 사업 대상자에게도 필요한 경우 창업지원, 경영환경 개선 지원, 재도약 컨설팅 등이 선택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협업을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다년도 예산 편성 방식의 도입이 이루어져야 더욱 효과적이다.

2) 폐업 지원

폐업지원 프로그램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이나 폐업(예정)인 소상공인이 경영을 정상화하거나 폐업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점포철거 지원금, 재취업 연결, 연금형 소득 지원(노란우산 강화), 채무 정리 지원 등의 세부사업이 포함된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소상공인의 폐업 충격 최소화를 위한 원상복구비 및 새출발 바우처 기술훈련 또는 건강검진지원을 통한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에게 체계적인 폐업관리 및 업종전환 지원을 통해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건강한 폐업, 연착륙을 유도하며 재창업,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의 이러한 사업 바탕위에 양도, 매각 과정에서의 역할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양도 대상과 양수 희망자를 물색하여 중개하는 역할을 고려할 수 있다. 사업주의 연령이 높은 경우를 분류해 놓고 사업체를 양수할 희망자를 찾아 풀을 구성한 다음 매칭을 지원하고 기업 및 영업의 양수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금융 및 비금융 서비스를 일괄 지원하는 형태이다³⁸⁾.

다. 폐업유도 대상 선별기준 마련

1) 필요성

통상 폐업은 적절한 시점보다 늦게 이루어진다. 폐업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빨리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보다 적절한 시점에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고령자는 다른 연령층과는 다르게 재기의 기회가 적고 부실, 연체에서 폐업에 이르는 기간이 짧을 수 있다. 폐업 위험이 높은 고령 소상공인에 대해 사업지속정책과 질서있는 퇴출정책을 동시에 설계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폐업가능성이 높은 고령 소상공인을 분류하

38) 설윤·소병화(2025),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중소기업금융연구 제45권 제2호

는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영위기 알람모형이 경영위기 징후가 보이지만 생존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을 선별하여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하려는 취지라면 이와는 반대로 부실위기의 기준은 생존 가능성이 적은 사업체를 선별하여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2) 기준 설정 예시

기준은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예를 들어 '개인신용평점이 6개월전에도 500점이하이면서 현재도 500점이하인 경우에 6개월간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대출금이 증가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5년 KCB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자를 산출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이 18개 업체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참고로 현재 위기소상공인 경영위기 알람모형의 기준은 중위등급평점(701점~900점) 소상공인이 6개월후 저신용등급 평점(700점이하)으로 하락한 경우, 매출이 감소하고 제2금융권 대출비율 30%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표 4-1〉 퇴출 대상 선별과정 예시

개인 신용평점	업체수	6개월후 등급		매출액 변화(546개 업체)		대출금 변화(546개 업체)	
		501점 이상	500점 이하	매출 증가	매출 감소	대출 감소	대출 증가
500점이하	781	235	546	158	388	528	18

주 : KCB로부터 '25.6월과 '25.12월에 수령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3) 지원 프로그램

선별기준에 의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사업자 선택에 의해서 폐업 또는 재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한다. 폐업을 원할 경우 채무조정, 철거 지원 등 폐업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건강검진, 기술 훈련 등 폐업이후 새출발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폐업 관련 지원정책을 활용한 경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제도 인지 부족, 접근성 한계, 행정 절차 복잡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되므로 제도의 전달체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라. 세대협업점포 시범사업 검토

1) 필요성

인천의 전통시장이나 특정 구역, 지역, 행정동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상권쇠퇴 현상이 심각할 수도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여러 고령화에 대한 대책과 함께 청년과 고령자를 묶어서 '세대 협업 점포'를 지정하는 정책이 점포 활성화 차원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다. 이 모델은 고령자의 경험과 청년층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결합하려는 취지에 바탕을 둔다.

세대협업점포 모델은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점포 노후화에 대응할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에서 ‘사업 승계 매칭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먼저 도입된 바 있고, 서울시에서는 세대융합형 창업 지원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바 있다.

2) 추진 방향

사업시행 이전에 청년-고령 소상공인 멘토링 결연, 지역 내 상인회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선행되어 청년과 고령자의 협력 분위기가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대학생이나 청년 창업가들이 고령 사장님들의 가게를 방문해 SNS(인스타그램 등) 홍보, 리뷰 관리, 온라인 마케팅을 도와주는 자원봉사 또는 지역상생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또한 청년과 고령자가 상인회 안에서 소통하며,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자에게 지원 사업 정보나 요즘 장사 트렌드를 공유해 주는 협력 체계도 중요하다. 이 사업은 고령자와 청년의 역할 분담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 점포의 성격에 따라 효과적인 모델이 다를 것이고 당사자들의 선택에 따라 적용모델은 달라질 수 있다.

〈표 4-2〉 세대협업점포 사업 유형

구분	특성	구조	기대 효과
점포 승계형	- 고령 상인이 점포 유지 - 청년이 운영·브랜딩 담당	- 노인 : 공간·단골 제공 - 청년 : 메뉴·마케팅 혁신	폐업 방지 + 매출 회복
공동 브랜드형	여러 고령 상점을 묶어서 청년이 하나의 브랜드로 재구성	전통시장 →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역할 분업형	생산(노인) + 판매/마케팅(청년)	수제식품, 반찬, 공예품	
상권 운영 조직형	- 청년 : 상권 기획·운영자 - 노인 : 입점 상인	일종의 미니 디벨로퍼 모델	

세대협업점포 모델 사업의 구조는 고령 점포 데이터 확보, 청년 창업자 매칭, 상권 단위 리브레딩, 보증 + 임대 + 컨설팅 결합 등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업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중간 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천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중재자 역할, 분쟁 조정, 컨설팅 제공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

2. 고령층 맞춤형 정책 강화

가. 교육, 컨설팅 강화

1) 창업전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확대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일수록 창업준비기간이 짧고 창업교육 경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후 창업이 부실 위험이 높고 취약하므로 창업 전부터 교육·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증 이용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잠재수요층과 준비되지 않은 고령 창업의 사전관리에도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은퇴자 중 노후 창업을 하려고 하는 예비창업자의 신청을 받거나 인천 산하기관 간의 협조에 의해 명단을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공모전을 열어서 교육, 인큐베이팅 과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 창업교육에 초점을 두지만 원활치 않은 경우 재취업을 선택할 수 있는 통로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의 세부사업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육·컨설팅 확대

보증이 단순한 자금지원으로 끝나기보다는 교육·컨설팅과 연계되는 패키지형 지원체제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에서는 단기간 내 시행하기에 현실적 제약이 있을 수 있는 바, 온라인교육 연계를 우선 시범 도입하는 방식이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판단된다. 교육·컨설팅 과정에서는 이론 전문가보다는 현장 경험이 많은 고령 장기운영 대표자를 멘토, 현장교수, 업종 자문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들이 교실에서 강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현장에 체류하며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교육·컨설팅은 점포운영 경험 공유 및 상권관련 특강 등 자문회의 개최,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벤처창업캠프, 서울시 50+ 창업스쿨, 실버여행학교 등과 같이 아이디어 교류, 기술 협업이 일어나는 인천시 소상공인의 네트워크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례 : 서울시 50+ 창업스쿨

서울시 50플러스재단에서는 '서울시 50+ 창업스쿨'을 통해 50세 이상 중장년 서울시민에게 창업 교육, 멘토링, 시제품 지원, 팀빌딩 기회를 제공한다. 부산, 대전, 광주 등 광역시 단위에서도 창업 허브 센터, 실습 공간, 시제품 제작소를 운영하며, 지역 특화 업종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장년층이 주로 관심을 갖는 업종(요식업, 교육, 건강관리, 시니어 케어 등)에 대한 특화 지원도 확대되고 있으며, 신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창업넷(창업진흥원 운영)에서 가능하다.

3) 디지털 교육 확대

중장년층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온라인 주문, 배달앱, 키오스크 등으로 정보화가 가속화 되고 디지털 전환(DX)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고령 소상공인에게는 디지털 교육이 무엇보다 우선될 필요가 있다. 중장년 특성에 맞춰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 실습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전문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결합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사례 : 서울시「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만 40세~65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1:1로 매장에 방문한다. 이후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받고 최대 300만 원의 솔루션 이행비용(홈페이지 제작, 광고비 등)을 지원받는다. 실제로 SNS 홍보를 배워 매출이 크게 오른 피트니스 센터나 식당 사례가 많다.

4) 찾아가는 보증 서비스 확대

전통시장 등 고령자가 밀집한 상권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령자의 보증 이용편의를 돕는 것이기도 하지만 신용보증에 대한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신용보증 브로커 개입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전에도 직접 시장을 방문해서 예방 교육까지 진행하는 ‘브로커 예방 강화의 달’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나. 고령 사업자 사업편의 환경 조성

1) 고령자 점포 작업환경 개선 지원

중장년은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 일하기 힘들며 면역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편리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자 점포를 선정하여 관련 집기, 시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인체공학 의자, 조명, 미끄럼 방지 바닥, 자동온도조절기, 저소음 환기시스템 등이 주요 지원대상 집기 또는 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노후점포 환경개선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다만 노후점포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상품배열 개선, 화장실 개선, POS기기 및 키오스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 사업은 자영업자의 작업환경 개선, 위생 및 보건에 초점을 두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이 사업은 고령자가 오래, 무리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 성격 외에도 노인들의 건강, 복지 향상 프로그램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대상자는 선정기준을 두고 심사에 의해 선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선정 기준은 연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원필요성, 개선 효과, 정책타당성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점포 업력, 생계형 자영업, 매출액, 점포 노후도, 사업 지속 의지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연령은 대표자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연령도 심사기준에서 감안되어야 한다. 유사한 사업으로는 지역 사회의 봉사단 및 청년 소상공인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메뉴판 정비, 매장 환경 개선 등을 직접 도와주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들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슬로우 푸드(Slow Food) 문화 캠페인

Slow Food는 패스트 푸드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전통 식문화와 식재료를 재검토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어 음미하며 건강하게 먹는 식습관을 뜻하는 하나의 문화운동이다. 1986년 이탈리아에서 시작하여 현재 16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한국 슬로푸드협회가 활동중에 있다.

이러한 문화운동을 활용하여 고령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슬로우 푸드점 인증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로 대상지역은 강화군, 옹진군처럼 도서, 농어촌 지역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고, 기타 전통식, 로컬 푸드 생산지역을 추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에서부터 느림의 미학 문화를 활용하여 고령 자영업자에게 우호적인 영업 시스템, 환경을 갖추어가고, 느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확산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인증 시행과 관련해서는 한국슬로푸드협회와 사전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겠지만, 인증 기준으로는 10년 이상 운영, 지역 식재료 사용 비율, 조리 방식의 전통성, 스토리(역사성) 등을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변 공간에는 상점 앞 쉼터 의자 설치, 보행 거리 조성 등으로 체류의 분위기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인증을 받은 후에는 임대료 지원, 리모델링 지원, 마케팅 지원 등 공공부문의 실질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인증제로 시작하지만 점차적으로 슬로우 푸드 골목, 슬로우 마켓 등으로 확대하여 집적화 되도록 추진되어야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상권 단위의 집적화와 관광·디지털 연계를 포함한 통합적 지역활성화 전략으로 이어져야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다.

3) 고령 소상공인 대상 돌봄여행서비스 시행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사업이 2011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근래 여행·여가 보다는 의료·요양이 강조되면서 축소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건강한 노인 대상으로는 복지 차원에서 여행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사업은 개별 여행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단체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경제적·의료적 지원 등에 의한

추가적인 여행을 장려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노인들은 신체적 불편함 등으로 자발적 여행을 기대하기 힘들고, 같은 연령과의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단체여행 등에 의해 추가적인 여행을 늘려갈 수 있다.

고령 소상공인 대상으로도 동호회 형식의 여행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시함으로써 여가시간을 늘려가면서도 현장 견학, 인적 교류의 촉진 의미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광코스에는 전통시장, 관광명소, 맛집 등이 포함되므로 자연스럽게 소상공인간 교류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재원은 공공 지원, 본인 부담, 민간 연계 등을 통해 분담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확충

가. 생계형 소상공인 판별기준 설정

1) 의미

생계형 창업은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해 생계를 목적으로 진입하는 비자발적 창업을 말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서는 생계형이라는 단어가 규모가 영세하고, 수입이 적고, 성장성이 낮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향후에는 인천시 소상공인을 생계형과 기회형으로 구분해서 현황을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맞춤형 정책으로 연결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계형 소상공인 지원은 현황을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이 정책 수립의 시작이다. 자영업자를 생계형과 기회형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이러한 기준에 의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정책실행 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한다. 생계형과 기회형에는 해당 지원 정책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생계형에는 사회안전망, 폐업·재기 지원 등이 우선되어야 하고, 기회형에는 투자, 혁신, 성장 지원이 적절한 지원방향이 된다.

물론 생계형과 기회형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고정적인 것도 아니다. 기회형도 실패하면 생계형으로 전환될 수 있고, 생계형도 성공하면 기회형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학술연구에서도 필요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분류하기도 하고 단순히 창업동기에 의해 구분하기도 한다. 일례로 한국은행 리포트³⁹⁾에서는 주당근로시간, 연금수령액을 기준으로 저연금·고근로형을 생계형 자영업자로 분류한 바 있다. 연금수령액은 공적·사적 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금의 월평균 금액이다.

39) 한국은행, 2025년 5월 15일,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BOK 이슈노트

2) 판별기준의 고려 요소

가장 직관적인 기준은 영업이익 < 최저생계비 수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이하, 매출 변동성이 크고 안정성 낮음 등의 재무적 기준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 창업 동기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주관적이기도 하고 사업체별로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여기에 가능하면 무고용(1인 사업자), 저부가가치 업종(음식점, 소매 등) 등 사업특성이 가미되면 보다 적절한 판별기준이 될 것이다. 직관적으로는 다음 사항들이 구분 기준 설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여겨진다.

- 영업이익 < 최저생계비
- 가구소득 ≤ 중위소득 60%
- 창업 동기 = 생계형 (설문 기반)
- 종사자 수 = 1인 또는 가족
- 업종 = 저부가가치 업종
- 창업 전 실업 상태

구체적인 기준은 개별 기준이 타당한지, 지표별로 데이터가 뒷받침 되는지를 살펴보고, 실제 인천 소상공인의 통계를 바탕으로 검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생계형 자영업 위험지수(Composite Index)를 만들 수도 있는데, 지수화의 경우에는 점수의 표준화, 가중치 설정 등 지수화 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세부적인 상권정보의 확보

1) 현황

제3장 제4절 고령화와 상권쇠퇴에서 나타났듯이 행정동, 상권 등 특정 장소, 세부 업종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가 뒷받침 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분석에 불편함을 주게 된다. 따라서 세부적인 통계를 확보하고 이를 시각화, 정보화 하여 포털,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상권분석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특정 행정동에 대한 통계의 일부는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나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어서 이용상 불편하고 외부에서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DB화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상권분석시스템을 단순히 구축하는 경우 소상공인365, 신용보증기금의 BASA-상권분석 등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 이들과는 기능 차별화, 추가적인 기능의 제공 등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단순한 통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권활성화지수, 영업환경지수, 업종 밀집도, 입지계수 등과 같이 지수화하여 지수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소상공인365는 창업과 관련된 상권분석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고 전국을 범위로 하다 보니 골목상권, 발달상권, 전통시장 등 특정 장소에 관련해서는 일부 장소만 정보가 제공되는 한계가 있다. 제공 정보도 생존율, 영업기간, 개업률, 폐업률, 매매 임대 현황 등의 정보가 제공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지역의 상권분석시스템에서는 지표들이 추가되고 상권 진단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2) 도입 방향

상권분석시스템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항목을 특정하여 서비스 구독형으로 관련 통계를 확보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막대한 초기 구축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자체 구축(On-premise) SI(System Integration) 방식이 아닌, 검증된 플랫폼을 서비스 구독형(SaaS ; Software as a Service)으로 도입함으로써 초기 투자비용을 대폭 낮추고, 실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공공 부문의 민간 SaaS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인천시 역시 '2026년 지능정보 사회 실행계획'을 통해 클라우드 및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으므로 SaaS 도입은 정책적 정당성까지 확보된 상태이다.

또는 NICE지니데이터, NICE비즈맵과 같은 민간의 상권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수원도시재단, 부산 신보, 충남 신보처럼 일회성 용역에 의해 상권종합지수, KPI지표 등을 산출해 보고 그 활용도와 필요성을 판단해 보고 나중에 시스템의 도입에 대해 판단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최근에는 KB상권활성화지수가 구축되었으므로 여기서 인천시 정보만 선별하여 활용하거나 특정 기능의 상권시스템 구축에 대해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

다. 성과분석을 위한 데이터 DB화, 시각화

1) 개요

현재 신용보증 심사 실적자료로는 사업체별로 매출액은 일부만 파악되고 상시종업원수, 폐업 일자, 신용등급 등이 파악 가능하다. 보증실행 업체를 모니터링하는 KCB 데이터에는 월별, 지역별, 연령별로 신용등급, soho매출추정, 휴폐업 조회, 대출(은행, 제2금융권), 개인회생신청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KCB 데이터를 통해 매출, 부채, 신용등급 등 기업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으나 양 데이터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신용보증 심사 실적자료도 연도별로 집계되고 기업실적이 연결되어 파악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보증재단 통계분석시스템은 사고, 대위변제, 구상채권 등 보증 거래실적을 조회하는 화면구성 위주로 되어 있어서 사업체 정보를 축적하는 DB기능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폐업지원사업, 컨설팅 사업 등의 원스탑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사업체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야 한다. 보증심사과정,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획득한 정보가 DB화 되어 축적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사후분석을 위해서도 매출, 부채, 자산, 고용, 신용등급, 폐업 등 사업체 정보가 연도별로 정리되어 추적관리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패널데이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고 성공 및 실패 사례 분석을 할 수 있으며 보증 심사 전에 기업상태를 미리 진단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용보증 결과를 공간적으로 시각화 하여 결과를 한눈에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인천시 보증 결과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지도상에서 살펴보는 것은 현황 파악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특정 공간에서 장소마다 색깔을 달리하여 현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보증, 연체, 폐업 사업체 위치를 표시하고, 지역별로 보증신청건수, 보증집행건수, 보증잔액, 사고율, 대위변제율, 회수율 등을 집계하여 제시하는 시스템을 통해 현재의 기업단위 보증에서 상권단위 보증으로 격상시켜갈 수 있다. 더불어 자연스럽게 특정 지역의 연체율, 폐업 밀집 지역 등 지역상권 정보도 일부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된다.

2) 유사 사례

신용보증기금은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BASA(Business Analytics System on AI)를 통해 기업 경영 진단 및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지역별/연도별 신용보증 정보(공간정보 포함)를 API 파일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데이터 축적형 분석 플랫폼으로 2022년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증 데이터와 자가진단자료를 중심으로 국내 최대규모 기업 패널 DB를 구축하여 경영 진단 서비스 제공, 보증기업 성장 추적, 정책효과 분석 자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연계하여 신용보증지도 서비스 등 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 중이다. LX 공간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실시간 COS(Customer Operating System),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과 연계한 신용보증지도 서비스를 통해 보증 현황을 시각화하여 보여준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업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용보증 및 신용보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신산업 발굴 및 정책 수립과정에서 활용된다.

[그림 4-2] BASA의 보증기업 기본정보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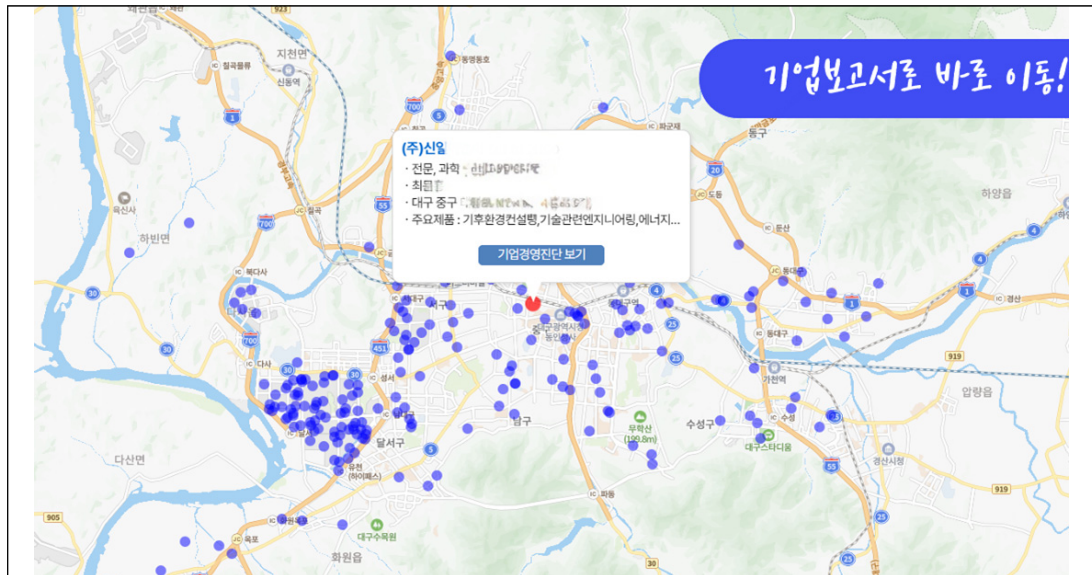
제출자료 수집시작일 2023-11-08 ~ 수집종료일 2024-11-07 검색

사업자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장주소	업종코드	업종명	설립일	BASA 등급	유형업	고용인원	제출자료			매출액(백만원)	
										사업자등록증	부가세증명원	재세표(최근...)	2021년	2022년
○ 503-81-21162	정경리온	전9890	대구 달서구 성서로	C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	1988-3	E1 (2024-11-07)	정상 (2024-11-06)	14 (2024-13)	-	-	-	3,476	2,78
○ 503-81-50600	(주)이음	전578	대구 달서군 논곡동	C20493	접착제 및 접착기	2001-1	E1 (2024-11-07)	정상 (2024-11-04)	8 (2024-13)	-	-	-	4,364	5,76
○ 514-81-79607	(주)크레텍	1908	대구광역시 달서구	G46103	섬유, 의복, 신발 등	2012-1	E2 (2024-11-07)	정상 (2024-10-30)	33 (2024-13)	-	-	-		26,58
○ 504-86-15999	(주)세광양행	9004	대구 중구 대명로	G46595	전기용 기계 장비	2014-1	E1 (2024-11-07)	정상 (2024-11-07)	4 (2024-13)	2024-09-27	2024-09-27	2024-09-27	3,335	3,88
○ 514-81-58345	(주)대림	전605	대구 달서군 옥곡동	C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	2006-	E2 (2024-11-07)	정상 (2024-11-07)	31 (2024-13)	2024-09-28	2024-09-28	2024-09-28	16,416	18,89
○ 513-87-01092	(주)비파	전995	대구광역시 수성구	G46203	사료 도매업	2018	E3 (2024-11-07)	정상 (2024-11-06)	2 (2024-13)	-	-	-	4,418	5,10
○ 504-81-54803	(주)다	전002	대구 달서구 성서로	C29241	건설 및 채굴업 기	2003	E1 (2024-11-07)	정상 (2024-11-07)	28 (2024-13)	-	-	-		7,37
○ 503-81-48759	(주)기	전008	대구광역시 서구	G46621	배관 및 배기, 난방	2009	E2 (2024-11-07)	정상 (2024-11-03)	34 (2024-13)	-	-	-	10,773	10,70
○ 502-81-72106	(주)삼익	전908	대구 수성구 지산동	F42209	기타 건물 관련 설비	2003-	E1 (2024-11-07)	정상 (2024-10-29)	13 (2024-13)	-	-	-	4,872	6,53

PDF파일은 개인정보(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삭제되어 제공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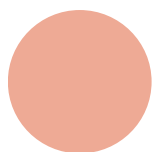
업체 정보 보기 | 자료제출 요청 예시 | 선택기업 제출자료 다운로드(pdf) | 역발판

[그림 4-3] BASA의 보증기업 분포 조회



□ 참고 문헌

- 강만수(2019), 「상권분석시스템으로 본 서울 영세자영업 통계 및 젠트리피케이션 양상분석과 시사점」, 서울신용보증재단
- 국가데이터처(2025), 「2025 고령자 통계」
- 김두순·지은정(2024), 「고령자 노동이동 : 생애 주된 숙련의 활용 관점에서」, 한국고용정보원
- 김흥기(2021), 「리스크 요인 및 기본재산 기반의 적정 신용보증규모 분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박주완·배진성·윤희준(2019),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 특성 연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남윤형(2019), 「인구구조 변화가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설윤·소병화(2025),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중소기업금융연구 제45권 제2호
- 안수지(2025), 「인구구조 변화와 자영업의 지역·연령별 구조 전환 및 대응 전략」, 국회미래연구원
- 오상봉(2025), 「자영업과 자영업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이승열·손연정(2018), 「중고령 자영업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이재호·정동재·안병탁(2025),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 이진국 편(2020), 「자영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제언」, 한국개발연구원
- 임성화·김진옥(2021), “개인 창업사업체 생존분석 : 2010~2018 행정데이터를 중심으로”. 통계연구, 제26권 제2호
- 지은정(2012), “경기변동이 자영업이행에 미치는 영향의 연령집단별 차이 -구축가설과 유인가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43권 제2호 (2012)
- 채은경(2025), 「인구생활 활력도시 인천 : 초고령사회 대응을 중심으로」, 인천연구원
- 한국은행(2025),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BOK 이슈노트
- 홍성철·정유탍·김준엽(2025),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활용한 대·중소기업 간 경기변동(Business Cycle) 비교 분석”, 중소기업금융연구 제45권 제4호, 신용보증기금
- Agarwal, S., S. Chomsisengphet, and C. Liu, (2008), “Determinants of small business default,” *The Analytics of Risk Model Valuation*, pp.1-12.



부록



부록 : 인천시 군·구별 보증순사고율의 계산과정

〈표〉 군·구별 보증순사고율

(단위 : 백만 원)

중구	보증잔액 금액	보증사고발생 금액	보증사고 정상화 금액	보증순사고율
20대 이하	7,136.24	1,132.68	334.24	11.19
30대	29,706.17	2,555.58	968.24	5.34
40대	47,432.47	4,330.91	1,264.89	6.46
50대	42,583.56	3,564.52	686.48	6.76
60대	21,837.64	2,109.13	471.53	7.50
70대 이상	3,618.39	356.33	0	9.85
합계	152,314.50	14,049.17	3,725.40	6.78

(단위 : 백만 원)

동구	보증잔액 금액	보증사고발생 금액	보증사고 정상화 금액	보증순사고율
20대 이하	1,886.12	257.56	16.35	12.79
30대	7,051.87	657.09	131.38	7.45
40대	19,503.69	1,502.18	188.26	6.74
50대	22,714.98	1,327.80	283.12	4.60
60대	12,897.26	303.61	69.57	1.81
70대 이상	1,951.43	114.95	65.05	2.56
합계	66,005.38	4,163.23	753.75	5.17

(단위 : 백만 원)

미추홀구	보증잔액 금액	보증사고발생 금액	보증사고 정상화 금액	보증순사고율
20대 이하	13,730.52	2,088.64	632.63	10.60
30대	55,489.56	5,627.73	1,517.71	7.41
40대	80,640.98	7,827.63	1,519.67	7.82
50대	74,134.56	6,988.23	1,375.22	7.57
60대	39,848.40	3,219.78	691.53	6.34
70대 이상	6,370.75	813.41	224.59	9.24
합계	270,214.80	26,565.46	5,961.39	7.63

(단위 : 백만 원)

연수구	보증잔액 금액	보증사고발생 금액	보증사고 정상화 금액	보증순사고율
20대 이하	14,264.33	1,604.24	776.08	5.81
30대	63,218.50	5,084.30	1,403.16	5.82
40대	83,249.17	6,320.68	973.20	6.42
50대	59,013.93	3,917.35	789.53	5.30
60대	23,048.79	1,697.74	380.18	5.72
70대이상	3,052.47	253.03	86.11	5.47
합계	245,847.21	18,877.38	4,408.29	5.89

(단위 : 백만 원)

남동구	보증잔액 금액	보증사고발생 금액	보증사고 정상화 금액	보증순사고율
20대 이하	16,399.25	2,688.03	897.08	10.92
30대	69,912.23	6,584.96	1,579.81	7.16
40대	104,071.69	9,970.61	1,939.44	7.72
50대	101,652.91	7,172.13	2,013.53	5.07
60대	45,905.62	4,128.52	1,033.52	6.74
70대 이상	6,178.99	644.28	170.71	7.66
합계	344,120.73	31,188.56	7,634.13	6.84

(단위 : 백만 원)

부평구	보증잔액 금액	보증사고발생 금액	보증사고 정상화 금액	보증순사고율
20대 이하	15,055.88	2,428.55	930.42	9.95
30대	59,296.31	5,780.49	1,835.61	6.65
40대	82,480.06	6,995.88	1,816.86	6.28
50대	79,379.51	5,423.42	1,030.01	5.53
60대	36,973.74	2,429.96	638.21	4.85
70대 이상	5,506.02	298.03	88.38	3.81
합계	278,691.55	23,356.36	6,339.52	6.11

(단위 : 백만 원)

계양구	보증잔액 금액	보증사고발생 금액	보증사고 정상화 금액	보증순사고율
20대 이하	6,859.55	984.39	289.47	10.13
30대	28,757.03	2,901.87	818.02	7.25
40대	43,111.93	4,923.44	1,102.26	8.86
50대	50,080.83	2,585.19	733.44	3.70
60대	23,694.31	1,774.77	336.01	6.07
70대 이상	2,403.81	324.43	181.80	5.93
합계	154,907.48	13,494.11	3,461.03	6.48

(단위 : 백만 원)

서구	보증잔액 금액	보증사고발생 금액	보증사고 정상화 금액	보증순사고율
20대 이하	21,483.01	2,999.15	1,203.88	8.36
30대	98,706.61	10,329.48	2,985.63	7.44
40대	145,560.39	12,720.67	3,050.42	6.64
50대	114,493.96	8,908.46	2,024.66	6.01
60대	45,707.04	2,924.83	397.80	5.53
70대 이상	6,748.37	414.64	127.05	4.26
합계	432,699.41	38,297.26	9,789.48	6.59

(단위 : 백만 원)

강화군	보증잔액 금액	보증사고발생 금액	보증사고 정상화 금액	보증순사고율
20대 이하	1,484.84	212.59	145.46	4.52
30대	5,937.154	622.27	193.85	7.22
40대	10,952.64	1,223.29	220.57	9.16
50대	13,682.93	1,463.42	326.07	8.31
60대	9,456.57	601.34	108.39	5.21
70대 이상	1,543.15	141.92	54.00	5.70
합계	43,057.32	4,264.86	1,048.38	7.47

(단위 : 백만 원)

옹진군	보증잔액 금액	보증사고발생 금액	보증사고 정상화 금액	보증순사고율
20대 이하	298.29	33.51	13.05	6.86
30대	1,592.05	147.80	53.05	5.95
40대	2,823.73	617.11	258.53	12.70
50대	4,771.10	338.60	100.82	4.98
60대	4,385.55	378.41	171.84	4.71
70대 이상	879.16	7.405	0.36	0.80
합계	14,749.90	1,522.85	597.67	6.27

기본연구보고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보증 이용기업의 연령대별 특성 분석과 대응방향

발 행 인 이부현

발 행 일 2026년 4월

발 행 처 인천신용보증재단 조사연구실

인 쇄 처 032디자인㈜

연구 책임 김희수, 유길현

© 인천신용보증재단 2026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